

# 개 회 사

안녕하십니까?

각 분야에서 인적자원개발을 위해 수고하시는 여러분을 모시고 전북·충남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의 춘계 공동 심포지엄을 열게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합니다.

21세기 인적자원개발은 개인과 공동체 간 관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균등한 교육기회를 실현하기 위한 교육복지의 실현과 국가의 구성원을 창의적이고 경쟁력 있는 인재로 키우는 데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발맞추어, 지역의 인적자원개발 균등교육기회의 제공을 통한 개인의 역량강화와 주민 개개인의 요구를 지역 사회의 성장과 지역 경제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습니다.

최근 미 풋볼의 슈퍼볼 MVP 하인즈 워드 선수의 방한과 더불어 혼혈인에 대한 관심이 촉발된 가운데, 우리나라에서 급증하고 있는 해외이주결혼가정에 대한 인식이 개인적인 선택을 뛰어 넘어, 사회적 요인으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경직된 사회 통념과 가부장제적 문화와 환경 속에 해외이주여성결혼가정은 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하고 교육 및 사회보호체계로부터 소외되거나 문화적 편견으로 인해 고통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해외이주결혼가정 자녀의 경우는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어머니의 함께 생활함에 따라 언어발달이 지체되어 기초학습능력이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들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이에, 범정부적인 정책네트워크의 구축기반을 위한 다각도의 방안을 찾고자, 전북·충남인적자원개발원센터에서는 「전북·충남지역 해외이주결혼가정지원을 위한 인적자원개발의 정책방향」이란 주제로 중앙부처의 정책방향과, 지역에서 행하고 있는 사례를 중심으로 함께 생각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충남의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각계 전문가, 시·도 교육청 담당자, 시·도 인적자원개발 담당자, 실무자, 대학, 언론기관, NGO 등을 모시고, 인적자원개발의 지역 간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일환으로 전북·충남의 사례 발굴을 통한 반성과 미래지향적인 정책방향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이번 심포지엄에서 첫걸음을 내딛고 있는 해외이주결혼가정 인적자원개발에 관한 정책 방향을 설계하는 의미있는 자리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19

전라북도 인적자원개발지원센터장 한 영 주

# 격 려 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싱그러운 5월! 신록의 계절에 「해외이주 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RHRD정책방향과 과제」라는 주제로 전북·충남 RHRD센터가 공동으로 심포지엄을 갖게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아울러 본 심포지엄 개최 준비에 수고 많으신 한영주 전북RHRD센터장님, 백남훈 충남 RHRD센터장님을 비롯한 양도 관계자와 바쁘신 중에도 주제발표와 토론을 위해 전라북도를 방문하여 주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친애하는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여러분!

21세기는 지식기반사회로 경쟁과 협력 네트워크의 사회라고 하는 거버넌스 시대입니다.

산업시대에서는 독자적인 발전이 가능했습니다만 지식기반 사회에서는 다양한 분야에서 여러 기관 단체가 상호협력을 해야만 지속적인 발전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최근 우리사회에 가장 큰 관심을 받고 있는 「해외이주 결혼가정 지원」을 위한 오늘의 심포지엄은 매우 시의 적절하고 현실에 맞는 주제라고 생각합니다.

자라온 환경과 문화가 다르고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못함으로써 겪어야 했던 다문화 가정의 고통을 이제 우리사회가 품어 안아야 하며 그들의 자녀들이 차별과 소외에서 벗어나 충분한 교육과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친애하는 인적자원개발 관계자 여러분!

지역인적자원개발의 목표가 지역의 경쟁력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있다고 볼 때 지역인적자원개발은 지역혁신을 위하여 가장 중요한 선결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선진사회로 진입하기 위해서는 이 시대가 요구하는 유능한 인적자원을 보다 많이 육성 배출해야하는 것입니다.

특히 거버넌스 차원에서 다문화가정을 포함한 주민 모두를 아우르는 지역인적자원 개발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요구되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대학, 기업, 사회 단체 등 민간주체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필요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해주신 여러분께서도 소속기관의 인적자원개발과 지역혁신을 통하여 우리나라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도록 더욱 매진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오늘 심포지엄을 계기로 그 동안 주목받지 못했던 해외이주결혼가정 지원 등 지역 인적자원개발이 한층 더 발전되길 진심으로 기대합니다.

끝으로 이번 심포지엄을 준비하신 관계자와 멀리서 전라북도를 찾아주신 여러분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여러분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006. 5. 19

전라북도 행정부지사 이 형 규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넣어주세요....

# 목 차

## Session1

### 주제발표 1.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대책 ..... 1

### 주제발표 2.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37

## Session2

### 주제발표 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 69

### 주제발표 2.

충남 해외이주 결혼가정 정책사례 ..... 91

### 주제발표 3.

전북 해외이주 결혼가정 정책사례 ..... 99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지원 대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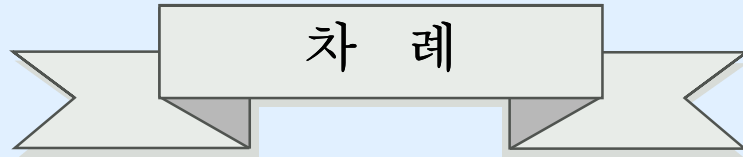
- 민·관의 교육지원 실태 및 정책 과제를 중심으로 -

---



교육인적자원부

정책조정과장 승용배



# 차 례

I. 추진배경 및 목적 .....	5
II. 정책대상 .....	6
III.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	7
IV. 정책수요 파악을 위한 실태조사 .....	17
V.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	30



# 다문화가정 자녀 교육 지원 대책

우리사회의 새로운 교육소외계층으로 대두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 근로자 자녀, 새터민 청소년의 교육 현황을 파악하고 다문화주의적 관점에서의 종합 지원 대책을 보고하고자 함

## I. 추진 배경 및 목적

### □ 우리사회 다양한 구성원의 인권보호 및 사회통합 필요

- 국제적 인적 교류 확대, 국제결혼 증가, 탈북자 증가 등에 따라 우리사회에 언어·문화적 배경이 다른 구성원의 비중 증가
  - 이들의 문화와 역사를 존중·이해하는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인권 보호 및 사회통합을 강화할 필요성 제기

### □ 다문화가정 자녀들의 교육소외 방지 대책 마련

- 법률적·경제적·사회적 기반이 취약한 다문화가정의 자녀의 상당수가 한국어 능력부족 및 한국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습부진과 사회적 편견에 따른 정체성 혼란 경험
  - 교육복지 차원에서 대책을 마련하여 교육 양극화 방지

### □ 다문화가정 구성원의 인적자원개발 방안 모색

- 다문화가정의 학부모 및 자녀들을 다문화주의 전파자, 다언어를 구사하는 글로벌 인적자원으로 육성

☞ 다문화가정: 우리와 다른 민족·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된 가정을 통칭

※ '04.4월 건강가정시민연대가 가정용어 개선 위해 사용 권장

☞ 다문화주의: 민족중심주의의 반대 개념으로, 한 국가(사회) 내에 존재하는 서로 다른 문화의 존재를 인정하고 독자성을 인정하자는 입장(multi-culturalism)

## II. 정책 대상

### 국제결혼가정 자녀

- 한국인과 결혼한 외국인 배우자(이하 ‘결혼이민자’)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국적법제2조제1항에 따라 출생과 동시에 한국 국민이 되므로 헌법제31조에 의한 교육권을 보장받음

☞ 최근 언론 및 시민단체에서 동남아시아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를 KOSIAN(KOREAN+ASIAN)으로 부르고 있으나, 이들에게 별도 명칭을 부여하는 것은 낙인(stigma)효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가치중립적 용어인 “국제결혼가정 자녀 (또는 결혼이민자 자녀)”로 부르는 것이 타당함

### 외국인 근로자 자녀

- 외국인 근로자 부부 사이에서 출생한 아동으로, 헌법 제6조제2항 및 ‘이주 노동자와 그 가족의 권리보호에 관한 국제협약(UN, '91)’에 의거 한국 아동과 동일한 교육기본권을 가짐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에도 아동의 권리에 대한 국제협약('91 비준), UN 아동권리위원회권고('03.1)에 따라 합법적으로 체류하는 근로자의 자녀와 동등한 권리를 가지므로 정책 대상에 포함

### 새터민 청소년

- 한국에서 출생한 새터민(북한이탈주민)의 자녀 또는 우리나라에 입국한 탈북 청소년으로, 한국 국민으로서의 교육권을 보장받음

### Ⅲ. 다문화가정 자녀 현황

대상-1

국제결혼가정 자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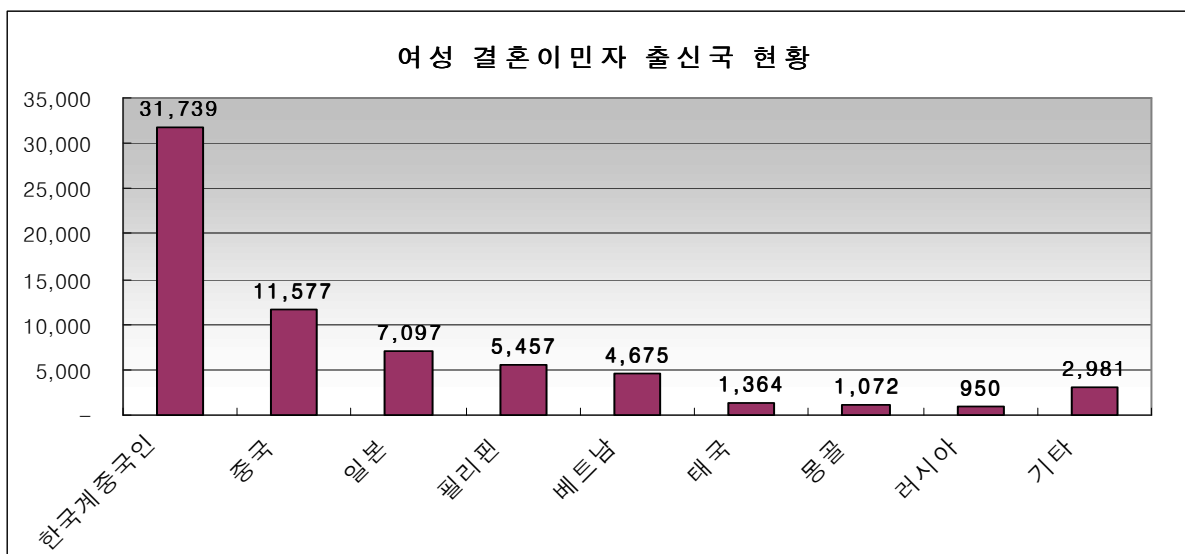
#### 1 국제결혼 가정 현황

- '05년 우리나라의 국제결혼 건수는 4만3,122건으로, 전체 결혼 신고 건수의 13.6%가 국제결혼임(통계청)

구분	총결혼건수	국제결혼	외국인 아내	외국인 남편
인원(명)	316,375	43,121	31,180	11,941
비율(%)	100	13.6	9.9	3.7

※ 국제결혼 비율 추이: '90년 1.2% → '00년 3.7% → '04년 11.4% → '05년 13.6%

- 특히 농촌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여성과 한국남성 결혼 비율 급증
  - 농어촌 지역은 전체 결혼의 35.9%가 외국인 여성과의 국제결혼임(농촌 총각 3명 중 1명은 국제결혼, '06.3. 통계청)
  - 국적별로는 한국계중국인(조선족)이 47.5%, 중국 17.3%, 일본 10.6%, 필리핀 8.2%, 베트남 7.0% 순으로 나타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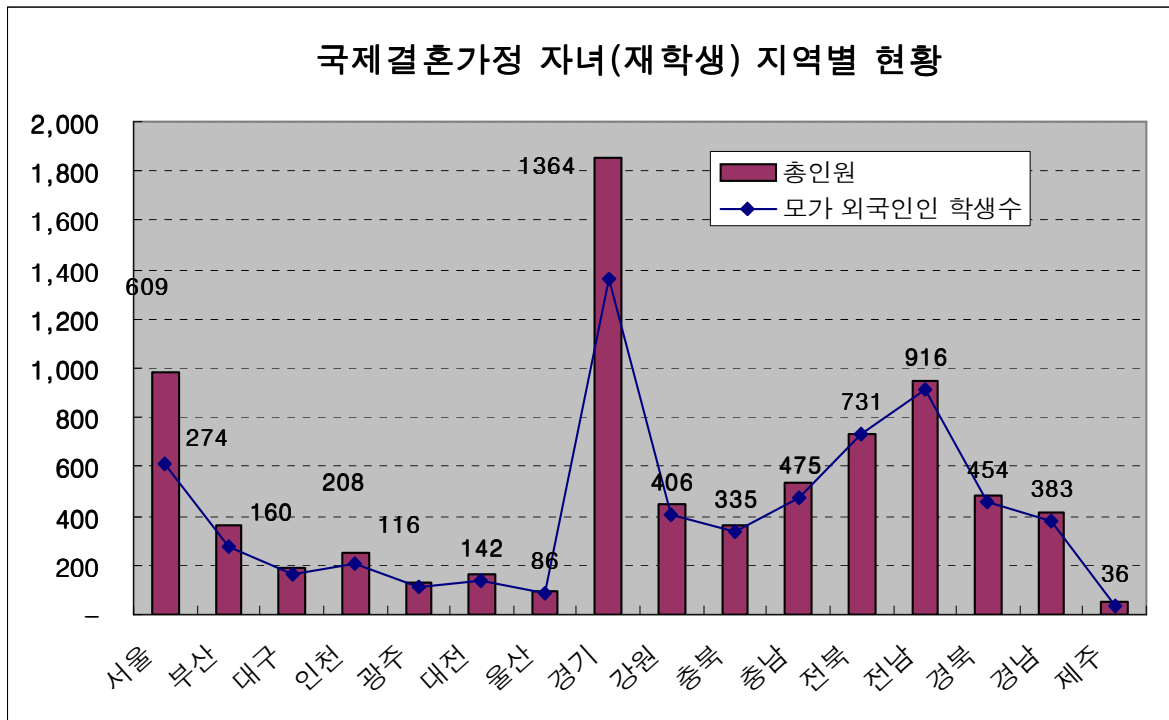


## 2 국제결혼가정 자녀교육 현황

-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총 7,998명임
  - 이 중 초등학생이 85%로 대부분 차지(중 11.6%, 고 3.5%)
  - 보건복지부 조사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 중 3세 이하 비중이 27%, 4~5세가 16.4%로 나타나 향후 학교에 입학하는 국제결혼가정 자녀수는 더욱 증가할 것임

※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복지부, '05): 여성결혼이민자 가정 945쌍 표본조사

- 국제결혼가정 자녀 중 어머니가 외국인인 경우가 전체의 83.7%(6,695명)로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1,852명(23.1%)으로 가장 많고, 서울 12.2%, 전남 11.8%, 전북 9.1%, 경북 6.0%의 순으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유아기에 한국어가 미숙한 외국인 어머니와 함께 생활하므로 언어 발달 지체

※ ‘코시안 아동 사례 연구(‘05, 중앙대 오성배)’에 따르면, 일상적인 의사소통에는 큰 무리가 없으나 독해·어휘력·쓰기·작문 능력이 현저히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언어 발달 지체 및 문화 부적응으로 인해 학교수업에 대한 이해도가 낮으며, 지나치게 소극적이거나 반대로 폭력성 또는 과잉 행동장애(ADHD)를 보이는 등 정서장애도 나타남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17.6%가 집단따돌림을 경험하였으며, 따돌림 이유는 ‘엄마가 외국인이어서’가 34.1%로 가장 높음(복지부, ‘05)

집단따돌림을 당한 이유	비율(%)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34.1
의사소통이 잘 안되어서	20.7
특별한 이유 없이	15.9
태도와 행동이 달라서	13.4
외모가 달라서	4.9
기타	22.0

※ 우리나라 초등학생의 집단따돌림 경험 비율도 13.4%(교육개발원, ‘05)로 나타나나, 가장 큰 따돌림 이유는 ‘잘난 척(29.4%)’으로 국제결혼 자녀와 차이를 보임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87%)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 정서적으로 민감한 학생들이 편견과 차별을 견디지 못하고 학교를 포기하는 사례가 늘어나 사회문제가 될 우려

※ 펄벅재단 조사(‘01) 결과 혼혈인 중 9.4%가 초등학교 중퇴, 17.5%가 중학교 중퇴인 것으로 나타남(일반인은 1.1% 수준)

### 3 민·관의 교육지원 현황

#### ○ 외국인 배우자(결혼이민자)의 한국어 교육 및 사회적응 지원

- 여가부는 '06년부터 전국에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21개소를 지정하여 한국어교육, 자녀 상담 서비스 등을 종합 지원할 예정이나, 예산 및 사업 규모 미미

※ 복지부, 문광부도 결혼이민자를 위한 보건·진료서비스 및 문화예술교육 지원 중

▶ [붙임1] 부처별 다문화가정 지원 방향

- 전국 8개 시·도 및 관내 시·군·구에서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프로그램 운영(예정)

※ 국제결혼가정 지원 시·도: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 [붙임2] '06년 지방자치단체별 결혼이민자가족 지원사업 현황

- 이밖에 전국 외국인근로자센터, 이주여성인권센터 등 민간 단체 300여개소에서 결혼이민자 지원 프로그램 운영 중(여가부, '06)

#### ○ 자녀에 대한 한국어 교육 및 학습 지원

- 최근 전북교육청이 '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KOSIAN EDU PLAN)'을 수립·추진('06.2)하는 등 선도적인 움직임을 보임

▶ 13페이지 전북교육청 사례조사 참조

- 외국인근로자센터 등 민간단체들은 현재 운영중인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의 대상을 국제결혼가정 자녀에까지 확대하고, 일부에서는 이들을 위한 별도 대안학교 설립 추진

▶ 17페이지 광주외국인근로자문화센터의 '코시안 대안학교' 설립 추진 방문조사 참고

☞ 국제결혼가정에 대한 민·관 지원은 이제 태동 수준으로, 체계적인 지원은 전무한 실정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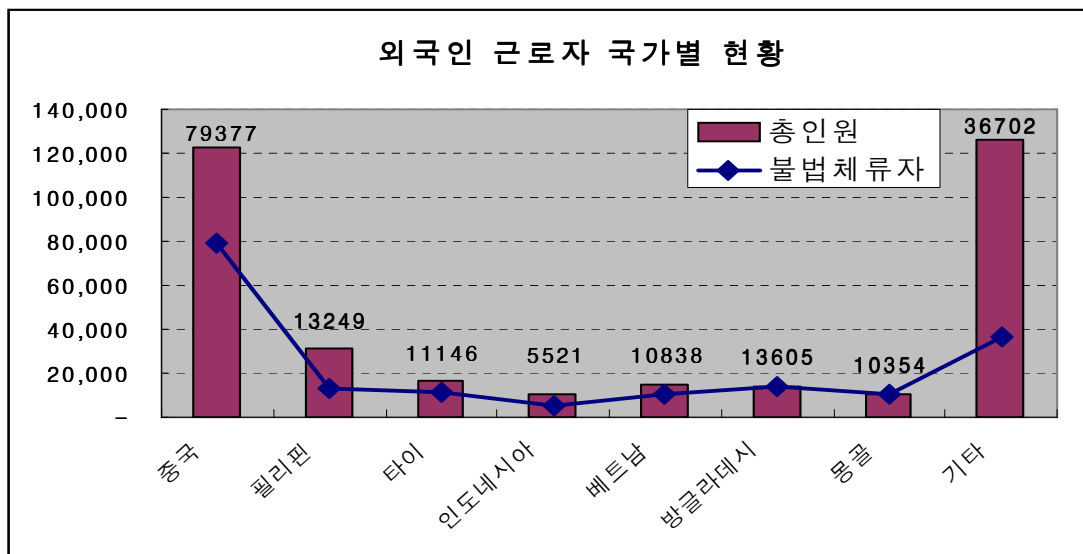
☞ 특히 그동안 그 자녀에 대해서는 관심조차도 크지 않았음

1 외국인 근로자 현황

○ 우리나라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노동자는 345,679명이며, 이 중 합법체류자가 164,887명(47.7%), 불법체류자는 180,792명(52.3%)임(법무부, '05.12)

- 불법체류자 규모는 전년(188천명)에 비해 약 7천명 감소

○ 국적별로 보면 중국(조선족 포함) 35.4%, 필리핀 9.0%, 타이 4.8%, 베트남 4.3%, 방글라데시 4.0%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기타 : 미국, 러시아, 일본 순임

○ '06년에는 경기회복세에 따라 고용사정이 호전되어 일자리가 40만여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한국노동연구원), 향후 국내에 유입되는 외국인 근로자는 점점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

## 2 외국인 근로자 자녀 현황

- 등록 외국인(불법체류 포함) 중 취학 연령대인 7세 이상 18세 이하는 17,287명으로 추정

구분	초	중	고	계
인원	8,525	4,199	4,563	17,287

- 이 중 외국인학교 재학생 7,800명을 제외하면 국내학교 유입 가능인원은 약 9,500명으로 추정되나 국내학교 재학생은 1,574명('05.5)에 불과함
  - 8천여명의 학령기 외국인 자녀가 교육으로부터 방치되고 있음

구분	초	중	고	계
2005년도	995(99)	352(43)	227(6)	1,574(148)

※ ( )는 불법외국인 자녀로 전체수에 포함

※ 불법체류자 자녀는 2,500여명으로 추정, 이 중 학교 재학생은 148명(5.9%)임

- 외국인 재학생의 국가별 분포는 일본 24.4%(386명), 몽골 21.3%(338명), 미국 17.2%(273명), 중국 2.8%(45명) 순으로 나타나고 있음
  - 이 중 대다수가 서울(35%), 경기(31%)지역 학교에 재학 중
- 외국인근로자 가정의 경제적 소득이 낮고, 주거환경이 열악함은 물론 가정의 교육기능도 취약하여 또래 아이들에 비해 기초학습 능력이 낮음
- 배타적인 한국사회의 특성이 외국인(특히 저개발국)에 대한 지나친 편견과 차별로 나타나 외국인 자녀들의 조기적응에 장애
  - 외국인 자녀 입학 기피, 통합교육 거부, 학교내의 집단 따돌림 등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신분상(법적지위)의 불안으로 정규학교 입학울 기피하거나 입학 후에도 학교생활 불안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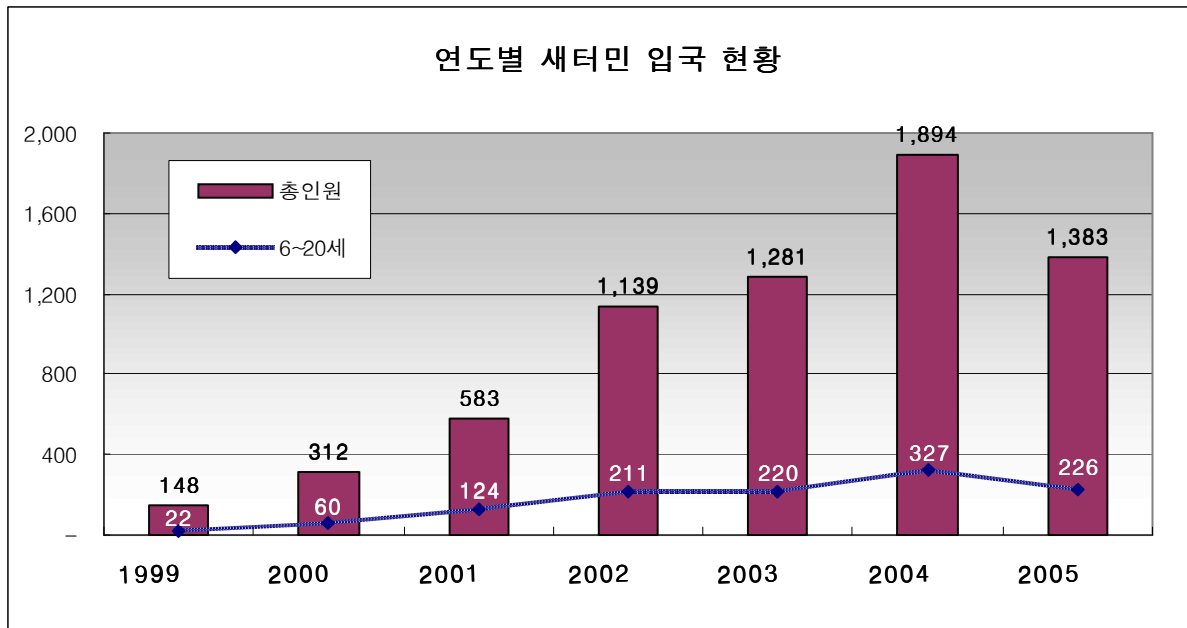
### 3 민·관의 교육지원 현황

-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한국 적응 및 안정적 체류 지원
  - 법무부는 법률·생활·인권 정보제공 및 악덕 고용주에 대한 조사 강화 등을 통해, 노동부는 취업 지원을 통해 외국인 근로자 가정의 성공적 정착 지원
  - 문광부는 외국인근로자(자녀)의 문화 소외 방지 위해 ‘한국어세계화재단’을 통한 한국어 교육 및 사회교육 프로그램 지원(‘05~)
- 외국인 근로자 자녀의 교육권 보장 지원
  - 교육부는 출입국사실증명서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제출만으로 초등학교 입학 가능하도록 입학 절차 간소화(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9조)
    - ※ 불법체류자 자녀의 경우 전월세 계약서, 이웃의 거주확인 보증서 등의 제출만으로도 학교 입학이 가능하도록 입학절차 완화 조치(‘03. 5, 학교정책과)
  - 서울 등 9개 교육청에서 ‘입학상담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습 결손 완화 위한 학습 프로그램 및 학습자료 개발·보급
    - ※ 서울시교육청: 초등 국어수행평가자료, 받아쓰기, 수준별개별수업자료 개발
  - 각급 학교에서 외국인 근로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KSL)반 운영
    - ※ 서울 등 8개 교육청이 34개교에서 37강좌 개설, 156명 교육
- 민간단체를 중심으로 한글교육, 종교교육, 정보화 교육 실시
  - 200여개에 이르는 외국인근로자 지원단체에서 외국인 근로자 가정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 및 의료·법률 서비스 제공
    - ※ 민간지원단체 중 종교계가 설립·운영하는 단체가 전체의 90% 정도를 차지

☞ NGO 중심으로 외국인근로자 자녀에 대한 교육 지원 증가 추세  
☞ 그러나 불법체류자의 자녀는 불안한 신분상태로 인해 민·관 어느 곳으로부터도 교육적 수혜를 받지 못하는 상황임

1 새터민 현황

- '05년까지 우리나라에 입국한 새터민은 총 7,991명으로, '00년 이후 매년 1,000명 이상의 새터민이 한국에 정착
- '04년의 경우 입국인원이 전년 대비 47.8% 늘어나는 등 규모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학령기 청소년(6~20세) 입국자도 지속적으로 늘어나는 추세



- 현재 중국 등에 국내 입국 희망인원이 적체되어 있으므로 향후 대량입국 예상되며, 초·중·고 학령기 청소년도 급증할 것으로 예상

## 2 새터민 청소년 교육 현황

- 초·중·고 학령기 새터민 청소년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현재 학령기(6~20세)에 해당하는 인원은 997명임

※ 입국자수(6~20세) 증가 추세 : ('99) 22명→('01) 124명→('05) 226명

- 학령기 새터민 청소년 997명 중 69.8%(696명)만 취학

- 일반학교 재학자는 194개교에 432명으로 43.3%에 불과('05.9.)

구분	초	중	고	평생교육시설	계
인원(명)	247	131	43	11	432

- 15개 민간단체에서 운영하는 비정규학교에서 264명(26.5%) 교육

- 나머지 301명(30.2%)은 독학, 또는 사회진출 중인 것으로 추정

- 남북한 학제 차이(2년)로 인해 일반 학교에 재학 중인 새터민 청소년은 연령과 학년이 2~3년 정도 불일치하게 됨

<남북한 학제 비교>

남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12년)
	1	2	3	4	5	6	1	2	3	1	2	3	
연령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북한	인민학교				고등중학교						(10년)		
	1	2	3	4	1	2	3	4	5	6			

- 탈북 이후 제3국 체류 장기화(3~5년)로 학업결손이 존재하며, 남북한 교육내용 및 학습방식의 차이로 학교 적응이 어려움

※ KEDI 조사('05) 결과 새터민 학생들의 가장 큰 고민은 '학교성적(73.9)'이었으며, '북한 사투리(10.8%)'가 그 다음으로 나타남

- 학교 부적응으로 인한 **중도 탈락율이 높음**

※ 새터민 청소년의 취학률: 초 85.7%, 중 49.1%, 고 6.6%

(일반학생: 초 98.8%, 중 94.3%, 고 92.2%)

### 3 민·관의 교육지원 현황

- 새터민 청소년에 대한 적응 교육(교육부, 통일부)
    - 하나원 내 “하나둘학교”(비인가)에서 3개월간 적응교육 실시 후 학력심사를 거쳐 일반학교 편입
    - 하나원 인근 “삼죽초등학교(교육부 지정 북한이탈학생 적응 연구학교)”에서도 특별학급 통해 3개월간 적응교육 실시
  
  - 새터민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 설립(교육부, 통일부, 민간)
    - 새터민 청소년의 남한 사회 적응을 위한 대안학교(한겨레 학교) 설립 추진('04~)
    - 현재 우선적으로 경기도 안성의 소규모 건물에서 무연고 새터민 청소년 22명을 대상으로 실험 운영 중('06.3.1 개교)
- ※ '06.3월부터 학교 건물 시공하여, '07.3월에 전면 개교 예정
- '05년 12월 현재, 15개의 민간단체가 새터민 자녀를 위한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서울·경기 지역 13개)

운영 유형	단체 수	인원	단체명
대안학교	7	141	여명학교, 셋넷학교, 자유터학교(서울) 지구촌고등학교(부산), 한꿈학교, 아힘나평화학교(경기), 하늘꿈학교(충남)
방과후 공부방, 보충학습	5	99	좋은씨앗, 공릉종합사회복지관, 한빛종합사회복지관, 한누리학교, 남북문화통합교육원 상담센터(서울)
생활공동체	3	23	마자렐로센터, 돈보스꼬청소년센터(서울), 다리공동체(경기)
계	15	264	

※ 단, 대부분의 민간단체가 규모의 영세성, 전문인력 부족으로 긴급구호 성격의 프로그램 운영(캠프 및 문화체험 중심)

☞ 새터민 청소년의 경우 교육권 및 교육기회는 충분히 보장됨  
 ☞ 그러나 학교부적응으로 인한 중도탈락 방지책 마련이 시급

## IV. 정책 수요 파악 위한 실태조사(사례조사, 방문 및 면담)

사례  
조사 -1

### 전북교육청 및 장수초등학교

#### □ 전북교육청의 '국제결혼 가정 도움계획(KOSIAN EDU PLAN)'

○ 정책대상: 전북지역 국제결혼 자녀(초·중·고) 680여명 및 학부모

○ 추진경과

- '05.11 국제결혼 가정 전담팀 구성
- '06.2 KOSIAN EDU PLAN 수립·추진
- '06.2.15 '국제결혼 가정과 함께하는 어울 한마당' 개최
- '06.2 국제결혼 자녀 중 초·중·고 신입생 200여명에게 장학금 각 10만원씩 지급

※ 현재 전북교육청에서는 KOSIAN이 차별을 조장하는 명칭이라는 지적에 따라 대안적 명칭을 공모하여, '온누리안'으로 확정(~'06.3.)

○ 추진체제 및 내용

행정 단위	주요 내용
전북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전북도청, 사회단체 및 종교단체, 대학, 법률기관, 의료기관 등 도내 유관기관과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법률, 의료, 교육상담 실시</li> <li>- 일어, 영어, 중국어, 베트남어를 구사하는 전담팀(14명)을 구성하여 국제결혼 여성 직업교육, 자녀 상담 및 기초학력 지도, 정보화 교육 등 실시</li> <li>- 국제이해 교육 연구회 운영을 통한 글로벌 에티켓 자료 개발,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4개 언어) 발간 등</li> <li>- 국제결혼 가정을 위한 홈페이지 개설 운영</li> </ul>

행정 단위	주요 내용
지역 교육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만남의 날’을 운영하여 지역 문화를 소개하고 나라별 친교활동 유도</li> <li>- 국제결혼 이주여성을 원어민 강사로 활용</li> <li>- 국제결혼 지도 우수사례 발굴</li> </ul>
단위 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을 통해 지역문화 소개, 자녀 상담, 한글 및 한국문화 이해 지도</li> <li>- 전 교원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가 1:1 결연을 맺도록 하여 학습지도 및 생활지도 실시</li> <li>- 국제결혼 가정 자녀에게 1:1 도우미 친구 결연을 맺어 주어 집단 따돌림 예방</li> <li>- 국제결혼 가정 자녀를 대상으로 ‘토요휴업일 공부방’을 운영하여 전통문화 체험학습, 한글 및 한국문화 이해, 부진교과 학습지도 등 실시</li> </ul>



<전북교육청이 운영하는 ‘국제결혼가정을 위한 홈페이지’>

## □ 장수초등학교의 코시안 학생 교육 현황

### ○ 교육대상

- 재학 중인 국제결혼 자녀 20명 및 학부모 15명(일본, 중국, 필리핀)

### ○ 주요 활동('06년 계획)

- '국제결혼 가정 학부모 사랑방' 운영
- 전 교원과 국제결혼 가정 자녀 1:1 결연
- 국제결혼 가정 자녀와 1:1 도우미 친구 결연
- '토요휴업일 공부방'을 통해 전통문화 이해 교육 및 학습 지도



<영어, 일어, 중국어로 안내되어 있는 학교 방문 환영 메시지>

□ 충청남도 ‘방과 후 공부방’ 운영

- 교육대상: 결혼여성이민자 자녀, 기초생활수급자 자녀, 한부모 가정 자녀 등 소외계층 자녀 중 초등학교 2,3학년 20여명
- 교육기간: ‘05.9.~12.(3개월)
- 교육장소: 충청남도 평생학습관(서산 소재)
- 교육방법: 자원봉사자들이 주5회 개인 및 그룹별로 아동 지도  
(전담강사 1명, 특기적성 강사 2명, 체험학습 강사 2명)
- 교육내용: 교과목 학습지도도, 특기적성 지도, 체험학습 활동

□ 공주시 ‘코시안을 위한 한글교실’

- 교육대상: 국제결혼 자녀 중 취학전 아동 및 초등학교 3학년 이하 학생(20명 내외)
- 교육기간: ‘05.10.~12.(3개월)
- 교육방법: 공주대 유아교육과 학생 및 공주교대 사랑나누기 회원이 자원봉사 교사로 참여하여 멘토링(mentoring)  
※ 참여 대학생들은 무료로 자원 봉사
- 교육내용: 한국문화·한국어 구사지도 및 발음교정, 사회적응 지도

□ 공주시 국제결혼 가구를 위한 ‘한국문화 적응 프로그램’

- 교육명: 「엄마랑 함께하는 한국문화 교실」
- 교육대상: 국제결혼 가구 중 외국인 어머니와 코시안(각 20명 내외)
- 교육기간: ‘06.3.~12.(10개월)
- 교육방법: 지역사회복지협의체에 위탁 운영
- 교육내용: 한국문화에 대한 체험 교육, 한글 기초교육 및 한국어 구사력 지도, 한국문화 실습 및 탐방, 토론회 개최



## □ 일반현황

- 운영기간 : '01년부터 활동 시작('04년부터 사단법인으로 등록)
- 운영재원 : 후원금
  - ※ 광주·전남지역 초·중·등 교사 300여명, 전남대 교수들이 출원
- 운영인력: 회원 356명(사무국 직원 5명)
- 소재지 : 광주광역시 광산구 도천동(하남센터), 옥동(평동센터)
- 주요 사업내용
  - 외국인근로자 자녀,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 등을 위한 교육문화사업
    - ※ 현재 중·고교 선생님 7명, 교수2명, 자원봉사자 12명 등이 5~8세 코시안 아동 10여명 교육 중
  - 외국인 노동자 상담 및 지원(임금체불, 체류자격 등 법률 및 의료상담)
  - 탈북자 공동체인 '새터민 센터와 한반도 사랑회' 창립 및 활동 지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국적응을 돕기 위한 '이주여성 지원센터' 운영

## □ 코시안 대안학교(KOSIAN SCHOOL) 설립 추진

- 재원: 총 17억원 소요 예상, 현재 1억5,000만원 마련
  - ※ 지난해 말부터 학교설립 비용 5억원 모으기 운동을 벌여 현재 교사 14명이 퇴직금을 담보로 은행대출을 받아 1억5,000여만원을 마련
- 부지: 광주 광산구 하남 인근 400여평(계약 완료)
- 교사: 명예퇴직 교사나 예비교사 활용 예정
- 교육내용
  -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 교육과정
  - 한국문화교육, 정보화교육 등

## 〈주요 요구 사항 및 정책 제안〉

- 코시안 대안 학교 설립을 위한 건립 비용 지원 및 학력 인증 학교 인가 요청
- 교재 및 교육과정을 정부가 직접 마련하기 보다는 ‘민간 제작 → 정부 검증’ 시스템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
  - 어머니의 출신국이 다양하므로 교재 및 교육과정이 개별 사례에 맞게 맞춤형으로 마련되어야 함
- 한국어 교육과 어머니의 모국어(문화) 교육 병행 필요
  - 어머니에 대한 자긍심이 확립되어야 혼혈 자녀의 정체성 혼란 방지 가능
  - 어릴 때부터 이중 언어에 노출함으로써 향후 동남아시아의 통역 자원으로 육성 가능



〈외국인근로자, 코시안 등을 상대로 한국어 교육 등을 하고 있는 공부방〉

### □ 운영 현황

- 주관단체: (사)호남사회연구회, 논실마을사람들(NGO), 장수군
- 운영재원 : 문화관광부 10,000천원, 여가부 28,000천원
- 소재지 : 전라북도 장수군 번암면(대론초등학교 폐교 활용)

### □ ‘민들레 문화교육 아카데미’ 운영(문화관광부 지원)

- 운영기간: ‘05.5월부터(주1회 교육)
- 대상: 장수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51명) 및 그 가족
- 주요내용
  - 이주 여성들에게 주1회 **한국어·한국문화 교육** 실시
  - 이주여성 자녀들과 **남편 및 시부모**에 대한 문화교육
  - 가야지역 **역사문화기행**
  - ※ 위 사업은 문화관광부가 실시한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사업’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음

### □ ‘찾아가는 민들레 교실’ 운영(여가부 지원)

- 운영기간: ‘05.11~12.
- 대상: 장수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56가구)
- 주요내용
  - 여성 결혼이민자 **가정을 방문**하여 한국어·문화교육 실시
  - 여성 결혼이민자간 **정기모임 및 지역공부모임 운영**
  - **자녀들에 대한 삼중언어교육 필요성 강조**
  - ※ 위 사업은 여가부가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가족 찾아가는 서비스 시범사업’ 프로그램으로 선정되어 추진되었음

## 〈주요 요구 사항 및 정책 제언〉

- 이주여성 자녀 지원을 위한 정부-민간단체 역량 결집 필요
  - 문광부(한국문화교육), 여가부(이주여성 복지사업), 교육부(다문화 가정 교육지원) 등과 도시·농촌 지역의 NGO간 연계·협력을 통한 정책의 중복 방지
- 이주여성 자녀에 대한 이중언어교육(삼중언어교육) 필요
  - 이주여성 자녀에게 한국어, 어머니의 모국어, 매개어로서의 영어를 동시에 교육함으로써 이들을 다언어, 다문화를 구사하는 인적 자원으로 양성
- 이주여성 자녀의 사회적응을 위해서는 이주여성 자신의 자존감 확립이 선행되어야 함



<민들레 문화교육 아카데미 참여자 전체 사진>

## □ 일반현황

- 운영기간 : '64년~(필벽 여사가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재단 설립)
- 운영목적 : 아동들의 인권 보호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신림본동
- 지원대상
  - 외국인 남성과 한국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Amerasian)
  - 아시아 불법 근로자와 한국인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Kosian)
  - 베트남 파견 한국 군인과 베트남 여성 사이에 태어난 혼혈인(Lai Daihan)
- 지원내용
  - 교육비지원: 극빈가정의 초·중·고 재학생
  - 직업훈련: 무직 혼혈인과 어머니에게 적성별 직업교육 실시
  - 혼혈 가정에 대한 사회복지사의 방문 상담 서비스 제공

### 〈주요 요구 사항 및 정책 제안〉

- 단일민족의 우수성을 교육하는 교육현장 분위기 탈피
  - 혼혈아동들이 취학 연령에 접어들고 있으나, 일선 교육현장에서 이들을 한국사회 공동체의 구성원으로 기르려는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배타적 민족교육'이 여전히 강조되고 있음
  - 초등학교 교과목에 다양성의 가치, 다민족의 문화, 문화의 어울림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함
- 학교 미진학 및 중도 탈락 혼혈 아동을 위한 계속 교육 필요
  - 혼혈 아동이 학업을 중도하차하지 않도록 예방 대책을 강구하는 동시에, 하차 사례가 발생했을 경우 복학 유도, 검정고시 지원, 대학생 멘토링 프로그램 적용 등이 필요함

□ 국제결혼가정 학부모 1 (필리핀, 39세, 결혼12년)

- 부모들에게는 고급 수준의 한국어 강좌가 필요하고, 문화차이에 대해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아이들에게는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울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제공해 줬으면 좋겠다.
- 경제적인 여건이 어렵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언어와 관련된 부분도 심각하다고 생각한다. 자녀 교육이나, 일자리나, 문화 차이 등에 대해서 상담할 수 있는 기관도 필요하다.

□ 국제결혼가정 학부모 2 (일본, 38세, 결혼12년)

- 체계적으로 한국어를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기본적인 의사소통은 하지만 그 이상은 어렵다. 도시에는 그런 시설이 그나마 있는 편이지만, 내가 살고 있는 시골에는 교통편이 불편하고 우리집의 경우 경제적 형편도 넉넉하지 못한 상태이다.
- 아이들이 언어 교육을 좀 더 잘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언어 능력이 갖추어지면 다른 학습도 좀 쉬워질 것이다.

□ 국제결혼가정 자녀 (초 3, 여, 필리핀 이주여성 자녀)

- 초등학교 1, 2학년 때는 한국어도 잘 못하고,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도 어려웠는데 지금은 괜찮다. 학교에서 금상과 동상을 여러 개 탔다. 받아쓰기는 어렵지만, 다른 과목은 재미있다.
- 선생님이 특별히 나에게 더 관심을 기울이는 것은 없다. 따로 상담을 받은 경우도 없다.

### □ 외국인근로자 (몽골, 40대)

- 아이들이 한국학교에 진학하면 처음에는 왕따를 많이 당한다. 담임 선생님의 특별한 관심으로 극복한 것을 본 적이 있다.
- 한국에 입국하자마자 처음부터 한국학교에 들어가는 경우가 있는데, 한국어를 잘 하지 못해서 자기 학년보다 아래 학년으로 들어간다. 이 때 언어장애, 친구관계 등에서 어려움을 겪게 된다. 그러나 나중에는 적응해서 몽골말을 잊어버리는 상황이 생기기도 한다.
- 적응하게 되더라도 자신이 몽골인인지 한국인인지 모르는 정체성 혼란을 겪고 있으며 정서적 장애를 겪는다. 그러므로 한국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게 자국어와 자국문화에 대한 교육적 지원도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 부모의 한국어 수준은 집과 직장에서 기본적 의사소통이 가능한 정도이기 때문에 아이가 학교에서 가져오는 과제를 지도하거나 학교 생활을 도와 줄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 학교만 보내는 것이지 아이들의 생활에 대해서는 전혀 이해하고 있지 못하다.

### □ 외국인 근로자 자녀 (몽골, 14세, 2002년 입국)

- 처음 한국 학교에 다닐 때는 단짝친구가 생겨서 한국어에 대해 질문할 수 있었고, 수업시간에 모르는 내용도 잘 물어볼 수 있어서 좋았다 (현재는 재한 몽골학교 재학 중). 받아쓰기가 가장 어려웠지만, 3학년이 되니까 받아쓰기에도 익숙해져서 국어 외의 다른 과목은 큰 어려움이 없었다.

## □ 면담 내용

- 다문화가정 자녀의 정서적 안정 및 학교 적응을 위해서는 교사의 관심과 배려가 가장 중요
  - ⇒ 교사 및 교장·교감(관리자)에 대한 소수자 배려 교육 필요
  - ⇒ 교사 연수 강화 및 교사용 지도서 제작 필요
  - ⇒ 다문화가정 자녀 지도 및 교육을 위한 온라인 커뮤니티 운영
- 개별 종교단체 및 민간단체에 의지하기보다는 정부 차원에서의 지원이 필요
  - ⇒ 중앙정부를 중심으로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기업, 농협 등의 연계 체제 구축 시급
- 이미 다양한 한국어 교재가 개발되어 있으므로 교재 개발에 재원을 소요하기 보다는 이를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함
  - ※ 연대 외국어학당, 국제노동재단, 이주여성인권센터(여가부 지원 제작), 다음세대 재단, 한글학회 등에서 한국어 교재 제작
- 농촌 지역의 다문화가정 자녀는 ‘대학생 멘토링’ 등의 적용이 어려우므로, 이들에 대한 지원대책이 어떠한 전달체계를 갖추어야 할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 면담 내용(농촌지역 다문화가정 지원방안)

- 이주여성들에게 단순 한글 교육 자료가 아니라 한국어교육, 육아지식, 가정생활 안내가 포함된 ‘자녀교육 교재’ 지원 필요
- 농촌의 경우 교통이 불편하므로 접근성 높은 교육장소 마련 필요
  - ⇒ 학교를 이주여성 및 자녀의 교육 센터로 제공할 필요
  - ⇒ 방과 후 학교의 각종 프로그램 지원, 학교 스쿨버스 지원 등 학교의 각종 자원을 적극적으로 활용
  - ⇒ 이주여성 교육시에 자녀 보육 서비스를 동시에 제공해야 함
- 시민단체나 기업이 ‘찾아가는 서비스’를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최대한 지원해야 함
- 도시는 외국인근로자센터 등을 적극 활용, 농촌은 여성농민회 및 새마을 부녀회 등 각종 NGO 적극 활용 필요
-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어머니의 모국어 및 문화 교육을 병행하여 어머니 및 자기 자신에 대한 자긍심 고취 필요
  - ⇒ ‘엄마 나라 방문하기’ 등의 프로그램 지원 필요

## IV. 정책과제 및 대응방안

### <정책 비전>

문화 민주적 통합(Cultural Democratic Integration)으로,  
한국을 문화적 용해의 장(Cultural Melting Pot)으로 전환

#### 과제 1

#### 다문화가정 지원을 위한 부처간 협력 체제 구축

#### ① 부처간 협력 추진 체계 구축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안)

- 건강가정기본법상의 ‘중앙 건강가정정책위원회(위원장: 국무총리)’와 ‘건강가정실무기획단(위원장: 여가부차관)’이 중심이 되어 부처와 시·도의 다문화가정 정책 조정·총괄
- 교육부는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을 주관

#### ② 유관부처·기관간 협조 통한 패키지(Package) 정책 수립·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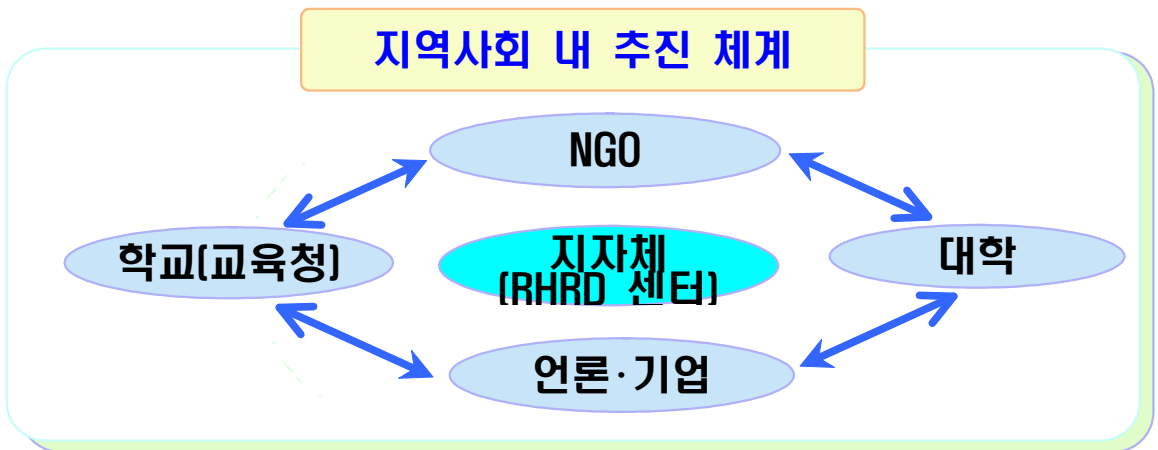
- 각 부처(기관)가 추진하고 있는 한국어 교육, 문화 체험, 생활 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콘텐츠 다양화
- 다문화가정의 한국 적응을 도모하는 동시에, 우리 국민의 다문화주의 의식을 제고할 수 있는 프로그램 마련

### <부처간 협력 사업 예시>

- 각국별 “문화주간”을 지정·선포하여 그 기간동안 문광부는 해당 국가의 영화를 수입·상영, 교육부는 취학설명회 개최, 여가부는 가족상담센터 운영
- 교육부·EBS 공동으로 한국어교육 방송 프로그램 제작
- 교육부·문광부·노동부·통일부 등 관련 부처와 방송사 공동으로 다문화가정을 소재로 하는 방송물 제작·방영

① 지역인적자원개발 사업을 통한 지자체 중심의 협력체제 구축

-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원) 중 일부 지원
- ※ 현재 '05년에 시범사업을 실시한 대구·경북을 비롯한 3~4개 지역에서 사업 준비 중



② 지자체의 다문화가정 지원 우수 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 '다문화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대구·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 우수 사례>**

- 사업명: 「결혼이주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
- 사업대상: 대구·경북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추진주체: 대구·경북RHRD센터, 시·도청 및 교육청, 여성복지회관, 지역 대학, 대구MBC, 민간기업 등
- 소요예산: 7.5억(RHRD사업비 5억원, 경상북도 1.3억원, (주)대교 1.2억원)

### ①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 개설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KSL)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을 실시
  - ※ 농산어촌 방과후학교 운영 모델 지원 사업과 연계, 방과후학교 시범학교(전국 278교)에 프로그램 운영 권장
- 능력을 갖춘 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학교의 외국어 교사로 활용하도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 ※ 복지부 조사('05) 결과, 여성 결혼이민자의 22%가 전문대졸 이상

### ②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 자료 제공 및 대화 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가 재학중인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가 학교 생활에 대해 질문하고 답변을 얻을 수 있는 비공개 대화방 개설

### ③ 교사 및 또래집단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다문화가정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 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와 1대1 결연을 활성화
  - ※ 전북 장수초교는 국제결혼가정 자녀 각각에 대해 전담교사 및 도우미 친구 지정('06~)

### ④ 학교를 다문화가정 교육 장소로 지역사회에 적극 개방

- 지자체 및 민간단체가 방과후, 공휴일 및 재량휴업일에 학교 시설을 활용하도록 권장
  - ※ 지역사회(특히 농촌)에서 ‘학교’는 가장 믿을 수 있고 접근성 높은 교육장소이므로, 사회 공헌 차원에서 학교의 인적·물적 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방

### ①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 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
- 사회 소수자 문제에 관한 문제제기·해결 방안 등을 수록한 사례 집(case book) 및 지도서 개발·보급

### ② 교사 대상 한국어(KSL) 및 한국문화 교육 연수 활성화

- 한국어학당(대학), 한국어세계화재단, 국제교육진흥원 등 전문 기관에 한국어·한국문화 교육과정을 개설토록 장려
  - 이들을 “특수분야 연수기관”으로 지정토록 시·도교육청에 권장
- 별도로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 취득과정을 이수 하고자 하는 교사들에 대해서는 소요되는 학비를 지원
  - ※ 한국어 전공자나 소정의 연수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시험을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한국어교원”자격증(1급~3급) 수여(국어기본법, '05.2월 개정)
  - ※ 연세대 어학당의 경우 1학기당 120시간 이수시 145만원 소요

### ③ 한국어(KSL)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다문화가정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권장('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 ※ 일반교사가 특수교사 자격증을 취득하여 특수학급 담당할 경우 월 0.0105점(연 0.125점)의 가산점 부여(시·도 선택사항)

과제 5

교육과정 및 교과서에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① 현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문화적 배타성 완화

-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그 속에 포함되어 있는 단일민족주의 요소를 발굴하여 삭제 검토

▶ [붙임3] 단일민족' 관련 내용 교과서 수록 현황

② 차기 교육과정 개정시 다문화·다인종 교육요소 반영

- 다문화주의 관점을 학습할 수 있도록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존중, 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

※ 차기 교육과정의 중3 도덕교과서에 '타문화에 대한 편견 극복' 단원을 두어 타문화에 대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할 수 있도록 지침 규정('07.2월 고시 예정)

- 교육과정 개정 전, **다문화교육 관련 내용을 담은 '교과서 지도 보완 자료'**를 전국 학교에 발간·배포('06.9월)

과제 6

'대학생 멘토링' 사업을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확대

① 「대학생 멘토링」 대상자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 유·초등교육 및 외국어 전공 대학생, 외국인 유학생을 멘토로 활용

멘 토	멘 티
유·초등 전공 대학생	미취학아동 및 학령기 자녀
외국어 전공 대학생	전공 국가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학부모 자녀
외국인 유학생	출신국의 외국인근로자 및 국제결혼학부모 자녀

※ 다문화가정 자녀 전체(2만5천여명) 멘토링을 위한 예산은 연간 900여억원으로 추산됨

▶ [붙임4] 외국어대학 전공 현황 및 외국인 유학생 현황

② 농·어촌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지역 내 자원봉사자를 교육청에 등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차리 창출 효과 동시 거양

※ 일본은 의무교육기관의 외국인 자녀를 위하여 관할 교육위원회에서 해당 외국어를 할 수 있는 자를 강사로 채용하여 자택방문지도 및 학교순회지도 실시

### 국제결혼가정 자녀

#### □ 국제결혼가정 자녀의 이중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
  -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 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 외국인 근로자 자녀

#### □ 불법체류자 자녀의 신분안정을 위한 부처 협의 추진

- 불법체류자 자녀가 신분 불안으로 인해 교육으로부터 소외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의무교육 기간 동안 체류자격 부여 등을 관계부처(법무부 등)와 협의
  - ▶ 일본의 경우 특별한 사정이 있는 불법체류 외국인에 대해 재량으로 일본체류를 인정하는 체류특별허가제도(법무부 재량행위) 운용

<참고사례1> '06년 4월 5일, 외국인근로자 자녀 특별학급이 설치된 안산 ○○초등학교에 다니던 하영광군(6·초등 1년·본명 비노빈)의 엄마 야무나(37·스리랑카)가 하룻길 아들을 마중나왔다가 학교 앞에서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직원에게 붙잡힘(이후 건강상의 이유 3개월간 출국 유예 조치됨)

<참고사례2> '06년 4월 3일, 특별학급이 설치된 시흥 ○○초등학교에 다니던 몽골인 토올(15)과 바야갈(10)은 아버지가 인천에서 불법 체류자라는 이유로 단속돼 강제 출국되어 현재 자매만 한국에 남겨진 상태임.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교육인적자원부·외교통상부·법무부·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농림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  
노동부·여성가족부·중앙인사위원회·기획예산처  
대통령자문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 목 차

I. 추진배경 .....	
1. 추진배경 .....	
I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 .....	
1. 국제결혼 개요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특성 .....	
II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	
1. 국제결혼 과정 .....	
2.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상의 문제점 .....	
3.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	
IV. 정책추진 현황 .....	
1. 정책추진 현황 .....	
V. 외국의 정책사례 및 시사점 .....	
1. 결혼중개업체 규제 .....	
2. 결혼이민과 국적취득 .....	
3. 이민자가족 지원 .....	
4. 사회적 편견 해소 .....	
V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1. 비전 및 기본방향 .....	
2. 주요 정책과제 .....	
VII.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및 향후추진 일정 .....	
1.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	



# I. 추진배경 및 추진경과

## 1. 추진배경

- 외국 여성과 한국 남성의 결혼이 매년 증가하여 국내거주 여성결혼 이민자 가족 급증
- 국제결혼 과정에서의 문제로 인해 단속의 위험과 다양한 피해 발생
- 결혼에 성공한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 사회와 가족관계에서의 부적응, 경제적 어려움 등으로 고통을 겪는 경우가 다수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정부정책이 단편적이고 제한적으로 추진되어 이들을 사회 구성원으로 통합하기에는 아직 미흡
- 여성결혼이민자 및 그 가족의 생활실태를 분석하고 이들의 안정적인 한국생활 정착과 사회통합을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추진하는 것이 필요

# I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현황

## 1. 국제결혼 개요

-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 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지속될 전망
-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 결혼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으며, 국제결혼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남

□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가는 주로 개발도상국으로, 이러한 경향이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국적도 다변화되고 있는 추세

- 중국(재중동포 포함), 베트남, 일본여성이 대부분을 차지
- 2000년대 초에는 중국, 일본, 필리핀 출신이 다수였으나 최근에는 베트남, 몽골, 우즈베키스탄 출신 등으로 다변화 경향
- 한국 남자와 외국 여자와의 혼인은 중국 20,635건(66.2%), 베트남 5,822건(18.7%), 일본 1,255건(4.0%) 순
  - 베트남 여자와의 혼인은 2004년에 비해 136.5%의 높은 증가율을 보임

<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별 혼인 >

(단위 : 건, %)

구 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구성비	전년대비 증감률
계	7,304	10,006	11,017	19,214	25,594	31,180	100.0	21.8
중 국	3,586	7,001	7,041	13,373	18,527	20,635	66.2	11.4
베트남	95	134	476	1,403	2,462	5,822	18.7	136.5
일 본	1,131	976	959	1,242	1,224	1,255	4.0	2.5
필리핀	1,358	510	850	944	964	997	3.2	3.4
몽 골	77	118	195	318	504	561	1.8	11.3
우즈베키스탄	43	66	183	329	247	333	1.1	34.8
미 국	235	265	267	323	344	285	0.9	-17.2
태 국	270	185	330	346	326	270	0.9	-17.2
기 타	509	751	716	936	996	1,022	3.3	2.6

자료 : 통계청, 『2005년 혼인·이혼통계 결과』, '06.3

※ 2000년 이전까지는 일본, 미국, 중국, 기타로 구분조사하여 세부적으로 파악 불가

※ 1999년의 국적별 분포는 중국 2,883명, 일본 1,248명, 미국 280명, 기타 1,364명임

- 특히 2005년 **농림어업 종사자(남자)**의 경우 총 결혼 8,027건 중 국제 결혼이 2,885건(35.9%)으로 3건 중 1건을 차지하며, **농어촌의 새로운 가족유형으로 정착**

- 혼인한 외국 여성의 국적은 전년에는 중국, 베트남, 필리핀 순이었으나, 2005년에는 결혼대상으로 베트남 여성이 53% 이상 차지

## 2. 여성결혼이민자의 주요 특성

-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는 2005년 말 현재 66,659명이며, 재중동포와 중국, 베트남, 일본 출신이 다수 거주

### <여성결혼이민자의 출신국 분포별 체류현황('05.12)>

(단위 : 건, %)

출신국	인원수	출신국	인원수
재중동포	27,717 (41.6)	태국	1,447 (2.2)
중국	13,401 (20.1)	몽골	1,270 (1.9)
베트남	7,426 (11.1)	러시아	923 (1.4)
일본	7,145 (10.7)	우즈베키스탄	896 (1.4)
필리핀	3,811 (5.7)	기타*	2,623 (3.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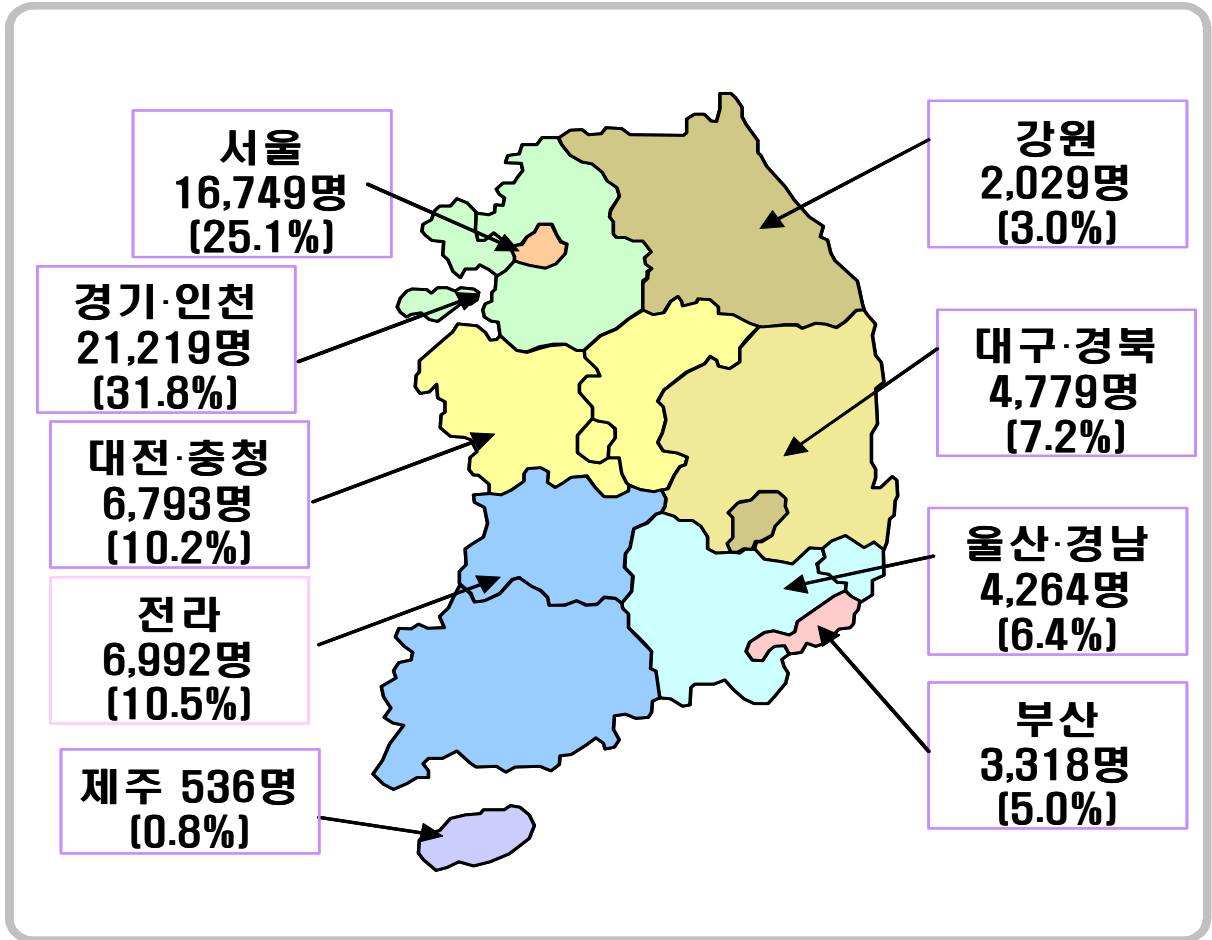
\* 기타 : 구소련, 동유럽, 아시아 저개발국, 아프리카, 중남미, 선진국 등 포함  
자료 : 법무부

※ 법무부의 체류현황은 '현재 국내거주 여성결혼이민자 수'를 나타냄

※ 통계청 통계는 출국한 자, 사망한 자 등을 포함하고 있어 여성결혼이민자 지원대책의 기초자료로는 법무부자료가 적합

- 국내거주자의 75%는 도시(동지역)에 거주하고, 25%는 농촌(읍면지역)에 거주
  - 경기·인천에 31.8%, 서울 25.1%에 다수 거주
  - 재중동포는 주로 도시에 거주하고, 필리핀·태국·베트남 여성은 주로 농촌에 거주
    - 국내로의 결혼이주가 1990년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농촌 노총각 장가보내기 일환으로 시작되었으나, 1990년대 후반부터는 도시로의 결혼이주도 증가

< 여성결혼이민자 지역별 체류 현황('05.12월 기준) >



자료 : 법무부

- 국제결혼 부부의 연령 차이는 평균 7세 정도로 연령차이가 큼
  - 남편이 10살이상 위인 경우가 전체의 34%이며, 베트남(72%), 몽골(60%), 구소련(57%), 재중동포(37%) 순으로 연령차이 극심
  - 이는 국제결혼업체를 통해 결혼을 하는 경우 남편이 10세 이상 연상인 경우가 60%를 초과하기 때문임(복지부 실태조사, 2005)
- 현재 초·중·고 재학 중인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수는 6,695명임(교육부, 2006.4)
  - 이 중 초등학생이 87.4%로 대부분 차지(중 10.2%, 고 2.4%)

### II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형성과정과 문제점

#### 1. 국제결혼 과정(복지부 실태조사, 2005)

- 국제결혼은 아는 사람의 소개(49.3%), 직접 만남(16.1%), 종교단체(15.6%), 결혼중개업체(13.4%)를 통한 4가지 방식
- 최근에는 중개업체를 통한 ‘상업화된’ 결혼이 증가하는 추세
- 결혼중개업체를 통한 국제결혼 대부분(94%)이 돈을 지불하였고, 비용부담자는 절반정도가 남편인 것으로 조사됨
- 일반적으로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은 모집·상담단계, 맞선·결혼단계, 입국단계, 정착단계로 구분할 수 있음

#### 2. 중개업체를 통한 결혼과정상의 문제점

- 모집과정에서 인권 침해적인 광고행위
- 인권 침해적인 중개절차
- 중개과정에 대한 현지 행정·사법당국 등의 감독은 미흡하나, 국가위상은 손상

#### 3. 결혼 후 생활상의 문제점

- 사회문화적 고립
    - 언어소통 문제, 생활전반의 문화적 차이 때문에 불편을 겪거나 가정이 파탄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각종 정보·자원·취업으로부터도 소외
- ※ 여성결혼이민자 50%이상이 기초생활보장제도 자체를 모르고, 23.6%가 건강보험 가입이 안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음



□ 자녀양육 환경 취약

- 상당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은 부모의 낮은 경제·사회적 지위, 언어·문화교육방식의 차이 등으로 가정·학교교육에서 문제 드러냄  
※ 6세이하 미취학 자녀의 유치원이나 보육시설(어린이집, 놀이방) 이용률 : 국제결혼 가정 27.3%, 일반가정 56.8% (복지부 실태조사, 2005)
- 현재 초등학교에 재학 중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87%)이 중·고교 진학 연령대로 진입할 경우

□ 저소득가구가 다수이나,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는 소수

- 전체 여성결혼이민자 가구 중 소득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가구가 50%를 넘어섬에도 불구하고 기초생활보장 수급가구는 13.7%에 불과

□ 의료서비스 접근성이 낮고 모성건강 위험도가 높음

- 여성결혼이민자의 23.6%가 실질적인 의료보장 체계(건강보험, 의료급여)안에 들어가 있지 못함
- 병원치료를 포기(18%)한 주된 원인은 치료비 부담(농촌은 의료접근성 제약)이며, 농촌거주자는 불임여성이 25%(전체 11.4%), 자연유산 경험률이 13%(전체 9.1%)로 높음(복지부 실태조사, 2005)

□ 가정폭력과 불화 등으로 이혼 급증

□ 체류 등 신분상의 불안

- 여성결혼이민자는 한국국적 취득 전까지 외국인 신분이므로 국적취득 전에 이혼하면 본국으로 귀국하거나 불법 체류자로 전락 가능

□ 사회적 편견

- 다문화주의 전통이 없고, 순혈주의 중시 풍토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 존재

## IV. 정책추진 현황

### 1. 정책추진 현황

- 「한국어교재 초급」 발간 및 「모성보호 가이드」 책자 발간
  - 「한국어교재 초급」 3만 2천부 16개 시도, 주요 단체 등에 배부
  - 「모성보호 가이드」 4개국어 2천부 시도, 주요 단체에 배부
- 안정적인 체류 지원
  - '05.9월에 2년 이상 거주한 경우, 영주(F-5) 자격을 부여하는 한편 거주(F-2) 자격을 계속 유지할 경우 별도의 허가 절차 없이 자유로운 취업을 허용
  - 배우자의 사망실종, 한국인 배우자의 귀책사유로 혼인관계가 중단된 경우 입증서류를 구비하거나, 미성년 자녀를 양육시 거주자격(F-2)으로 체류 허가
- 기초생활보장 수급 신청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소득재산을 제외('05.8)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기초생활보장을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개정하고('05.12), 긴급복지지원법의 지원 대상에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
  - 실제 소득이 최저생계비의 120%미만인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국적 미취득 이민자를 자활근로사업 대상에 포함
-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안내
  - 외국어 리플렛을 제작하여 출입국관리사무소, 공단지사 등에 배포 (3만부, 한국어, 중국어, 영어, 일어)
  - 전국 시·군·구 정신보건센터(126개소)를 통해 정신건강상담서비스 제공

□ 가정폭력 피해 여성결혼이민자 보호

-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동시통역 상담서비스를 제공하고, 외국인 여성 전용쉼터를 인천과 천안에 설치하여 운영
- 피해자 치료와 회복 프로그램 운영 때 통역비 등을 별도로 지원

□ 한국생활에 필요한 기본지식 및 생활정보 등의 제공과 문화적 차이점에 대한 이해 증진

- 한국어를 포함한 10개 언어로 문화가이드북을 6만부 제작하여 공공기관과 160여개 외국인관련 지원단체에 배포
- 여성결혼이민자의 문화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사회문화예술교육, 예술 치유 시범사업과 문화예술교육프로그램 연구 실시

□ 이밖에 △찾아가는 서비스를 위한 가정방문 한국어 교육 △출산 전후 가사 도우미 지원 △국제결혼 부부교육 등도 추진

## V. 외국의 정책사례 및 시사점

### 1. 결혼중개업체 규제

□ 미국은 국제결혼중개업자 규제법(The International Marriage Broker Regulation Act of 2005)을 통해 중개업체 규제

- 국토안보부는 미국인의 신상정보와 범죄정보를 외국인 약혼자 혹은 배우자에게 송부
  - 미국 대사관은 결혼관련 인터뷰 시 구두로 결혼 상대자의 범죄기록 등에 관하여 여성에게 통보
- ※ 위반 시에는 2만 5천불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거나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짐

- 일본에서 국제결혼중개업은 자유업에 속하여, 그 업체를 단속하거나 관리하는 독자적 시스템이나 독립 법률은 없으나, 관련된 몇 개의 법률로 규제
  - 계약관계에서 해약이 쉽지 않다는 점과 계약서의 내용과 실제 수행 내용 사이에 차이가 존재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을 예방하기 위해
    - ‘특정 상거래에 관한 법률’과 ‘소비자 보호법’을 통해 중개업 규제
  - ‘개인정보의 보호에 관한 법률’을 통해서도 결혼중개업체가 사생활 정보를 유출한 가능성을 규제
- 대만에서는 출입국 및 이민법 수정 초안에 ‘결혼중개업의 관리방안 및 처벌규정’을 신설하는 등 결혼중개업과 광고에 대한 관리 강화 방침

## 2. 결혼이민과 국적취득

- 일본의 경우 일본인과 결혼한 외국인도 일본호적에 혼인신고를 하면 ‘일본인의 배우자 등으로서’ 체류자격 취득이 가능하고, 결혼 후 3년이 경과하면 간이귀화를 통해 일본국적 취득
- 대만은 신증설(新增設)국적법에 의해 외국인이 대만국적을 취득할 경우
  - 여성결혼이민자가 대만에 정주하기 시작하여 국적을 취득하기까지 3년을 기다려야 귀화신청을 할 수 있으며, 1년 후에 호적 발급(총 4년 소요)

## 3. 이민자가족 지원

- 독일에서는 이민자들도 의료보험, 실업보험, 사회복지보조금, 연금, 자녀들의 의무교육 등 사회복지의 기본 혜택을 받고 있으며
  - 외국인 소녀들을 포함, 아동과 청소년이 겪게 되는 갈등적 상황과 연관된 업무를 담당하는 프로젝트와 프로그램 지원

- 일본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를 국가의 기본단위를 이루는 ‘가족’의 문제로 접근하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다문화공생사회 추구’라는 목표를 세우고 정책을 추진
  - 건강보험, 연금보험, 고용보험, 산노재보험, 개호보험 등 사회보험을 적용
  - 사회수당인 아동부양수당법, 특별아동부양수당을 적용
  - 지자체에서는 거주지 확인, 언어장벽 문제 해결, 외국인 가족의 세대간 격차 문제의 해결 등을 위한 포괄적인 행정서비스 제공
- 대만은 여성결혼이민자가 내국인과 동등한 권리 및 의무를 최대한 향유할 수 있도록 동등한 조건의 취업, 신체 안전, 사회복지 및 교육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시험단계에 있음
  - 공적부조의 경우 저소득가구 책정시 여성결혼이민자의 수입을 총 수입에서 제외시켜, 기존 저소득 가구가 국제결혼으로 인하여 공적부조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함
  - 2003년 취업서비스법 개정으로 결혼이민자가 대만국민과 동등하게 ‘취업허가’ 신청을 하지 않고 취업할 수 있도록 보장

#### 4. 사회적 편견 해소

- 독일에서는 외국인 가족에 대한 차별이 편견이나 인습으로부터 나온다고 인식하고,
  - 외국인에 대한 적대감을 해소하기 위한 행동전략을 발전시키기 위해 1999년부터 교육자, 사회사업자, 청소년 관련종사자들에게 현장 중심적인 평생교육 서비스를 제공
- 인구의 절반 이상이 외국인 이민자로 구성된 호주의 경우, 다양한 문화를 포용하기 위해 정부에 ‘이민 및 다문화부’를 설치
  - 정규 교육과정에서 인종차별의 편견을 벗는 교육을 정기적으로 받고, 마을의 경찰서에서는 소수민족인의 언어 소통을 위해 ‘소수민족연락관’이라는 공무원을 고용하고 있을 만큼 세심히 배려

# VI.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

## 1. 비전 및 기본방향



## 2. 주요 정책과제

### 정책과제1

### 탈법적인 결혼중개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 <1>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법률 제정 및 불법행위 단속 강화

- 결혼중개업체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우선 **현행법을 통해 단속할 수** 있도록 ‘수사요령’을 일선 경찰관서에 하달하고, 정기적인 단속 실시
- 국제결혼 중개로 인한 피해 사례를 파악한 후, 이를 기반으로 탈법적인 국제결혼중개 행위를 관리하는 별도의 입법 추진

#### <2> 결혼사증 발급심사 강화

-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 재외공관별로 결혼비자 발급 제출서류 및 절차가 제각기 달라, 사증 발급 과정에서 사기결혼, 위장결혼, 전염병 환자 발견 등에 한계
  - 결혼 비자발급 서류·절차를 **표준화를 도입하여, ‘혼인의 진정성’을 정밀하게 심사**
  - 사증발급 과정부터 전염병 유입에 대한 발견 및 관리체계 구축

#### <3> 외교채널을 통해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 주요 송출국(베트남, 중국, 태국, 몽고, 러시아 등)과의 외교의제에 국제결혼중개 관련 쟁점을 포함하여, 문제의식을 공유하고 해결방안 모색
- 주요 송출국에서 자국민 보호를 위해 운영중인 상담·교육정보제공 프로그램 등에서 한국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한국 관련 자료 제공

#### <4>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 ① 1단계 : 결혼중개업체에 모집되기 이전

- 주요 송출국에 핫라인(Hot-Line)을 운영하여 국제결혼에 관심이 있는 외국인 여성들에게 전화상담을 제공하고, 재외공관에 국제결혼에 대한 안내자료 비치

※ 국제결혼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여 이들 여성의 결정에 도움 제공

##### ② 2단계 : 비자발급 과정

- 주요 송출국에 있는 한국 문화원, 문화관, 또는 UNESCO, IOM 등 국제기구에 위탁하여 결혼이민 비자발급이 예정된 자를 대상으로 한국정착을 돕기 위한 한국어 교육, 역사, 관습, 문화 등에 대한 교육, 상담 및 정보제공

## 정책과제2

##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

#### <1>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에 대한 관리 강화

-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는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인 배우자의 일방적인 신원보증 해지로 불법체류자로 전락하는 사례 방지
  - 여성결혼이민자의 배우자가 신원보증 해지 신고 시 바로 불법체류자로 분류하지 않고 별도 관리
  - 외국인 전용쉼터 등의 상담소 및 보호시설과 협조체계를 구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의견 청취, 사실여부 확인 등을 통해 체류허가 여부 결정

#### <2>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 혼인파탄에 대한 입증자료로 불충분한 상태에서 한국인 배우자에게 혼인파탄의 책임이 있음이 주장되는 경우에는
  - 실태조사 등을 통해 책임소재가 규명될 때까지 여성결혼이민자의 국내체류 허용(취업가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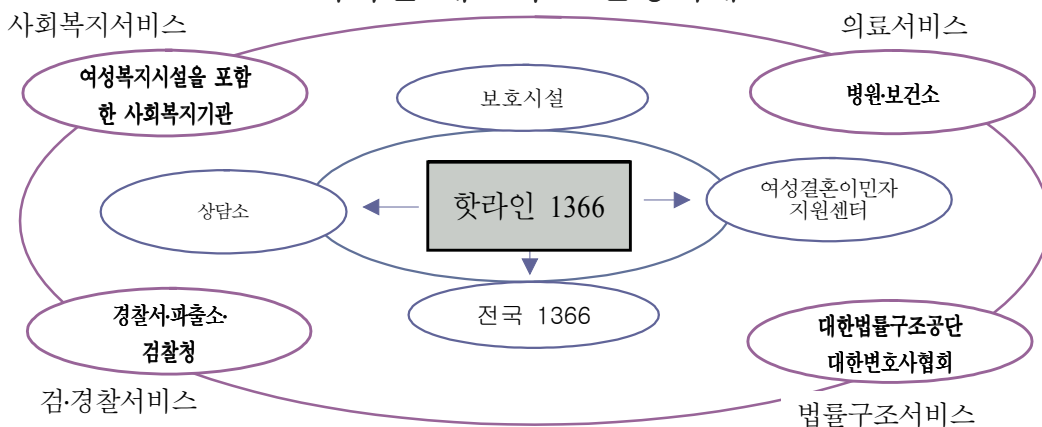
### <3> 이혼에 따른 간이귀화 입증요건 완화

- 위자료 지급내용, 공인된 여성결혼이민자 관련 시민단체의 사실 확인서, 신빙성 있는 이웃의 진술서 등 합리적인 방법으로 본인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판정하는 방안 검토

### <4>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지원체계 구축

- 6개 언어 지원, 여성결혼이민자 핫라인 「1366」 센터 설치('06)
  - 한국어가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담원으로 양성하여 배치
    - ※ 대상언어 : 영어, 일어, 중국어, 러시아어, 베트남어, 태국어
- 가정폭력 관련시설 종사자의 외국어 사용능력 강화
  - 여성결혼이민자를 상담원으로 양성·배치하거나, 상담원 대상 외국어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결혼이민자 본국어로 기본적인 안내와 설명 등을 할 수 있도록 교육
- 여성결혼이민자 본국어로 외국인 여성 핫라인 1366센터 설명책자를 제작·배포(출입국관리사무소, 읍면동사무소 비치·배포)
- 지원체계에 대해 이민자와 관련기관 관계자의 인지도가 향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홍보 실시
- 여성결혼이민자 전용 핫라인을 중심으로 전국 「1366」(16개소), 여성·학교폭력 원스톱 지원센터, 쉼터, 관련 민간단체와 법률구조공단, 상담소, 의료기관 등과 상시 연계체계 구축

#### < 지역별 네트워크 운영체계 >



## <6> 가정폭력예방 및 보호체계에 여성결혼이민자 포함

-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을 개정(개정안 국회 계류 중)하여 여성결혼이민자를 포함한 외국인 전용쉼터 설치의 법적근거 마련
  - ※ 여성가족부령에 외국인 시설 설치기준, 상담원 등을 별도로 규정
- 2개소(인천, 천안)인 외국인여성 전용 쉼터를 수요조사를 통해 점진적으로 확충
-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무료법률구조서비스 지원체계 개선
  - ※ 대한법률구조공단(18개 지부 및 35개 출장소), 가정법률상담소(32개 지소)를 통해 가정폭력 피해여성의 민·형사 사건 소송구조 등 법률지원('06년 예산 12억원)

### 정책과제 3

### 한국사회 조기 적응 및 정착 지원

#### <1>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 ① 1단계 : 외국인 등록증 발급 단계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에서 방문하여 정착초기 단계에서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내용과 시스템에 대한 설명 및 자료집 (Information Kit) 제공

##### ② 2단계 : 정착단계

- 출신 국가별 한국어교재(언어별·진도별) 개발 및 홈페이지, 미디어 자료 제작, 양국어로 된 문화이해 프로그램 개발
- 동일국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간 네트워크를 관련부처(여가부·법무부·지방자치단체)와 연계·구축하여 사회적응과 관련한 조언과 정보교환 지원

## <2>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지원

- 한국인 가정과 자매결연사업(Host Program)을 통한 신규입국자 조기정착 지원
  - 최근 1년 내 신규입국자와 자원봉사자간 상담(mentoring)제도 도입
  - 상담자(mentor)는 이민자에게 지역생활 적응, 한국어 능력 향상을 위한 도움을 제공

### 외국사례

- 자매결연사업은 현지인이 외국인 유학생을 집으로 초대하는 등 만남을 통해 처음 외국 생활을 하는 유학생들에게 도움을 제공하는 사업임(미국, 캐나다)

- 이민자의 한국어 능력 향상 지원
  - 읍·면·동 단위로 기존 한국어 교육기관과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농업기술센터 등과 연계하여 이민자에게 한국어 및 문화적응 교육과정을 상시 운영. 단체학습인 경우 동행아동을 돌볼 수 있는 별도 공간 및 인력 배치
    - ※ 문화부 법인 한국어세계화재단,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역농협문화복지센터 등 기존 한국어 교육 실시기관과 연계
  - EBS 등을 통한 언어·문화이해 교육 실시
    - ※ 여성결혼이민자 수가 많은 언어권(필리핀, 베트남 등)부터 교육프로그램 편성, 단계적 확대 추진
- 가족내 상호문화 이해증진을 위한 교육
  -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등 다문화 교육기관과 연계하여 가족들이 결혼이민자 출신국의 언어·생활풍습 등을 이해할 수 있는 기회 제공
- 찾아가는 서비스를 통해 놓여촌 등 소외된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필요한 서비스 연계
  - 양육문제, 교통문제, 가족의 반대 등 가정·경제적 문제 등으로 한국어 교육 등에 참여하지 못하거나, 복지서비스로부터 소외된 이민자가정 방문
    - ※ 이민자 가족의 문제 상황에 맞춰, 동사무소 사회복지담당자와 복지관·자활후견기관 사회복지사, 가정폭력상담원, 교육관계자, 보건소 의료진 등이 방문

### <1> 다문화교육 추진체계 구축

#### ○ 현행 교과서에 포함되어 있는 민족적·문화적 배타성 완화

- 현행 교과서를 검토·분석하여 인종차별적 교육요소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수정

#### 다문화가정 자녀에게 상처를 주는 교과서 서술 예시

- ‘우리 민족은 세계사에서 보기 드문 단일 민족 국가의 전통을 이어 오고 있다’(고등학교 국사 교과서)
- 초등학교 3학년 음악교과서에 수록된 <서로서로 도와가며>라는 노래에는 “우리는 한 겨레다! 단군의 자손이다!”라는 구절 포함

#### ○ 차기 교육과정 개정 시 다문화 교육요소 반영

- 다인종다문화의 내용을 담은 교과서 보완자료를 초·중·고에 보급('06년 하반기)
- 사회, 도덕, 국어 등 관련 교과에 타문화 이해, 편견 극복 및 관용을 강조하는 교육요소 반영('07.2월에 차기 교육과정 고시 예정)

#### 외국사례

- 이민 사회로 성립된 미국의 경우 국민 통합을 이루기 위해 20세기 초 초·중 등 교과에 사회연구(Social Studies) 과목을 설치하여 다문화 교육(Multi-cultural Education), 다인종 교육(Multi-ethnic Education)을 실시

### <2> ‘학교’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 강화

####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방과후 교육’ 프로그램 개설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학습결손 방지를 위해 방과 후 학교 프로그램으로 한국어 지도, 교과 지도, 문화체험 교육 실시
- 능력을 갖춘 여성결혼이민자 및 외국인 학부모를 방과후 학교의 외국인 교사로 활용

- 학교 홈페이지를 활용한 교육자료 제공 및 대화채널 구축
  - 교육부·교육청 홈페이지에 한국어·한국문화 학습자료 및 자녀 지도 자료를 탑재하여, 개별 학교가 이를 링크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사 및 또래 집단 등과의 교류 활성화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를 지도·상담하는 전담교사를 지정하고, 선배 또는 또래 친구, 유·초등교육 전공대학생과의 1대1 결연 활성화
- 취학 안내 등 가정 내에서 학습지도가 필요한 사항을 수록한 「학교 생활 안내 리플렛」을 다언어로 제작·배포

### 사례

- 전북도교육청은 국제결혼 지원계획의 하나로 자녀를 둔 가정에 신입생 입학 전 안내자료(학습도구, 생활태도, 및 언어생활 지도 등)를 외국어(중국어, 일본어, 영어)로 제작 발송

- 지자체와 민간단체가 방과 후, 공휴일 및 재량 휴업일에 학교시설을 다문화가정 교육장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개방
- 이중언어(Dual language) 학습 지원
  - 가정 내에서 자연스럽게 이중 언어에 노출되는 장점을 살려 다중언어 구사 자원으로 육성할 필요성 강조
    - ※ 저개발국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 자녀의 경우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이 금기시되는 분위기에서 자라나는 경우가 많아, 한국어·어머니의 모국어 모두 미숙한 경우 많음
  - 어머니의 모국어 사용을 장려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간단한 인사말 등을 교우들에게 가르치도록 하는 등 수업 지도에 활용
-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 및 상담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
  - 자녀들의 이중언어 교육법 및 상담자료 개발을 위한 정책연구 추진('06년 하반기)
- 장학지도 실시 및 학교평가·교육청 평가에 반영
  - 국제결혼 자녀 교육 추진에 관한 담임 장학, 종합장학 실시('06)
  - 국제결혼 자녀 교육 추진실적을 학교평가 및 교육청평가에 반영('06)

### <3> 여성결혼이민자 자녀 교육을 위한 교사 역량 강화

- 다문화주의 및 소수자 배려를 위한 교원 연수 강화
  - 교원 자격연수·직무연수시 다문화 이해교육, 학습부진아 특별교육, 집단따돌림 예방교육 등을 교양 과목에 최소 2시간 이상 포함하도록 권장
- 한국어(KSL) 교육 능력을 가진 교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
  - ‘한국어교원자격증(KSL자격증)’을 소지한 현직교사가 결혼이민자 자녀를 위한 한국어반을 담당할 경우 소정의 가산점 부여 권장('06년 예고 후 '07년 시행)

### <4> 집단따돌림 예방

- 학급중심 소집단 그룹 활동 활성화 및 상담네트워크 구축
  - 집단따돌림·집단폭력 역할극, 집단협동 놀이 및 활동, 선생님과 비밀이야기 하기 등 활성화
  - 지역교육청의 전문상담순회교사(308명)를 활용하여 부적응 학생 지도
- 학생회를 중심으로 집단따돌림 예방 및 자정운동 유도
  - 토론문화 조성을 통해 상호 이해·배려하는 생활태도 육성
- 학교공동체 프로그램 운영에 주도적으로 참여하도록 지원
  - 학생, 교사, 학부모가 함께 하는 프로그램 참여 지원(갯별탐사, 뒤뜰야영, 수련캠프 등)

### <5>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 이민자 자녀를 지역아동센터 이용대상으로 확대하는 한편, 이민자 가족 등을 외국인 밀집지역에 운영되고 있는 지역아동센터를 통해 지원
  - ※ '05 800개소 → '06 902개소
  - 농촌가정, 저소득층 가정 등의 학습·상담지도가 필요한 초등학생 등에게 지역아동센터에서 도우미(학습·상담·복지 등)을 파견하여 학습 및 인성지도 추진
- 농·어촌지역 멘토링을 위해 자원봉사자 적극 활용
  - 지역내 자원봉사자를 교육청에 등록하여 활동하도록 하고 실경비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일자리 창출 효과 동시 거양

### <1>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 대한 기초생활 보장

- '07.1월부터 국적 취득 전인 여성결혼이민자도 한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 양육시 기초생활보장제도 적용('06년 하반기 하위법령 정비)
  - 한국인 배우자와 사별 또는 이혼하여 미성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는 '모·부자복지법'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으로 포함('07년 시행 예정)
- 한국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여성결혼이민자중 위기상황에 처하여 생계가 곤란한 경우에는 '긴급복지지원법'의 수혜대상에 포함, 생계·의료·주거지원 등 실시('06.3.24. 시행)

### <2>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 임신·출산·자녀양육법 등을 수록한 '모성보호가이드' 발간·배포
- 저소득 가정 여성결혼이민자의 산전 후 지원
  - 출산도우미를 파견하고, 분만, 선천성대사이상검사 등을 지원
  - 영·유아 예방접종, 저소득계층에 대한 미숙아 및 선천성이상아 의료비와 영유아·임산부 건강검진 등 지원
- 보건소 '임산부 및 영유아 보충영양사업' 시범사업 대상에 포함 (15개 보건소)
  - 소득 및 영양위험기준 등에 해당되는 경우 6~8개월 동안 영양교육 및 대상기준별 보충식품 지원(1인당 평균 7만원 상당/월)
    - ※ 최저생계비의 200%이하인 가정의 영양위험기준에 해당하는 임산부 및 영유아
  - 신청한 자에게 출산 전에는 임산부와 태아의 건강관리, 출산 후에는 산모와 신생아 영양관리에 관해 교육하고, 필요시 방문간호사업과 연계
- 농어촌 저소득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영유아양육비 지원
  -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의 영유아가 보육시설 이용시 정부보육료의 50% 지원(농림부, 5ha미만 농지소유 농가)

### <3> 직업상담 및 고용서비스 지원

- 고용안정센터의 취업희망자에 대한 상담 및 취업알선 서비스 강화
- 취약계층 취업지원을 위한 사회적일자리사업에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포함

### <4>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여성결혼이민자 진출 지원

- 다문화 관련 교육·사회복지 분야에 진출할 수 있도록 인력양성 및 취업연계 프로그램 운영

※ 문화해설 통역사, 국제행사 안내, 국제교육부 강사, 관광가이드, 통·번역, 사회복지 분야의 외국인 상담 및 보호, 다문화사회 교육 강사, 외국인 자원봉사자, 여성결혼이민자 정보화교육 강사, 방과 후 외국어 강사 등

### <5> 여성결혼이민자 건강증진 지원

- 건강검진서비스 시범 실시
  - 보건복지부 산하법인 건강검진 전문기관인 ‘한국건강관리협회’를 통해 추진('07)
-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다국어 건강보험 제도(대상, 방법 등)안내 소책자 제공

## 정책과제 6

## 다문화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

### <1>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의 의식 제고를 위한 홍보 추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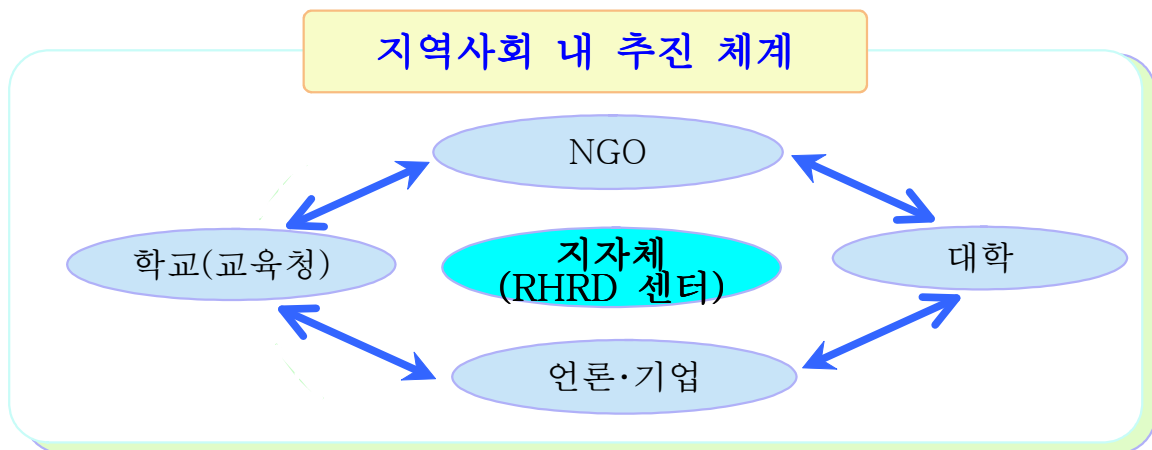
- 정부의 홍보매체·언론·이주노동자방송국 등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 관련정책 홍보 실시
  - 인터넷 ‘이주노동자방송국’(migrantsinkorea.net) 등을 활용하여 다국어로 정책홍보
- 시민대상 다문화 인식개선 교육 등 실시



## <2> 지역사회의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 ○ 지역사회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협력체제 구축 지원

- 지자체, 교육청, NGO, 대학, 언론, 기업 등 지역사회 내 유관기관이 협력 추진하는 결혼이민자 가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재정 지원
- '06년 지역인적자원개발(RHRD)사업 예산(100억원) 중 일부 지원



### ○ 지자체의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우수 사례(Best Practice) 발굴·확산

- '결혼이민자가정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우수한 성과를 낸 지자체를 선정하여 언론 등을 통해 적극 홍보

#### <'06년 대구·경북지역 인적자원개발 프로그램>

- 사업명 : 「결혼이주민의 직업능력 개발과 자녀 정체성 강화 사업」
- 사업대상 : 대구·경북지역 거주 결혼이민자 및 그 자녀
- 추진주체 : 대구·경북RHRD센터, 시·도청 및 교육청, 여성복지회관, 지역 대학, 대구MBC, 민간기업 등
- 소요예산 : 7.5억 (RHRD사업비 5억원, 경상북도 1.3억원, (주)대교 1.2억원)

###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친숙한 이웃으로 만드는 문화 프로그램 제공(지자체 주관)

- 결혼이민자의 날 행사 개최(주민·기업체·시민단체·외국대사관 등 참여)

○ 다양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통한 가족공동체 문화형성 및 지역사회 적응방안 제시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지원 프로그램 개발 및 시범사업('06년) 시행
- 연극, 무용, 미술, 음악 등 다양한 예술장르 교육 프로그램 개발
  -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을 위한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 연구('05.8~12,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 시범사업 : 프로그램당 500만원~2,000만원 내외 지원('06년, 10개지역), '06년 시범사업 결과를 반영하여 '07년 이후 확대 예정

<3> 공무원 교육

○ 다문화 교육 추진체계 구축

- 건강가정기본법의 '건강가정기본계획'에 여성결혼이민자 관계 책임자 교육 반영
- 인권관련 교재·교육프로그램 제작 및 교육시 여성결혼이민자 인권 보호 내용을 반영하고, 교재·시청각교재·강사 등 지원

○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편견 및 차별해소를 위한 정기적인 교육 실시

- 중앙·지방 공무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여성결혼이민자 차별예방 관련 내용 반영
- 공무원훈련기관에서는 기본교육과정에 교과목으로 반영

<4> 사회복지·보건의료 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 여러 문화권 출신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적절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다문화에 대한 지식, 문화적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교육훈련 기회 제공

- 다양한 의료인·약사 관련단체와 협조하여 의료인·약사 보수교육 과정에 포함하여 교육을 하도록 권고(\*의료기관 수 : 4만7천개)
- ※ 의료인 단체(의료법 제4절 제26조) : 의사회, 치과의사회, 한의사회, 조산사회, 간호사회(10만명)

<1> 결혼이민자가족 전국 실태조사 실시

- 결혼이민자가족의 욕구 및 가족관계, 자녀현황 등 파악을 위한 전국 실태조사 실시
  - 여가부 가족실태조사, 교육부 외국인 취학아동, 행자부 외국인 취학전 자녀 실태 조사
  - ※ 여가부, '06년에 전국의 1,000 가구이상을 대상으로 실태조사 실시

<2>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지정·운영

- 시·군·구 단위로 결혼이민자 지원활동을 수행하는 민간기관을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로 지정·지원
  - 건강가정지원센터, 여성회관, NGO, 지역사회복지관 등 가장 효율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관을 지정
  - '06년 51개소를 시작으로 집중 거주지역에 단계적으로 확대
  - 지원센터는 이민자에게 거주지 정보제공·오리엔테이션, 각종서비스 제공 및 연계, 커뮤니티 형성 지원, 정책홍보 실시
- '중앙건강가정지원센터'를 통해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 기능 강화

<3>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 한국사회복지협의회 전국 시·도, 시·군·구협의회(117개), 복지관등 사회복지시설 2,600개소에 구축되어 있는 자원봉사자 관리 인프라 활용

<4> 통역·상담·교육인력 양성

- 상담·통역·강사 전문인력 양성
- 상담·교육 전문인력뱅크 설립

## <5> 범정부 차원의 총괄추진 체계 마련

- 전반적인 외국인관리 및 이민정책은 법무부에서 총괄
-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정책은 가족정책 차원에서 여성가족부에서 총괄
  - 보건복지서비스(복지부) 등 정책영역별로 부처간 역할 분담

### < 부처간 역할 분담 및 협조체제 구축방안 >

구 분	담당부처	
	주관	협조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 언어문화이해 교육, 가족의 생활정착 지원, 가정폭력피해자 지원, 사회적 인식개선 전달체계(결혼이민자 지원센터) 구축	여가부	법무부, 문화부, 복지부, 정통부, 농림부, 행자부
·국제결혼중개업체 관리 감독, 생계·의료지원 및 생활 정보 제공,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복지부	법무부, 여가부, 지자체
·인신매매성격의 국제결혼 방지, 체류자격 불안정 해소, 탈법행위 단속	법무부	여가부, 경찰청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 지원	교육부	여가부, 복지부, 지자체
·일자리 알선 및 훈련지원	노동부	여가부
·불법행위 단속	경찰청	법무부
·업무관계자 교육	중앙인사위	전 부처, 지자체

## <6> 중앙·지방정부간 정책네트워크 구축

- 지역별 여성결혼이민자 지원을 위한 계획 수립 및 추진
  - 시·도 단위에서는 여성정책 관련부서, 여성긴급전화 1366·지역사회 복지협의회·의사회 등을 전달체계로 활용
  - 시·군·구 단위에서는 여성정책관련부서, 건강가정지원센터·사회복지기관·여성회관·여성인력개발센터·보건소·지방의료원등을 전달체계로 활용하며,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와 공조
    - ※ 건강가정지원센터의 사회적응교육과 여성회관, 여성인력개발센터의 직업훈련을 제공, 보건소 및 지방의료원에서는 사각지대 여성이민자에게 의료서비스 제공
  - 읍·면·동 단위에서는 사회복지전담요원, 보건진료소 및 보건지소 종사자 등을 활용
    - ※ 사회복지요원과 보건진료소·보건지소 종사자 등과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여성결혼이민자의 생활실태 및 문제점을 수시 파악하여 지원

## VII.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및 향후추진 일정

### 1. 부처별 세부역할 분담

조치사항	주관부처	협력기관
<b>1. 탈법적인 국제결혼 방지 및 국제결혼 당사자 보호</b>		
① 결혼중개업체 탈법행위에 대한 단속	법무부	경찰청
② 국제결혼중개업 관리를 위한 입법 추진	복지부	
③ 인신매매 등 중개행위에 대한 관리방안 검토	법무부	외교부, 여가부 경찰청
④ 결혼비자 발급 서류·절차 표준화	법무부	외교부
⑤ 외교채널을 통한 국가간 협력체계 구축	외교부	
⑥ 결혼 당사자에게 국제결혼에 대한 정보제공	여가부	복지부, 외교부
<b>2.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한 안정적인 체류지원 강화</b>		
① 배우자의 신원보증 해지신청 요건 강화	법무부	
② 혼인파탄 귀책사유에 대한 입증책임 완화		
③ 이혼에 의한 간이귀화 신청시 입증요건 완화		
④ 사실혼 부모 출생자녀 및 외국인 모에게 국적 또는 영주권 부여		
⑤ 가정폭력피해자 지원체계 구축 및 보호	여가부	법무부
<b>3. 한국사회 조기적응 및 정착지원</b>		
① 한국생활 적응에 필요한 정보제공 시스템 구축	여가부	법무부, 행자부, 정통부, 지자체
② 한국생활 적응 및 정착 지원	여가부	문화부, 교육부, 농림부

조치사항	주관부처	협력기관
<b>4. 아동의 학교생활 적응지원</b>		
① 다문화교육추진체계 구축, 학교의 결혼이민자 자녀 지원 기능 강화, 교사역량 강화, 집단 따돌림 예방	교육부	
② 복지 및 상담서비스 제공	복지부	교육부
<b>5.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안정적인 생활환경 조성</b>		
① 기초생활 보장 및 건강증진 지원	복지부	여가부
② 자녀출산 및 양육지원	복지부	여가부, 농림부
③ 직업상담 및 공공서비스 부문으로 진출 지원	노동부	
<b>6.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사회적 인식 개선 및 업무책임자 교육</b>		
① 정부정책 안내 및 일반국민 의식제고를 위한 홍보	여가부 법무부	
② 지역사회 다문화 친화적인 분위기 조성	문화부	교육부, 행자부 지자체
③ 공무원 교육 실시	인사위 여가부 법무부	전부처, 지자체
④ 사회복지, 보건의료서비스 종사자 등에 대한 교육	복지부 행자부 교육부 농림부	
<b>7. 추진체계 구축</b>		
① 결혼이민자 가족 실태조사	여가부	행자부, 교육부
②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 운영	여가부	지자체
③ 자원봉사활동 인프라 구축 및 통역, 상담, 교육 인력 양성	여가부 복지부	
④ 범정부 추진체계 구축 및 중앙, 지방정부간 정책 네트워크 구축	여가부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및 지원방안

---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 그리고 지원방안

## - 농촌지역 정착 이주여성을 중심으로 -

박 재 규(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수석연구위원)

### 1. 서 론

#### 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최근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2000년 12,319건에서 2003년 25,658건으로 증가하였고, 그리고 2004년 다시 35,447건, 2005년 43,121건까지 증가하였다. 이러한 증가추세는 국제결혼이 한국사회 전체 결혼에서 차지하는 비율 증가로 이어지고 있는데, 즉 2003년 국내 결혼에서 국제결혼 비율이 8.4%(25,658/304,932)에서 2004년 11.4%(310,944), 그리고 2005년 13.4%(321,550)까지 증가하였다. 이런 증가추세를 유지할 경우 2020년 한국사회 국제결혼 비율은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통계청, 2006).

한국사회 국제결혼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는 원인은 한국사회의 국제화와 함께 한국사회 지역 간 성비의 불균형, 그리고 결혼 수급의 불균형 때문이다(박재규, 2005). 즉 1990년대 중반 이후 한국사회의 개방화 및 국제화는 한국인의 국제사회 진출과 국내 노동시장 개방에 따라 제조업이나 전문직에 종사하는 남녀간의 만남이 국제결혼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보다 중요한 요인은 농촌지역 남성이나 도시 빈민지역 남성의 경우 지역사회 혹은 국내에서 배우자를 찾지 못하고 결혼 적령기를 넘기게 되면서 그 대안으로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선택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 결과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이 국제결혼에서 다수를 차지하여 국제결혼에서도 '여성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sup>1)</sup> 예를 들면, 지난 3년(2003-2005년) 동안 한국인 남성이 외국인 여성과 결혼한 사례가 75,988건으로서 한국인 여성이 외국인 남성과 결혼한 사례의 28,238건에 비해 2.69배 많았고, 2005년에도 전자가 후자보다 2.61배 정도 많았다(통계청, 2006).

한국사회 국제결혼의 여성화는 남아선호사상에 따른 성비의 불균형과 인구이동에 따른 지역간 성비 불균형, 그리고 한국 여성의 결혼 가치관 변화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지역경제의 저발전과 남녀 차별적인 도시이주로 성비 불균형이 심화되었다. 예를 들면 2004년 20대와 30대의 성비가 각각 119와 129로 도시지역 성비 110에 비해 매우 높고, 일부 농촌지역에서는 130부터 최고 150 이상(전라북도 임실, 순창, 고창군의 20대 후반)까지 나타나고 있다(전라북도, 2003). 이러한 결과는 농촌지역 남성의 결혼문제가 농촌 지역사회 내부적으

1) 국제결혼의 여성화란 이주과정에서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는 '이주의 여성화' 개념에서 비롯된 것이다. 즉 이주의 여성화란 국가 간 노동이동에서 50% 이상을 여성 이주자가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내포하며, 또한 여성이 남편을 따라서 이동하기보다는 여성 스스로가 추체적인 노동자로 이주하는 취업노동자가 많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이혜경, 2005). 이러한 개념을 바탕으로 한국 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이 한국 여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남성에 비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현상을 '국제결혼의 여성화'라고 표현하였다.

로 해결될 수 없는 구조적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며, 그 탈출구로서 도시지역 여성과의 결혼을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지역 여성의 경우 농촌남성과의 결혼을 기피하고 있다. 왜냐하면 농촌의 저발전과 농업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여성농업인의 힘든 생활 등 여러 가지 부정적 요인 때문에 도시여성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혹은 배우자로서 농촌남성을 선호하지 않고 있다(박재규, 2003). 이처럼 농촌남성의 결혼문제가 국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한계에 직면하자 외국인 여성과의 결혼을 고려하게 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결혼정보업체와 함께 국제결혼을 알선하고 있다(경북매일신문, 2005).<sup>2)</sup> 그 과정에서 농촌지역의 국제결혼이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 농림어업에 종사하는 남성의 국제결혼 비율이 2004년 27.4%에서 2005년 35.9%까지 증가하였다. 특히 일부 농촌지역의 경우 그 비율이 40%를 넘어서고 있는데, 예를 들면, 충북(46.3%), 경북(43.6%), 전북(42.3%), 충남(41.4%) 등이다(통계청, 2006).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은 지역적으로 큰 편차를 보이면서 향후 계속해서 증가할 것이며, 그 결과 2020년에 국내 전체 결혼에서 32%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는 또한 국제결혼 가정의 출생 자녀(혼혈인구) 증가로 이어져 한국사회의 새로운 사회세력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암시하고 있다. 예를 들면, 2006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은 7,998명(초등학교 85%, 중학교 11.6%, 고등학교 3.5%)으로 2005년 6,121명에 비해 30.6% 증가하였다(인적자원부, 2006). 그렇지만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는 미취학 자녀를 포함할 경우 2006년에 약 25,426명으로 추정되며, 2020년에는 그 수가 167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한다(통계청, 2006; 중앙일보, 2006).

이처럼 한국사회의 국제결혼과 그 가정의 자녀수는 매우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지만, 그들의 한국사회 적응을 지원할 수 있는 정책은 매우 제한적이며, 심지어 그 실태에 대한 체계적인 파악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과 그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문제가 사회적으로 반향을 일으키면서 실태파악과 지원을 위한 정책이 제시되고 있다. 최근 교육인적자원부에서도 ‘국제결혼 가정 자녀, 외국인근로자 자녀의 학습 결손 방지 및 학교 적응 지원’을 위하여 국제결혼가정 자녀를 위한 방과후학교 프로그램을 비롯하여 대학생 멘토링 대상으로 다문화가정 자녀 우선 선정 등 7가지 정책과제를 발표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국제결혼 가정이나 외국인근로자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을 위한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sup>3)</sup> 그럼에도 아직까지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 양육이나 교육실태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편이다. 더욱이 국제결혼 가정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문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문제와 불리해서 결코 생각할 수 없는 밀접한 관련성을 갖는 문제이다. 그런 의미에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입장에서 자녀양육과 교육실태를 검토하였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지원정책을 제시하였다.

2) 담양군 경우 2003년에 필리핀 카멜링사와 협약을 추진하여 군내의 농촌 총각들과 필리핀 여성들 간의 결혼을 추진하였고, 나주시도 ‘농촌총각 국제결혼 추진협의회’를 구성하였다(한국염, 2004).

3) 교육인적자원부 및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 가정 자녀 지원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교육인적자원부 2006년 발표 정책자료집 참고.

## 2) 연구방법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과 교육실태를 검토하기 위해 본 연구는 2005년 8-9월에 걸쳐 전북발전연구원이 전라북도 농촌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자료를 이용하였다. 즉 전북발전연구원에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내생활 적응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를 파악하고, 그 결과를 토대로 성공적인 국내 정착 지원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을 두고 실태조사를 실시하였고, 그 자료는 전북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과 지역별 분포를 고려하여 13개 시·군(농촌지역)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608명을 대상으로 수집한 것이다.

전북발전연구원의 자료를 이용하는데 있어 본 연구는 분석 내용에 따라 표본의 크기를 조정하였다. 예를 들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양육 및 교육실태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결혼하여 자녀가 없는 이주여성의 경우 제외시켰으며, 또한 이주여성과 자녀 사이의 의사소통 문제의 경우 유아(만3세 이상)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만을 분석 대상으로 제한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고 있는 자료는 전체 608명 가운데 분석 내용에 따라 자료의 크기에 있어 차이를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양육이나 교육은 이주여성 관점에서 분석하였고, 주요 내용은 자녀의 돌봄을 비롯하여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정도,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의 특성은 무엇이며, 자녀의 학습생활 지원 및 자녀의 학교생활 따돌림 현상, 그리고 그와 관련된 이주여성의 특성 등이다.

## 2. 한국사회 국제결혼 증가와 적응문제

### 1)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증가와 그 실태 파악

국제결혼의 역사가 국제사회 노동력 이동과정과 그 궤적을 같이하고 있다는 사실은 국제결혼 그 배후에 전지구적 자본주의 체제와 국제결혼에 참여하는 양국 사이의 사회-경제적 연관성 등 다양한 요인이 관련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국제결혼에서 여성화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그 또한 세계 자본주의체제에서 국가간의 불균형 발전과 여성의 상품화 현상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함축하고 있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 공동체로 통합되면서 자본과 상품, 그리고 사람도 국경을 넘어 활발하게 이동하고 있으며, 특히 노동력의 이동은 경제적 낙후지역에서 경제적으로 발전한 지역으로 진행되고 있다. 국가간 노동력 이동에서 남녀 모두가 참여하지만 일반적으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feminization of migrant workers) 현상이 심화되고 있으며(Castle and Miller, 1998; Kofman, 1999), 아시아 지역에서 이주노동자의 여성화 현상이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다(설동훈 외, 2005). 국가간 노동력 이주과정에서 국제결혼도 여러 가지 모습으로 변모해 왔는데,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설동훈 외, 2005; 이혜경, 2005). 즉

20세기 초 ‘사진신부’(picture brides), 제2차 세계대전 이후의 ‘전쟁신부’(war brides, military brides 또는 GI brides), 그리고 1970년 이후 미국과 유럽 등 일부 선진국의 ‘우편주문신부’(mail order brides)가 있고, 우편주문신부는 최근의 인터넷의 발달로 ‘인터넷주문신부’(internet order brides) 또는 ‘사이버주문신부’(cyber order brides)라 부르고 있다.

최근 한국사회 국제결혼에서도 여성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한국사회의 국제결혼 흐름이 1990년대 중반 이후 크게 반전되면서 나타났다. 즉 한국사회 국제결혼은 1945년 해방 이후 한반도에 진입하여 주둔하게 된 미군과 한국여성 사이에 미군기지촌을 중심으로 제한적으로 발생하였고, 1980년대 통일교가 국제결혼을 교단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사회 저변으로 확대되었다. 특히 1980년대 후반 노동시장의 국제화와 이주노동자의 국내유입은 국제결혼의 증가로 귀결되었고, 1990년대 중반 이후 농촌지역의 농촌각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면서 농촌 남성과 외국인 여성 사이에 국제결혼이 크게 활성화되었다.

<표 1>에 의하면, 1991-2005년 동안 한국사람 236,045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는데, 그 중에서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이 67.5%로 한국 여성과 외국인 남성의 결혼 32.5%(76,722건)에 비해 2배 이상 많았다. 한국남성과 외국인 여성의 결혼에서 발견되는 중요한 특징은 과거 일본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였지만, 1990년대 중반 이후 중국 여성이 대신하게 되었으며, 2000년 이후 베트남과 태국을 비롯한 동남아시아 여성들이 중국 여성 다음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다른 한편, 한국여성이 선택하는 결혼 배우자로서 외국 남성은 일본과 미국사람이 다수를 차지하다가 최근 중국 국적의 남성(조선족)이 다수를 차지하였고, 동남아 남성 또한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표 1> 한국사회 국제결혼 추이, 1991-2005

단위: 명

구분 년도	한국남자 + 외국여자					한국여자 + 외국남자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계	일본	중국	미국	기타
1991	663	224	106	232	101	4,349	2,297	156	1,680	216
1992	2,057	1,223	429	249	156	3,477	1,747	137	1,335	258
1993	3,109	826	1,851	230	202	3,436	1,818	185	1,127	306
1994	3,072	561	2,043	227	241	3,544	1,978	141	1,109	316
1995	10,365	1,412	8,450	188	315	3,129	1,751	207	891	280
1996	12,647	2,370	9,271	228	778	3,299	1,789	191	965	354
1997	9,266	1,075	7,362	213	616	3,182	1,670	151	902	459
1998	8,054	1,004	4,688	1,514	848	4,134	1,818	514	981	821
1999	5,775	1,248	2,883	280	1,364	4,795	2,649	234	1,190	722
2000	7,304	1,131	3,586	235	2,352	5,015	2,941	218	1,095	761
2001	10,006	976	7,001	265	1,764	5,228	3,011	222	1,132	863
2002	11,017	959	7,041	267	2,750	4,896	2,377	272	1,210	1,037
2003	19,214	1,242	13,373	323	4,276 <sup>1)</sup>	6,444	2,613	1,199	1,237	1,395
2004	25,594	2,462	18,527	344	4,261 <sup>2)</sup>	9,853	3,378	3,621	1,348	1,506
2005	31,180	1,255	20,635	285	9,005 <sup>3)</sup>	11,941	3,672	5,042	1,413	1,814
합 계	159,323	17,968	107,246	5,080	29,029	76,722	35,509	12,490	17,615	11,108

1) 베트남 1,403, 필리핀 944, 태국 346, 우즈베키스탄 329, 몽고 318, 러시아 297, 기타 639

2) 베트남 2,462, 필리핀 964, 몽골 504, 태국 326, 러시아 318, 우즈베키스탄 247, 기타 678

3) 베트남 5,822, 필리핀 997, 몽골 561, 태국 270, 러시아 236, 기타 1,119  
자료 : 박재규(2005); 통계청(2006)

이상과 같이 최근 한국사회에서 국제결혼 여성화가 지배적인 현상으로 나타난 것은 국내 지역 간 성비 불균형에 따른 농촌지역 노총각 증가, 한국여성의 결혼에 대한 가치관 변화와 배우자 선택의 차별성 등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한국염, 2004).

농촌지역의 성비 불균형 현상은 남녀 차별적인 도시이주에서 비롯되었다. 즉 1960년대 이후 정부가 추진한 지역간 불균형 산업화 정책은 농촌 남녀인구의 차별적인 도시이주를 촉발시켰다. 예를 들면, 농촌여성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이주하여 농촌으로 되돌아오지 않고 도시지역에 정착한 반면, 농촌남성은 농업에 의한 정주기반을 갖게 되거나 혹은 도시이주를 기피하면서 농촌에 계속 머물게 되었다. 그러나 농촌지역의 사회, 문화, 경제적 저발전으로 도시여성은 정주공간으로서 농촌지역을 기피하였고, 그 결과 농촌지역 청장년층 남성인구는 상대적으로 증가하였다.<sup>4)</sup> 예를 들면, 1985년 농촌지역 전체 남성인구 가운데 25-50세 남성이 58%를 차지하여 같은 연령대 여성인구의 29.8%에 비해 1.95배 정도 많았지만, 2000년에 남녀인구가 각각 49.8%와 19.0%를 차지하여 그 차이가 2.62배로 오히려 확대되었다(통계청, 2005). 더욱이 여성의 경제활동이 증가하면서 여성은 과거 관습적인 결혼보다 사회활동을 통한 자아실현을 선호하게 되었고, 결혼에 따른 경력단절을 우려하는 여성의 경우 결혼을 기피하거나 혹은 늦추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농촌지역 남성의 경우 국내적으로 여성 배우자를 만나기 어렵게 되면서 그 탈출구로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 그런 의미에서 농촌남성의 국제결혼 선택은 한국사회가 만들어 낸 '내부적 모순'을 외적 자원을 통해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기 때문에 그 내부적 모순이 해소되지 않을 경우 지속될 수밖에 없을 것이며, 앞에서 언급하였듯, 통계청 추정에 의하면 한국사회 국제결혼은 계속 증가하여 2020년 국내 전체 결혼구성에서 32%를 정점으로 지속될 것이라고 한다(통계청, 2006). 한국사회 국제결혼이 이처럼 향후 증가할 수 있는 또 다른 주요 원인은 한국경제의 구조적 변화이다. 즉 기업의 구조조정 및 고용전략 변화에 의한 노동자의 비정규직화는 고용불안과 함께 노동자의 경제적 빈곤을 가중시켰고, 그 결과 일부 남성은 한국여성과의 결혼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서 배우자 선택 전략으로서 결혼비용이 상대적으로 저렴한 국제결혼을 선택하고 있다.<sup>5)</sup>

이처럼 여러 가지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한국사회 국제결혼이 증가하고 있지만 그 실태 파악에 대한 한국사회 노력은 매우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 한국사회의 국제결혼에 대한 관심은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그 자녀의 적응문제가 사회적으로 부각되면서 시작되었다. 그렇지만 국제결혼 이주여성에 대한 정부의 실태 파악은 여전히 그 정확성에 있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여성부 및 농림부는 법무부 자료를 바탕으로 국내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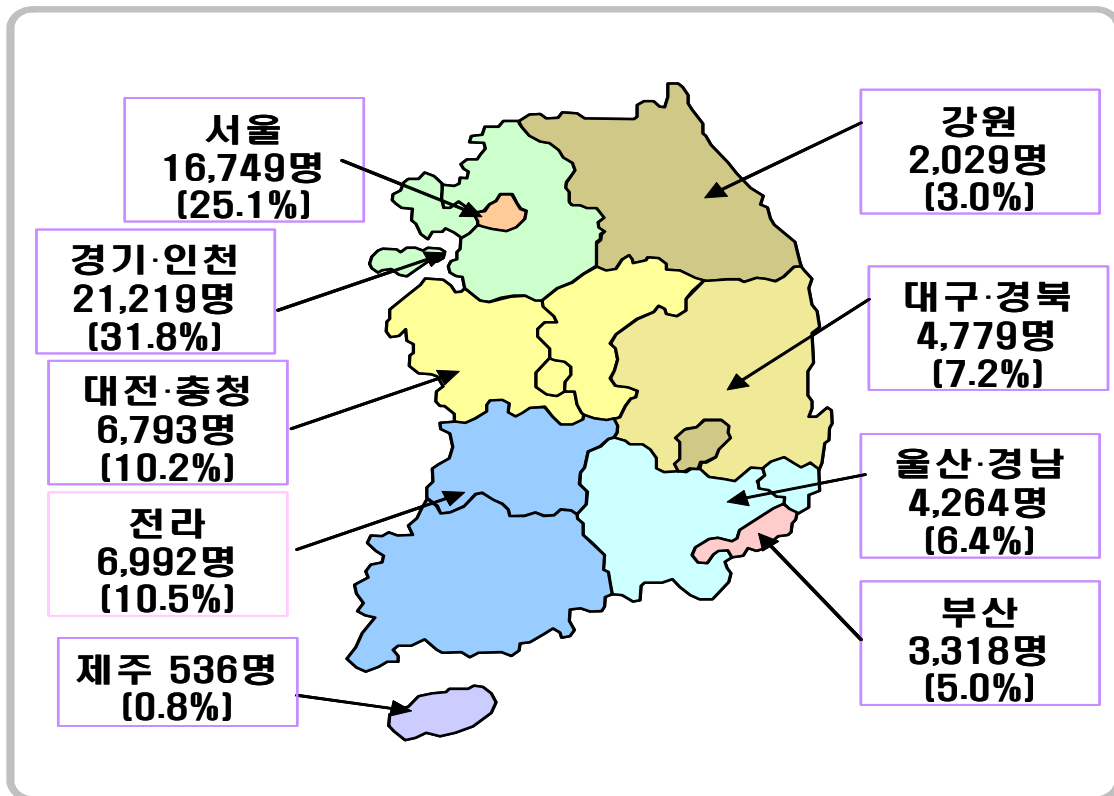
4) 예를 들면, 전북지역에서 산업화와 도시화가 상대적으로 진척된 전주와 익산, 군산지역의 경우 15세 이상 미혼 남성이 미혼여성에 비해 약 10% 정도 많았지만, 농촌지역의 경우 미혼남성이 미혼여성보다 2배 이상 많았다(전라북도, 2003).

5) 예를 들면, 한국여성과의 결혼하는데 약 5천만원 이상이 소요되지만, 제3세계 여성과의 결혼할 경우에는 1천만원 정도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한국염, 2004).

지역 체류 실태를 발표하였다. 즉 법무부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규모는 66,659명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농림부, 2006; 여성가족부, 2006). 그런데 법무부 자료에는 한국 국적을 취득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제외되고 있어 그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는 한계가 있다. 다른 한편, 2006년 3-4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파악하고 있는 국내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65,234명으로 법무부 자료에 비해 다소 적은 수치이다(행정자치부, 2006년 내부자료).

아래 <그림 1> 자료에 의하면, 국내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66,659명 가운데 경기도와 인천 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31.8%로 전체의 1/3 정도를 차지하였고(경기도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16,939명에 25.4%를 차지하여 서울보다 약간 많음), 그 다음으로 서울이 25.1%를 차지하였다. 이처럼 서울을 비롯하여 경기 인천지역에 거주하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56.9%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반면에 충청남도과 전라북도는 각각 3,036명(4.55%)과 2,819명(4.23%)을 차지하고 있다.

<그림 1> 국제결혼 이주여성 66,59명의 국내 지역별 체류 현황('05.12 기준)



자료 : 여성부(2006)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수에 대한 실태 파악은 더욱 제한적이다. 즉 최근 행정자치부가 파악한 내부자료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전체 자녀 수는 2006년 현재 25,246명이라고 한다. 그런데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수 증가율은 한국사회 평균

보다 높기 때문에 2020년에 그 수가 167만명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통계청은 추정한다(통계청, 2006; 중앙일보, 2006). 25,246명의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자녀 가운데 2006년 현재 초·중·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학생은 7,998명(초등학교 85%, 중학교 11.6%, 고등학교 3.5%)으로 2005년 6,121명에 비해 30.6% 증가하였다(교육인적자원부, 2006).

그리고 <표 2>에 의하면,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 가운데 충남과 전북은 각각 1,661명(6.58%)과 1,407명(5.57%)을 차지하여, 국제결혼 이주여성 비율(각각 4.55%와 4.23%)에 비해 두 지역 모두 약간 많았다. 두 지역에서 이주여성 가정 자녀의 학교 등록 현황을 살펴보면, 충남의 경우 1,613명의 자녀 가운데 32.7%(533명)가 재학 중인 것으로 나타났고,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이 77.5%를 차지한 반면 중학교와 고등학교 이상이 각각 6.2%와 16.3%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전북의 경우는 1,407명의 자녀 가운데 52.5%(739명)가 재학 중에 있으며, 이들 가운데 초등학교 학생이 92.3%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중학교 및 고등학교 이상 학생은 각각 6.2%와 1.5%를 차지하였다.

<표 2> 충남과 전북지역 거주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그 자녀의 학교등록 현황 비교

단위: 명, %

내 용	충청남도	전라북도
국제결혼 이주여성	3,036(4.55 - 전국 대비)	2,818(4.23 - 전국 대비)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 자녀	1,613(5.58 - 전국 대비)	1,407(5.57 - 전국 대비)
학교 재학생	533(100.0)	739(100.0)
초등학교	413(77.5)	682( 92.3)
중학교	33( 6.2)	46( 6.2)
고등학교 이상	87(16.3)	11( 1.5)

자료 : 교육인적자원부(2006), 충청남도 및 전라북도 내부자료(2006)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적응 및 자녀의 학교적응 문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적응은 몇 가지 측면에서 구조적으로 한계를 갖고 있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의사소통의 어려움과 그에 따른 한국문화에 대한 이해 부족이다. 조선족이나 특정 종교의 매개에 의한 국제결혼 여성을 제외한 다른 국적의 여성은 한국어를 배울 기회조차 없이 한 두 차례의 만남으로 결혼이 이루어지고 있다(박재규·이윤애,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의사소통 문제는 한국의 가부장제적 성문화 및 가족관계를 이해하는데 걸림돌로 작용하는 동시에 남편이나 가족원과의 대화를 기피하게 만들어 스스로를 고립시켜 부부갈등이나 가족갈등으로 이어져 결국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 더욱이 '위장결혼'에 대한 가족원의 우려는 이주여성의 외부활동에 대한 제약으로 이어지면서 국내생활 적응에 필요한 한국어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마저 박

탈하고 있으며, 외부지원 네트워크 형성을 가로막고 있다(박재규 외, 2005; 박영의, 2003; 이윤애, 2004). 여기에 우리사회의 이주여성에 대한 편견은 국내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특히 순혈주의를 고집하는 사회적 편견과 타 문화에 대한 몰이해는 동남아시아 국가를 비롯한 제3세계의 여성에 대한 차별이 강하며, 이런 상황에서 남편이나 가족원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외부세계에 노출되는 것을 싫어하게 되어 국내생활 적응을 어렵게 하고 있다.

그리고 한국남성과 결혼하는 외국인 여성 중에는 전통적 개념의 혼인보다 매매혼 성격을 띠고 있어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즉 한국 남성의 경우 국제결혼에 필요한 결혼비용, 선물비, 그리고 신부가족에 대한 재정지원 등 많은 비용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여성 배우자를 평등관계로 인식하기보다 소유물 개념으로 인식하는 성향이 있다(김상임, 2004; 최진영, 2004). 이러한 결과는 인권억압으로 이어져서 배우자 여성에 대한 폭력, 언어 폭언, 외출금지, 의처증으로 발전하면서 결혼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한국염, 2004).<sup>6)</sup> 더욱이 결혼정보업체나 혹은 특정 종교 단체가 추진하고 있는 국제결혼은 부부간의 신뢰관계보다 금전관계 혹은 허위관계에서 출발하고 있어 건강한 결혼생활을 방해하고 있다. 결혼이 신뢰보다 조건으로 이루어지면서 서로에 대한 이해와 교류가 부족하며, 여기에 위장결혼에 대한 우려와 불신으로 국내생활을 어렵게 하고 있다(새전북신문, 2005.1.25; 조선일보, 2004.10.6). 특히 결혼정보업체나 한국남성의 경우 결혼을 성사시킬 목적에서 남성의 그릇된 정보를 제공하거나 혹은 과대포장하기도 한다.<sup>7)</sup> 특히 결혼 적령기를 넘기 농촌 지역 남성의 경우 40대가 대부분이지만 외국여성은 대부분 20대 중반으로 그 연령 차이가 매우 심하다.<sup>8)</sup> 여기에 국제결혼이 매우 신속하게 진행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예를 들면, 외국 여성을 신부로 선택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채 2-3일에 불과하며, 맞선을 보고 결혼까지 5-6일로 매우 짧아 국제결혼이 처음부터 사랑보다는 조건이 중시되는 한계에 있기 때문에 국내생활 적응과정에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다(새전북신문, 2005.1.25; 조선닷컴, 2005.3.21).

이상과 같이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인해 국내생활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박재규, 2006). 그런데 이주여성의 국내생활 부적은 문제는 자신의 문제로 끝나지 않고 바로 그 자녀의 한국어 습득문제를 비롯하여 지능발달에도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경제적 빈곤에 시달리는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의 교육을 지원하지 못함에 따라 궁극적으로 자녀의 인적자본 축적이 부족하게 되어 사회적 부적응에 직면할 가능성도 높다(이봉주, 2006; Mayer, 1997). 더욱이 한국사회의 강한 단일민족 의식은 피부색이나 외모가 다른 외국인, 특히 제3세계 국가 외국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투영되고 있어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경우 학교생활과정에서 급우들로부터 따돌림이나 차별을 당할 가능성도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이런 문제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부족할 뿐만 아니라 정부의 정책적 지원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6) 이러한 사례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상담기관에 호소하는 상담에 잘 나타나 있다. 예를 들면, ‘너는 내가 돈 주고 사왔으니 내 맘대로 할 수 있다’든지, 혹은 마음에 들지 않을 경우 나가라고 하거나 팔아 버리겠다는 말로 협박하는 경우가 흔하다고 한다.

7) 예를 들면, 농촌에서 농사를 지을 경우 대규모 영농인으로 포장하거나 건설현장의 일용노동자를 건설업 운영자로, 트럭 야채상을 엔지니어로 속이기도 한다(조선닷컴, 2005.3.21).

8) 이주여성인권센터 김민정 사회복지사에 의하면, “극단적으로 64세의 한국남성이 19세 동남아 여성을 신부로 맞는 경우도 있다”고 한다(조선닷컴, 2005.3.21)



### 3. 자료분석

#### 1) 응답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본 연구에서 주요 분석 대상인 국제결혼 이주여성 328명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변수로 국내 거주기간, 현재의 연령, 교육수준, 종교, 국적, 배우자와의 만남 등을 중심으로 살펴보았고, 그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의 경우 5년 이하인 여성이 24.7%로 적었는데 그 주요 이유는 본 연구가 만3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기 때문이다. 반면에 6-9년 거주한 여성과 10년 이상 거주한 여성이 각각 39.9%와 35.4%로 비슷하게 많았고, 그 결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 거주기간이 8.6년으로 길게 나타났다.

다음으로 이주여성의 현재 연령을 보면, 20대가 9.5%로 적은 반면 30대 초반과 30대 후반이 각각 33.5%와 31.4%로 다수를 차지하였으며, 40대 이상 또한 25.4%를 차지하여 비교적 많았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평균 연령을 높이는 효과로 이어졌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학력수준 분포에 의하면, 고등학교 학력을 가진 사람이 47.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그 다음으로 전문대학과 대학교 이상이 각각 20.7%와 17.4%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중학교 이하의 학력을 가진 이주여성은 14.0%로 비교적 적었다.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국 분포를 살펴보면, 조선족, 일본, 필리핀 이주여성이 각각 39.8%, 31.5%, 26.9%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기타의 경우가 1.8%로 매우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분명 최근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 추이와 비교할 경우 큰 차이를 보이지만, 본 연구가 최근 결혼한 이주여성의 겨우 자녀가 없거나 혹은 있더라도 어리기 때문에 분석에서 제외시켰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종교 실태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76%가 종교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한국사회의 종교 분포와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결혼이 종교를 매개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특히 종교를 갖고 있는 여성 가운데 통일교가 44.6%로 다수를 차지하였고, 개신교와 기독교 여성이 16.4%, 불교 및 원불교의 경우 6.2%, 그리고 기타 종교가 9.0%를 차지하였다. 반면에 종교가 없는 여성은 23.8%를 차지하였다.

끝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한국인 남성 배우자를 어떤 통로를 통해 만나게 되었는지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전체 응답자 가운데 무려 54.9%가 종교기관의 소개로 만났고, 지인이나 가족의 소개를 통해 배우자를 만난 여성도 각각 19.2%와 14.0%를 차지하였고, 결혼정보업체의 주선을 통해 배우자를 만난 경우는 6.1%를 차지하였다. 그리고 행정기관의 주선이나 혹은 남녀 당사자끼리 직접 만난 경우는 각각 3.0%와 1.8%를 차지하였다.

<표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인구-사회학적 특성

단위 : 명, %

변 수	범주	빈도	비율	변 수	범주	빈도	비율
국내 거주기간 (평균 = 8.64년)	3-5년	81	24.7	연령 (평균 = 36.0세)	29세 이하	31	9.5
	6-9년	131	39.9		30-34세	110	33.5
	10년 이상	116	35.4		35-39세	103	31.4
	합 계	328	100.0		40세 이상	84	25.6
					합 계	328	100.0
교육수준	중학이하	46	14.0	출신 국적	일 본	103	31.5
	고등학교	157	47.9		조선족	130	39.8
	전문대학	68	20.7		필리핀	88	26.9
	대학교이상	57	17.4		기 타	6	1.8
	합 계	328	100.0		합 계	327	100.0
배우자 만남	가족의 소개	46		종교	종교 없음	77	23.8
	지인의 소개	63			개신교와 기독교	53	16.4
	결혼정보업체 소개	20			불교와 원불교	20	6.2
	행정기관의 주선	10			통일교	144	44.6
	종교단체의 소개	180			기 타	29	9.0
	직접 배우자 만남	6			합 계	328	100.0
	기 타	3					
	합 계	328	100.0				

한국남성이 배우자로 선택하고 있는 외국인 여성의 국적이 결혼시점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표 4>에 의하면, 1990년대 초반까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신 국가로는 일본 국적 여성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조선족 여성도 높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1990년대 중반 이후 조선족 여성이 크게 증가하는 한편 필리핀 여성 또한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반면에 2000년 이후에는 필리핀 여성을 비롯하여 기타 국적 여성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을 보이고 있어 이들 국적 여성이 최근 증가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물론 조선족의 경우 국제결혼 이주여성 전체 규모에서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관계로 2000년 이후에도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표 4>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적별 결혼 시점 분석

단위 : %, 명

국적 결혼 시점	일본	필리핀	조선족	기 타	합 계	
					비율	빈도
1995년 이전	68.9	6.8	30.0	0.0	35.5	116
1995 -1999	29.1	48.9	42.3	33.3	39.8	130
2000년 이후	1.9	44.3	27.7	66.7	24.8	81
합 계	100.0	100.0	100.0	100.0	100.0	327

## 2)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 실태 분석

<표 5>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점에 따른 자녀 실태를 분석한 것이다. 분석결과 해석에 앞서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인 328명의 이주여성 가정의 평균 자녀 수는 2.2명으로 나타났고, 특히 3명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도 31.4%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이주여성의 결혼시점에 따른 자녀 수 분석에 의하면, 최근 결혼한 경우 자녀 수가 적은 반면 오래 전에 결혼한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가 많았다. 예를 들면, 1명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2000년 이후 결혼한 사람이 30.9%로 1995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 14.7%에 비해 2배 정도 많았다. 반면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이주여성 가정의 경우 1995년 이전에 결혼한 사람이 48.2%로 최근 결혼한 이주여성 가정의 11.1%에 비해 3배 이상 많았다.

<표 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결혼시점과 자녀 실태 분석

단위 : %, 명

결혼 시점 자녀 수	1995년 이전	1995-2000년	2000년 이후	합 계	
				비율	빈도
1명	14.7	13.7	30.9	18.3	60
2명	37.1	57.3	58.0	50.3	165
3명 이상	48.2	29.0	11.1	31.4	103
합 계	100.0	100.0	100.0	100.0	328

\* 평균 자녀 수 = 2.2명

다음으로 본 연구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출산과정에서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 검토해 보았는데 그 결과는 <표 6>과 같다. 출산과 관련하여 병원을 찾아가거나 진찰을 받고 이해하는 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은 이주여성은 35-40%를 차지한 반면 60-65% 정도는 어려움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남편이나 가족이 이주여성의 출산과 관련하여 도움을 주었기 때문이다.<sup>9)</sup> 반면에 출산행위와 관련하여 어려움을 겪었던 이주여성의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열악하거나 외부 교육이나 모임참여와 관련하여 가족의 지지를 적극적으로 받지 못한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박재규 외, 2005). 다른 한편, 출산 이후 산후조리 및 자녀 돌봄에 있어서 이주여성의 40-50% 이상이 어려움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주여성 가정 또한 한국사회 다른 가정과 같이 이주여성 혼자서 담당해야 하는 몫으로 남아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9) 328명의 이주여성 출산과정 분석에 의하면, 출산과정에서 남편 혹은 가족의 도움을 받았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었다고 응답한 이주여성이 62.2%를 차지하였다.

<표 6>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출산 관련 행위의 어려움 분석

단위 : 명, %

어려움 정도 출산 관련 행위	어렵지 않음	약간 어려움	많이 어려움	합 계	
				비율	빈도
병원 가는 어려움	66.5	23.5	10.1	100.0	328
진찰 행위 어려움	65.5	23.5	11.0	100.0	328
진찰 이해 어려움	58.8	30.2	11.0	100.0	328
산후 조리 어려움	47.6	35.1	17.4	100.0	328
자녀 돌봄 어려움	38.7	43.6	17.7	100.0	328

<표 7>은 전북발전연구원 원자료 가운데 초등학교 미만 자녀를 두고 있는 345명 이주여성 가운데 3세 이하의 자녀를 두고 있는 177명의 여성과 4-7세 자녀를 두고 있는 168명 여성을 대상으로 자녀를 어떻게 돌보고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먼저 3세 이하 자녀의 돌봄에 있어 이주여성 응답자 가운데 62.8%가 본인 및 가족에 의해 집에서 돌보는 것으로 나타났고, 15.8%와 9.0%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었으며, 그밖에 이웃이나 아는 사람에게 자녀를 맡긴 경우는 12.4%를 차지하였다.

다른 한편, 4-7세 자녀의 경우 이주여성 응답자의 34.5%가 여전히 본인이나 가족 등 집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다. 그리고 보육시설이나 유치원(학원포함)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경우는 각각 25.6%와 32.1%를 차지하였으며, 그밖에 이웃이나 아는 사람을 비롯하여 기타 범주에 속하는 여성이 7.8%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국 가족실태조사(여성부, 2004)에 나타난 결과와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전국 가족실태조사에 의하면 4-7세 자녀를 두고 있는 가정의 경우 자녀를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14.2%에 불과하였고, 나머지의 경우 유치원(34.3%), 어린이집(25.7%), 학원(21.8%) 등 외부 교육기관에 보내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매우 높았다.

<표 7>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돌봄 실태 분석

단위 : 명, %

자녀를 돌보는 사람	3세 이하 자녀		4-7세 자녀	
	빈도	비율	빈도	비율
본인 및 가족	111	62.8	58	34.5
보육 시설	28	15.8	43	25.6
유치원	16	9.0	54	32.1
기 타	22	12.4	13	7.8
합 계	177	100.0	168	100.0

다음으로 본 연구는 자녀의 돌봄 형태가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였는데, 그 결과는 <표 8>과 같다.

먼저 자녀의 돌봄 유형에 있어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경우는 이주여성의 국적과 가정경제 생활 수준으로 나타났고, 국내 거주기간이나 한국어 사용능력에 있어서는 차이가 유의미하지 않았다.

국제결혼 이주여성 국적의 경우 조선족 여성은 다른 국적의 여성에 비해 자녀를 집에서 돌보거나 혹은 놀게 하는 경향이 있고, 반면에 일본 국적의 여성과 필리핀 국적 이주여성은 보육 시설이나 유치원에 맡기는 비율이 조선족에 비해 약간 높게 나타났다.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가정경제생활에 따른 자녀 돌봄 유형의 차이를 보면, 경제적으로 어려운 경우 본인이나 가족이 자녀들 돌보고 있었다. 예를 들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의 여성일수록 자녀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반면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여성은 보육시설 및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한글 능력과 관련해서 흥미로운 것은 한글능력이 우수하거나 혹은 열악한 여성의 경우 가정에서 자녀를 돌보고 있었는데 이러한 경우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높은 경우 스스로 자녀를 돌볼 수 있지만 반대로 한글능력이 열악한 경우는 오히려 외부 기관에 자녀를 맡기지 못하는 것 때문이 아닌가 한다. 반면 한글능력이 보통인 여성은 보육시설이나 혹은 유치원에 자녀를 보내고 있었다.

<표 8>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 돌봄 차이 분석 단위 : %, 명

변수 및 범주		자녀 돌봄	본인 및 가족	보육시설	유치원	기 타	합 계	
							비율	빈도
거주기간	5년 이하		39.7	21.9	24.7	13.7	73	100.0
	5-9년		34.5	24.1	31.9	9.5	116	100.0
	10년 이상		40.3	28.4	19.4	11.9	67	100.0
국적	일 본		39.2	32.4	23.0	5.4	74	100.0
	필리핀		24.4	20.5	34.6	20.5	78	100.0
	조선족		45.9	21.4	23.5	9.2	98	100.0
	기 타		50.0	33.3	16.7	-	6	100.0
가족경제 생활	부 유		32.7	30.8	25.0	11.5	52	100.0
	보 통		35.1	23.9	30.6	10.4	134	100.0
	빈 곤		45.7	21.4	20.0	12.9	70	100.0
한국어 능력	우 수		40.3	21.7	26.4	11.6	129	100.0
	보 통		29.0	32.3	25.8	12.9	62	100.0
	열 악		40.0	23.1	27.7	9.2	65	100.0

### 3)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교육 실태 분석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양육과 관련하여 본 연구는 우선 이주여성과 자녀간의 대화가 어느 정도 가능한지, 자녀의 학습에 도움을 어느 정도 주고 있는지, 자녀교육을 도와주는데 겪는 어려움, 그리고 자녀의 학교생활에서 따돌림 경험 등을 분석하였다.

<표 9>는 국제결혼 이주여성과 자녀간의 대화 어려움과 그 어려움이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우선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운데 41.0%가 자녀

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많은 이주여성이 한국어 사용에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다음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여부는 이주여성의 국적, 한국어 사용 능력, 외부모임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 부부생활만족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면,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필리핀과 일본 국적 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열악한 여성, 외부모임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에 불만족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이나 연령, 가족생활 수준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 어려움 차이는 유의미하지 않았다. 특히 국내 거주기간의 경우 거주기간이 짧은 이주여성일수록 자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지만 그 차이가 크지 않았는데 그 원인은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만3세 이상의 자녀를 두고 있는 이주여성에 제한하였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주여성 연령의 경우 20대 혹은 40대 이상 이주여성이 30대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9>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대화 어려움 분석 단위 : %, 명

변 수	자녀대화의 어려움 범 주	어렵지 않음	어려움 느낌	합 계		카이자승 검증
				비율	빈 도	
거주기간	5년 이하	52.5	47.5	100.0	80	$\chi^2 = 2.11$ $p > .05$
	5-9년	59.7	40.3	100.0	129	
	10년 이상	62.8	37.2	100.0	113	
국적	일 본	44.0	56.0	100.0	100	$\chi^2 = 77.53$ $p < .001$
	필리핀	32.9	67.1	100.0	85	
	조선족	87.7	12.3	100.0	130	
	기 타	50.0	50.0	100.0	6	
연령	20대	56.7	43.3	100.0	30	$\chi^2 = 4.62$ $p < .05$
	30대 초반	63.6	36.4	100.0	110	
	30대 후반	62.4	37.6	100.0	101	
	40대 이상	49.4	50.6	100.0	81	
가족경제 생활	부 유	54.1	45.9	100.0	61	$\chi^2 = .80$ $p > .05$
	보 통	59.6	40.4	100.0	171	
	빈 곤	61.1	38.9	100.0	90	
한국어 능력	우 수	79.5	20.5	100.0	161	$\chi^2 = 57.03$ $p < .001$
	보 통	42.4	57.6	100.0	85	
	열 악	34.2	65.8	100.0	76	
모임참여 가족지지	적극 지지	65.9	34.1	100.0	129	$\chi^2 = 8.5$ $p < .05$
	보 통	52.6	47.4	100.0	133	
	지지 부족	51.3	48.7	100.0	60	
부부생활 만족수준	만 족	68.1	31.9	100.0	138	$\chi^2 = 10.6$ $p < .01$
	보 통	56.6	43.4	100.0	113	
	불 만 족	45.1	54.9	100.0	71	
합 계		59.0	41.0	1000	322	

다음으로 <표 10>은 국제결혼 이주여성이 자녀의 학습과 관련하여 지원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개인적 특성에 따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인데, 전체 응답자 가운데 1/3 정도는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고 응답하였다. 반면에 전체 응답자 가운데 30.8%는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자녀학습 지원에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고, 23.7%는 학생의 숙제가 이해하기 어려워 자녀학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타 범주에 속한 이주여성은 12.2%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자녀 학습지원 실태는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 거주기간을 비롯하여 국적, 연령, 한국어 능력, 그리고 자녀 대화의 어려움 정도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예를 들면, 자녀의 학습지원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길고, 조선족이거나, 30대 연령층, 한국어 능력이 우수하거나 혹은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주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많았다. 반면에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자녀학습을 지원하지 못하는 이주여성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거나 필리핀 국적의 여성, 20대 연령의 여성, 한국어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여성, 그리고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표 10>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이주여성의 자녀 학습지원 실태      단위 : %, 명

변 수	학습지원 문제점 범 주	한국어 어려움	과제 어려움	어려움 없음	기 타	합 계		카이자승 검증
						비율	빈 도	
거주기간	5년 이하	44.4	16.7	25.9	13.0	100.0	54	$\chi^2 = 16.67$ $p < .01$
	5-9년	33.1	24.6	36.4	5.9	100.0	118	
	10년 이상	21.5	26.2	33.6	18.7	100.0	107	
국적	일 본	23.9	30.4	31.5	14.1	100.0	92	$\chi^2 = 71.80$ $p < .001$
	필리핀	58.4	29.9	6.5	5.2	100.0	77	
	조선족	16.2	14.3	53.3	16.2	100.0	105	
	기 타	40.0	-	60.0	-	100.0	5	
연령	20대	61.9	9.5	28.6	-	100.0	21	$\chi^2 = 29.3$ $p < .001$
	30대 초반	29.9	21.8	37.9	10.3	100.0	87	
	30대 후반	24.5	17.0	40.4	18.1	100.0	94	
	40대 이상	31.2	37.7	20.8	10.4	100.0	77	
가족경제 생활	부 유	34.5	23.6	36.4	5.5	100.0	55	$\chi^2 = 7.45$ $p > .05$
	보 통	29.4	28.0	30.1	12.6	100.0	143	
	빈 곤	30.9	16.0	37.0	16.0	100.0	81	
한국어 능력	우 수	17.8	18.5	48.1	15.6	100.0	161	$\chi^2 = 42.69$ $p < .001$
	보 통	36.3	33.8	22.5	7.5	100.0	85	
	열 악	51.6	21.9	15.6	10.9	100.0	76	
모임참여 가족지지	적극 지지	27.1	23.7	33.9	15.3	100.0	118	$\chi^2 = 9.43$ $p > .05$
	보 통	28.7	21.3	38.0	12.0	100.0	108	
	지지 부족	43.4	28.3	22.6	5.7	100.0	53	
부부생활 만족수준	만 족	21.7	25.0	39.2	14.2	100.0	120	$\chi^2 = 10.98$ $p > .05$
	보 통	35.0	24.0	32.0	9.0	100.0	100	
	불 만 족	42.4	20.3	23.7	13.6	100.0	59	
자녀대화	어렵지 않음	17.8	20.9	46.6	14.7	100.0	163	$\chi^2 = 45.44$ $p < .001$
	어려움 느낌	48.7	28.3	14.2	8.8	100.0	113	
합 계		30.8	23.7	33.3	12.2	100.0	277(9)	-

그리고 <표 11>은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학교생활 적응과 관련하여 학교동료로부터 따돌림 경험 여부와 따돌림을 당한 경우 그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그 결과에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석한 것이다.

먼저 국제결혼 이주여성 자녀의 따돌림 경험 분석에 의하면, 응답자의 자녀 가운데 73.3%는 학교생활과정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적이 없는 반면 26.7%는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돌림의 원인분석에 의하면, 11.3%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그리고 5.7%와 4.7%는 각각 외모 차이와 언어 소통 어려움 때문에 자녀가 따돌림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한편,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학교생활 따돌림 실태 차이분석에 의하면, 이주여성의 국적과 가족생활 수준, 한국어 실력, 자녀대화의 어려움 여부, 자녀학습 지원 등에 따라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고 있었다. 예를 들면, 학교생활에서 자녀가 따돌림을 경험하지 않은 경우는 조선족 국적이나 기타 국적의 이주여성이, 경제적으로 부유한 생활을 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우수한 여성이, 외부모임 참여시 가족으로부터 적극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여성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자녀의 학습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주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경험한 이주여성의 경우는 3가지 원인으로 검토하였는데, 먼저 외모 차이 때문에 자녀가 따돌림을 받는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 필리핀 국적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여성이, 외부모임 참여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낀 여성과 한국어에 대한 어려움으로 자녀 학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른 한편, 언어적 의사소통 문제 때문에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겪는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여성이, 한국어가 매우 열악한 여성, 자녀와의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거나 과제가 어려워서 혹은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여 자녀 학습을 지원하지 못하는 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았다. 끝으로 엄마가 외국인이라서 자녀가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겪고 있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가정의 여성이, 한국어 실력이 중간 수준이나 혹은 열악한 여성이, 자녀와의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거나 혹은 한국어가 어렵거나 과제가 어려워서 자녀의 학습을 지원하지 못하고 있는 이주여성이 다른 여성에 비해 많았다.



<표 11>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개인적 특성에 따른 자녀의 학교생활 따돌림 실태 분석 단위 : %, 명

따돌림 경험과 원인 변 수	경험 없음	외모 차이	언어 문제	외국인 엄마	기 타	합 계		카이자승 검증	
						비율	빈 도		
거주기간	5년 이하	77.0	8.1	5.4	9.5	-	100.0	74	$\chi^2 = 10.41$ $p > .05$
	5-9년	72.3	6.7	2.5	12.6	5.9	100.0	119	
	10년 이상	72.0	2.8	6.5	6.5	7.5	100.0	107	
국적	일 본	69.8	1.0	9.4	14.6	5.2	100.0	96	$\chi^2 = 74.13$ $p < .001$
	필리핀	46.7	18.7	5.3	22.7	6.7	100.0	75	
	조선족	91.9	1.6	0.8	2.4	3.2	100.0	124	
	기 타	80.0	0.0	0.0	0.0	20.0	100.0	5	
연령	20대	75.0	7.1	3.6	7.1	7.1	100.0	28	$\chi^2 = 6.47$ $p > .05$
	30대 초반	73.8	7.8	1.9	11.7	4.9	100.0	103	
	30대 후반	74.5	4.3	5.3	10.6	5.3	100.0	94	
	40대 이상	70.7	4.0	8.0	13.3	4.0	100.0	75	
가족경제 생활	부 유	76.2	2.4	3.6	11.9	6.0	100.0	55	$\chi^2 = 26.33$ $p < .001$
	보 통	79.5	6.8	3.1	6.2	4.3	100.0	161	
	빈 곤	50.9	7.3	10.9	25.5	5.5	100.0	88	
한국어 능력	우 수	81.2	5.2	2.6	8.4	2.6	100.0	154	$\chi^2 = 16.73$ $p < .05$
	보 통	60.5	9.2	5.3	15.8	9.2	100.0	76	
	열 악	70.0	2.9	8.6	12.9	5.7	100.0	70	
모임참여 가족지지	적극 지지	79.7	2.5	4.2	10.2	3.4	100.0	118	$\chi^2 = 21.73$ $p < .01$
	보 통	73.6	3.2	5.6	11.2	6.4	100.0	125	
	지지 부족	59.6	17.5	3.5	14.0	5.3	100.0	57	
부부생활 만족수준	만 족	78.5	3.8	4.6	8.5	4.6	100.0	130	$\chi^2 = 10.98$ $p > .05$
	보 통	66.3	6.9	5.0	14.9	6.9	100.0	101	
	불 만 족	73.9	7.2	4.3	11.6	2.9	100.0	69	
자녀와 대화	어렵지 않음	80.9	4.5	2.2	7.9	4.5	100.0	178	$\chi^2 = 14.66$ $p < .01$
	어려움 느낌	62.8	7.4	8.3	16.5	5.0	100.0	121	
자녀의 학습지원	한글 어려움	62.7	10.7	5.3	14.7	6.7	100.0	75	$\chi^2 = 22.70$ $p < .05$
	과제 어려움	62.3	3.3	8.2	23.0	3.3	100.0	61	
	어려움 없음	83.3	3.3	2.2	6.7	4.4	100.0	90	
	기 타	81.3	6.3	3.1	3.1	6.3	100.0	32	
합 계		73.3	5.7	4.7	11.3	5.0	100.0	300()	-

#### 4. 연구결과의 요약 및 결론

이상의 분석결과 가운데 중요한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결혼 이주여성 가정의 평균 자녀가 2.2명이며, 3명 이상인 경우도 31.4%로 많았다. 그렇지만 출산과정에서 병원을 찾아가거나 혹은 진찰을 받는데 어려움을 겪는 이주여성은 35-40%를 차지하였고, 특히 출산 이후 산후조리 및 자녀 돌봄과 관련해 어려움을 겪은 여성은 40-50%로 많았다. 그렇지만 상대적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주여성의 경우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을 받은 여성이 다수를 차지하여 이주여성 출산과정에서 남편의 도움 여부가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해 주고 있다.

둘째, 이주여성의 아동(4-7세) 돌봄에 있어 특징은 본인이나 가족에 의해 집에서 돌보는 경우가 상대적으로 매우 높다는 점이고, 일부는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자녀를 맡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녀를 집에서 돌보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조선족 여성이나 가족경제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반면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 이주여성은 자녀를 시설에 맡기는 경우가 많았다.

셋째, 자녀와 대화에 어려움을 느끼는 이주여성이 41.0%를 비교적 많은 편이며,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이나 일본 국적의 여성이, 20대 및 40대 이상 여성이, 한국어 사용에 어려움이 있는 여성이, 외부모임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하는 여성이, 그리고 부부생활에 불만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넷째, 자녀의 학습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을 느끼지 않은 이주여성은 1/3 수준(33.3%)에 불과하였다. 반면 이주여성 2/3 정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었는데, 한국어 사용이 어려워 자녀 학습지원과정에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중에는 국내 거주기간이 짧은 여성이,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20대 여성이, 한국어 능력이 열악한 여성이, 그리고 자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낀 여성이 많았지만, 과제가 어려워 지원하지 못하는 경우는 일본과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40대 이상의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다섯째, 학교생활에서 자녀가 따돌림을 당하지 않았다고 평가한 이주여성은 73.3%인데 반해 이주여성 26.7%는 자녀가 학교생활에서 따돌림을 경험하였다고 평가하였고, 그 주요 원인으로서는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인 경우가 많았고, 그 다음으로 외모 차이나 언어소통 문제가 지적되었다. 특히 엄마가 외국인이기 때문에 자녀가 따돌림을 받았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가정경제생활이 어려운 여성이, 자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그리고 자녀의 학습지원과정에서 한국어 및 과제의 어려움으로 지원하지 못하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외모의 차이 때문에 따돌림을 받았다고 평가한 이주여성 중에는 필리핀 국적의 여성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여성이, 외부모임 참여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를 받지 못한 여성이, 한국어 사용에 있어 문제가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그리고 언어소통 문제로 따돌림을 당한 경우는 일본이나 필리핀 국적 여성이, 경제적으로 빈곤한 여성이, 한국어 사용에 문제가 있거나 혹은 자녀와 대화에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여성이 상대적으로 많았다.

이상의 연구결과로부터 본 연구는 몇 가지 중요한 함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고, 그것을 바탕으로 국제결혼 이주여성 및 자녀 지원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이주여성 가정의 평균 자녀수는 높은 편이지만, 출산과정에서 돌봄에 이르기까지 많은 이주여성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어려움을 겪지 않은 이주여성 대부분은 남편이나 가족의 도움이 있었다고 한다. 그런 의미에서 외국인 여성과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한 남성을 대상으로 배우자 국가의 문화 및 관습을 이해하고 도와주는 것에 관한 교육 프

로그램을 도입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녀의 양육과 관련해서 중요한 요인은 가정경제생활 수준이다. 즉 경제적 빈곤에 처해 있는 이주여성의 경우 자녀를 보육시설이나 유치원에 보내지 못하고 집에서 돌보거나 혹은 혼자 놀도록 놓아두게 되어 자녀의 언어발달을 저해하며, 그것은 또 다시 자녀의 학습발달이나 재능개발 지연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빈곤한 이주여성 가정의 자녀를 지원할 수 있는 ‘특별제도’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셋째, 자녀와의 대화 및 학습지원과정에서 중요한 요인은 바로 이주여성 자신의 한국어 사용능력이다. 즉 이주여성과 자녀 사이에 언어소통이 원활하지 못한 여성이 많고, 그 주요 원인은 바로 이주여성 자신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한국남성과 결혼하거나 혹은 결혼한 외국인 여성이 한국에 입국할 때 ‘한국어 프로그램’ 교육과정에 참여하는 의무조항, 즉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국내입국과정에 일환으로 법제화시킬 필요가 있다. 물론 이 과정에서 가족의 지지도 중요하기 때문에 가족 및 남편이 부분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남편 참여 프로그램도 함께 운영할 필요가 있다.

넷째, 학교생활에서 동료로부터 따돌림을 겪는 이주여성 자녀의 경우 그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엄마가 외국인이거나 혹은 자신의 외모가 다르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또한 의사소통의 문제도 부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따라서 초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단일민족보다 다문화국가(교육인적자원부 추진)를 이해할 수 있는 교육이 추진되어야 하며, 외국인 차별의식을 개선할 수 있는 홍보 캠페인을 국가 차원에서 지속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6. 「보도자료 - 다문화가정 품어 안은 교육지원 대책 발표」(2006.4.28).
- 김민정. 2004. “한국의 이중 문화가정 - 관심 문화적 차이 극복”,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김상임. 2004. “상당사례를 통해 본 한국남성과 결혼한 이주여성의 삶”. 『이주여성 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농림부. 2006. 「국제결혼 농촌가정 지원사업 추진계획 보고안」. 농림부 내부자료.
- 설동훈. 2003.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국내거주 외국인의 성공적 정착 지원정책 토론회』.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설동훈 외,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 실태조사 및 보건복지지원 정책방안』, 보건복지부.
- 박영의. 2003. “상당사례를 통해 본 외국인 여성의 인권”. 『충남 거주외국인 여성을 위한 정책 모색 워크샵』. 충남여성정책개발원.

- 박재규. 2006 “국제결혼 이주여성 농촌생활 적응 관련 요인 분석” 한국농촌사회학회 2006년 춘계 학술대회 발표집.
- . 2005. “국제결혼 이주여성의 농촌지역 정착과 지원방안” 2005년 한국사회학 하계 학술발표문.
- . 2003. 『전북지역 여성농업인의 건강과 복지욕구 연구』,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박재규·이윤애. 2005. 『전라북도 농촌지역 국제결혼 이주여성 정착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전북발전연구원.
- 여성가족부. 2006. 「보도자료 -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의 사회통합 지원대책」(2006.4.26).
- 이금연. 2001. “국제결혼 가정의 현실과 문제”. 『한국 내 이주여성 및 국제결혼 가정의 문제와 대책』. 이주여성인권연대.
- . 2003. “국제결혼과 그 이해 - 실태와 문제점을 중심으로”. 『국제결혼과 여성폭력에 관한 정책제안을 위한 원탁토론회 자료집』, 안양전진상복지관 이주여성쉼터.
- 이봉주. 2006. “통합적, 예방적 아동서비스 모델의 모색 : 경기도 We Start 마을 만들기 사업의 사례연구”. 2006년 한국아동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자료집.
- 이윤애. 2004. 『전북지역 외국인여성 정착 지원방안』. 전북여성발전연구원.
- 이혜경. 2005. “이주의 여성화와 이주여성의 인권”, 아시아이주여성포럼, 「아시아 이주여성 국제포럼」 자료집(2005.9.24-29).
- 전라북도. 2003. 『전북여성통계연보』.
- 최진영. 2004. “국내 거주 이주여성의 삶 들여다보기, 내다보기”.
- 통계청. 2006. 『보도자료』.
- . 2005. 『인구동태조사』.
- 한국염. 2004. “이주의 여성화와 국제결혼”, 『이주여성인권센터 창립3주년 기념 심포지움 자료집』, 이주여성인권센터.
- Castle, S. and Mark J. Miller. 1998. *The Age of Migration : International Population Movements in the Modern World*, New York: Guilford Press.
- Kofman, Eleonore. 1999. "Female 'Birds of Passage' a Decade later: Gender and Immigration in the European Union", *International Migration Review* 33(2):269-299.
- Mayer, S. 1997. *What Money Can't Buy*, Cambridge MA : Harvard University Press.

# 충남 해외이주 결혼가정 정책사례

---

우리가족상담센터

# 충남 해외이주결혼가정 정책사례

윤 애 란 (아산 우리가족상담센터 소장)

여성가족부 통계에 의하면 1990~2005년 사이에 한국 남성과 결혼한 외국여성은 159,942명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05년의 국제결혼은 총결혼건수의 13.6%로 100명 가운데 13명이 외국인과 결혼하였고, 국제결혼중 외국 여성과의 결혼은 72%로 나타났다. 그리고 이런 추세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결혼이민자는 본인 개인의 한국사회 적응과 행복의 문제 뿐 아니라, 한국인 남편과 주변 식구, 그들 자녀의 행복과 직결되는 가족건강이라는 문제와 연결되어 있으며, 지금의 문제는 차후 2세, 3세의 문제로 연결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또한 저출산 문제가 사회적 화두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한국사회의 생존을 위해 미래의 노동력을 출산하고 양육하면서 한국사회의 미래를 이끌어갈 시민을 낳고 기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해, 그리고 한국과 그들 출신 국가의 국제관계와 한국의 국가 이미지를 위해서라도 한국사회에서 인간 존엄성을 지키고 행복한 생활을 하도록 도와 줄 필요가 있다. 이런 일이 사회적 지원기구로서 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의 역할이다.

2006년도에 들어와 아산 결혼이민자 가족지원센터는 결혼 이민자 가족의 필요사항을 먼저 생각하고, 이에 기초하여 각각의 필요사항에 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을 생각하였으며, 최소한 각 부문마다 한두 가지라도 프로그램을 하도록 계획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체계적인 지원이 되도록 유의하고 있다.

## 1. 2006년도 주요 사업

2006년도 우리 상담소에서 시행하고 있거나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다음과 같다.

No	부 문	사 업	사업내용	과 제
1	교육	한국어 교육	모듬교육 - 주2회 (화,목요일 오전10시, 오후3시) 방문교육 - 원거리 희망자 - 주1회 15회 방문교육실시	

		부부 교육	- 년 2회 (각회마다 5번 교육실시) -가정폭력,성폭력, 부부의사소통, MBTI, 자녀양육법	
		생활 예술 문화 교육	- 한국과 자국요리교실 (월1회) - 민속박물관 관람 (년 2회) - 현대생활문화 체험 (월1회) - 한국문화관련 비디오 관람(월1회) (세시명절, 관혼상제, 집들이, 전통절기, 인사법) - 영화, 연극등 관람 (년1회)	국민생활관 조리실  시청 문화공보과
		산업문화교육	-산업체 방문 (년 2회) 코리아나 화장품, 현대자동차	
		제도문화교육	-관공서 방문 (년 2회) -경찰서,병원,1366,보건소,법률구조공단 (방문및 이용방법 설명) -한국교육제도 설명 -국경일 -청와대 & 국회방문(년1회)	
		역사문화교육	- 독립기념관 관람 (년1회) - 공주박물관 관람 (년1회)	
		자원활동가 교육	-여성결혼이민자의 인권 및 다문화이해 - 가정폭력, 성폭력상담원교육 - 가족치료 상담원 교육 - 한글 전문강사교육	
2	상담 및 정보제공	가족 생활상담	- 가정폭력, 부부, 고부간, 자녀	수시
		정보제공	- 일자리, 지원기관,의료, 문화, 경찰, 쉼터	수시
3	활 동	다문화체험활동	- ‘성웅 이순신 축제 참여’(4월말) - ‘노래 배우기’ (월1회) - 시민 마라톤 대회 참여 (10월)	

No	부 문	사 업	사업내용	과 제
4	자조집단	자조집단 육성	- 여성결혼이민자 자조집단 모임 (2월 1회)	
			- 남편들의 모임 (월 1회)	
5	자녀보호	자녀한글교실	-가정방문시나 센터방문시 동행 어린이	
		심리·정서치료	-미술치료와 놀이치료 실시	수시
6	홍 보	홍보 매개체	포스터, 프레카드, 브로셔, 홈페이지, 직접전화연결, 안내문 발송, 지역방송, 지역신문	
7	협의체	협의체구성	경찰서, 보건소, 병원, 1366, 쉼터, 상담소, 아산시청, 국민생활관, 법률구조공단, 고용안정지원센터, 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교육청	
8	간담회	지역간담회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지원에 대한 간담회	10월

## 2. 평가 및 과제 제언

### 가) 성 과

1.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의사소통문제 향상  
의사소통이 향상 됨으로서 자신감 회복, 좀더 발전된 가족관계, 주변인에 대한 두려움이 감소되고 있다.
2. 여성결혼 이민자들의 지지기반이 생김  
지지기반이 생김으로서 가족속에서의 자기위치 찾기와 한국 사회에 대한 안정감과 생활의 활력이 생기기 시작했다.
3. 남편들의 자조모임을 통한 국제결혼의 어려움을 해결  
남편들의 자조모임을 통해서 남편들도 아내에 대한 이해와 자신들의 고충을 함께 나누면서 국제결혼 가정의 공통적인 어려움을 해결하는 지지망이 형성되어 서로 돕고 발전되어간다.



4. 자국민들끼리의 만남과 자조집단 모임을 통해서 상호지지망이 형성  
자국민들끼리의 만남과 자조집단 모임을 통해서 상호지지망이 형성되어 서로의 정보 교환과 안부를 통해 생활의 활력과 버팀목이 만들어져 간다.
5. 결혼이민자 가족들의 관심과 이해  
센터의 여성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배려가 결혼이민자 가족들에게도 영향을 미쳐 가족들의 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이해로 이어지고 있다.
6.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은 결혼이민자의 실태과약을 통한 실질적인 도움으로 연결되고 있다.  
교통이 불편하고 열악한 환경의 이민자들에게는 한글교육은 물론 이민자들의 실질적인 어려움과 환경과약 그리고 가족관계의 구체적인 상담을 통해서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었다.
7. 이민자 가족들의 센터의 이용 증가  
가정방문을 통한 한국어 교육에서는 센터에 대한 친밀감이 생겨서 남편뿐만 아니라 친인척들이 가족간의 문제에 대해서 필요시마다 상담센터를 이용하는 기회가 되었다.
8. 다양하고 전문적인 자원활동가를 통한 다양한 도움을 줄 수 있다.  
본 센터의 자원활동가들의 다양한 교육을 받고 활동함으로써 한글교육뿐만 아니라 가족 치료 상담이 동시에 이루어짐으로써 결혼 이민자들에게 교육, 상담, 친정 부모역할, 멘토 등의 다양한 역할로 결혼 이민자 가족들의 심리·정서적인 실질적 도움이 이루어지고 있다.
  - 가정폭력상담원교육 100시간
  - 가족치료상담원교육 40시간
  - 한글 전문강사교육 26시간
9. 주변 참여자들의 인권의식과 봉사정신 사명감등이 확산된다.  
결혼 이민자들을 위해 봉사 하므로써 인권의식과 봉사정신·사명감등이 확산 되므로써 전문적인 활동가가 창출되었다.
10.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세계와 다문화에 대한 관심이 증가 되었다.  
한글교육을 통해서 우리말을 좀더 구체적이고 체계적으로 배우게 되었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11. 한국사회에 대한 신뢰감과 긍정적인 이미지 형성에 기여하게 되었다.

## 나) 과제 제언

1. 자원활동가들의 전문적인 활동가 교육이 필요하다
  - 한글교육 자원활동가들에게 전문적인 한국어교육 방법을 무료로 배울 수 있는 기회가 필요하다.
  - 단편적이고 제한적인 자원활동가 교육이 아닌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상담, 문화, 위생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2. 지속적인 방문교육이 필요하다.  
교통이 불편한 농촌지역과 가정환경이(경제, 정서, 환경) 열악한 이민자들에게는 지속적인 방문교육이 필요하다.
3. 가까운 거리의 교육받을 장소 필요하다.  
교통이 편리하고 시간상 절약되는 가까운 거리에 이주여성과 가족들이 교육 받을 수 있는 장소가 마련되어야 한다.
4. 가족 이민자들의 가족(부부·부모자녀) 프로그램 필요
  - 가족 이민자들이 서로 친밀해 질 수 있는 가족(부부·부모자녀) 프로그램
  - 가족으로서 행복한 기억 만들어 주기 프로그램
5. 다양한 수준의 한국어 교재 필요
  - 한국어 이해, 구사 수준이 각기 다름
6. 프로그램 참여를 촉진시키기 위해 차량의 지원이 필요하다.
  - 하루 2번 시내버스 운행되는 농촌지역에서는 프로그램 참여 곤란
7. 현실적인 예산 편성 필요
  - 전문 자원활동가 교육비
  - 자원활동가의 수고비
  - 지속적인 한국어 교실운영
  - 이민자 지원센터의 인건비 : 3명은 필요함.(센터장, 사무, 상담 및 프로그램)
  - 재정적으로 취약한 이민자들의 프로그램 참여시 교통비 지급이 필요하다.
  - 가족 이민자들의 가족(부부·부모자녀) 프로그램을 진행할수 있는 실질적인 경비 지원이 필요하다.
8. 국제결혼 가정의 자녀문제
  - 한글 및 한국어 교육
  - 심리 정서적 치유 프로그램 필요

- 학습 도우미
- 학교와 네트워크 : 도움이 필요한 아동에 대한 공동보조

9. 파급효과 확산을 위한 대책

- 가족 캠프
- 공공기관(읍, 면, 동사무소)의 홍보물 부착과 전달 및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센터의 안내가 필요하다.
- 지역 축제 등 지역행사에 참여 배려

# 전북 해외이주 결혼가정 정책사례

---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센터

# 우리는 장수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 <찾아가는민들레교실>을 진행하고 나서 -

이 현 선(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장)

## 1.사업의 필요성

외국인과의 혼인이 계속 늘어서 이미 국제결혼이 한국사회의 일반적인 현상 가운데 하나가 된 가운데 특히, 농촌지역의 국제결혼가정의 증가는 인구감소지역인 농촌지역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인구변동요인 가운데 하나가 되고 있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정을 이루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대부분 아시아지역 출신으로 결혼 이후에도 대부분 한국어와 한국문화가 낯설어서 적응에 어려움을 겪으며 인종차별과 계급차별, 성차별등 복합적 문제에 봉착하게 된다.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국사회의 고유한 농촌지역문제인 사회적 빈곤과 문화적 소외까지 더해져 있으므로, 어려움이 더더욱 가중되는 상황에 내몰려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위해서는 정부차원에서 정책적으로 이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 생활교육 등을 지원하는 것이 필요하다. 농촌총각장가보내기운동이 시작된 지난 10여년동안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급증한 반면 정부차원에서 이루어진 지원이 별로 없었기에 문제가 누적되어가고 있었다.

사실 지난 10여년동안 농촌지역사회의 변동, 여성결혼이민자의 급증과 이에 따른 국제결혼가정 자녀들의 출산과 성장,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권리의식의 변화등이 중첩되면서 이제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포괄적인 대책이 불가피하다. 당연히 한글교육이나 성차별상담이 필수적이지만 이러한 대책들도 단선적이어서 여성결혼이민자가 부딪치고 있는 현실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불가능하다. 단적으로, 한국어와 한글교육문제는 단지 여성결혼이민자의 문제만이 아니라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의 지체와 사회부적응에 대한 우려와 연동되어 고려되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이다.

실제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각종 교육프로그램은 가족들의 협조를 절대적으로 필요로 한다. 농촌지역의 경우 대개 가족들의 협조가 없이는 결혼이민자들은 심지어 한글 교육 기회조차 얻기가 어렵다. 특히, 안정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나 한국생활문화 교육프로그램에 지속적으로 참여하기 위해서는 남편과 시부모등의 가족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여성결혼이민자들도 자녀들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이 더해지는 경우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진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교육은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시행되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가장 먼저 여성결혼이민자가 보유한 자국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되는 것이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존감을 유지하고 가족관계에서 여성결혼이민자와 다른 가족들과의 관계를 개선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이다. 나아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존감과 정체성이 바로 서면 이는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이 교사, 혹은 보조교사가 되어 자녀들을 위해 다문화교육과 이중(한국어와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언어교육, 혹은 삼중(두개의 언어에 영어를 추가)언어교육을 진행할 수 있게 된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족이 대개 사회적 빈곤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요소는 획기적인 상황반전의 동력이 될 수 있다. 아시아 모든 나라의 문화와 언어가 존중되는 풍토 속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와 한국어가 함께 교육되는 과정이 이루어지고 동시에 이러한 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를 포함한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나아간다면 이러한 반전은 충분히 가능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 매우 진취적인 경우가 많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적극적이고 활발한 성격을 적극적으로 살려서 그들이 좌절을 가진 채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핵심이다. 미래의 한국 사회를 다언어에 기초한 다문화주의 사회로 만드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현실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의 한국어 능력이 약간 뒤떨어지는 것과 사회와 학교에서의 사회적 비하 가능성을 완전히 근절할 수 있는 적절한 방법은 별로 없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에게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모국어 - 나아가 한국어와 그 외국어를 매개하는 영어까지 - 를 익히게 해서 다언어, 다문화를 구사하는 인적역량으로 변화시켜서 2세 교육문제도 해결하고, 잠재적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여성결혼이민자 자신도 당당하게 자긍심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현실적인 최선의 대안이다.

그런데, 다문화주의적인 이중-삼중언어교육과 국제결혼가족의 동반교육을 고민한다 해도 충분한 여건이 마련되지 않으면 실행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족들의 경우 체계적이고 양질의 교육프로그램이 마련된다 해도 농사일, 가사, 육아, 교통, 가족관계 등 다양한 문제로 인해 접근하기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과 같은 유형의 체계적인 가정방문교육이 적극적으로 기획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정방문교육은 잘되는 경우 시스템만 갖추면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과 시부모, 자녀를 비롯한 그 가족들에 대한 교육을 동시에 진행할 수 있다. 별로 성과가 없는 경우 적어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이 가족들의 협조아래 진행되도록 만들 수 있고, 농촌지역에서조차 각종 소외에 물려있는 국제결혼가족이 더욱 활력 있게 새로운 가족 관계를 만들어가는 하나의 기회가 된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이 장수지역 100여명의 여성결혼이민자 가운데 종교(통일교)와 문화(조선족)등의 요인으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제외하고 60~70여명의 대상자 가운데 대다수를 만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는다면 여성결혼

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들에게는 큰 변화의 바람이 일 것으로 보인다.

## 2.사업의 목적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하나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교육에서 지켜져야 할 원칙을 정립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드는 것이었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의 원칙을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미봉적인 동화정책이 아닌 문화다원주의의 원칙을 지키는 것 △한글 교육 수준을 넘어서는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한국어 교육으로 나아가는 것 △이들 가정의 자녀를 잠재적 문제집단이 아니라 미래사회의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한 이중-삼중언어교육의 관점을 유지하는 것으로 정리한바 있었는데 이것이 국제결혼가족을 동반하는 교육과정 속에서는 어떤 의미를 가질 것인가가 관심대상이었다. 하나는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실제로 이러한 원칙에 입각한 교육서비스를 장수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가족들에게 제공하여 나타나는 변화를 고찰하고자 하는 것이었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은 매우 단기간만 적용되는 프로그램이어서 실험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이 고려되어야했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다문화주의적인 이중-삼중언어교육의 효과는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는 한국어와 문화에 대한 교육기회가 되는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 외부로의 문화적 소통과 사회적 연대의 창구를 만들어준다. 동시에 다문화주의적인 관점에서 집행되는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은 자신의 모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자존감을 회복시켜주며, 새로운 삶의 의지를 고취하고 가족과 자녀들에 대한 적극적인 대화의지를 북돋는다. △ 여성결혼이민자의 남편과 시부모들에게는 자녀 교육 문제를 매개로 다문화주의적 관점에 입각한 가족관계의 필요성과 기초지식을 접하게 해주며,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문화와 언어에 대한 존중과 태도의 변화를 불러일으킨다. 이중언어-삼중언어교육이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면 국제결혼가족은 새로운 가족전체의 희망을 찾게 된다. △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에게는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가 공존하는 교육환경 속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서비스가 제공된다. 두 개 이상의 언어를 일상적으로 구사하는 경우 한국어의 지체현상은 큰 문제가 되지 않게 되므로 사회적 통합이 오히려 용이해지게 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을 통해 이러한 원칙의 유효성을 확인하고 구체적인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프로그램을 다듬어나가는 것이 가능해진다면 다른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교육프로그램과 상호 연동하여 어떤 방식으로 교육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가 정리될 수 있을 것이다.

### 3.우리가 기대하는 효과

“찾아가는 민들레교실”과 같은 농촌지역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로 체계화되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다양한 교육프로그램의 효과는 배가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족구성원들의 지지 속에서 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할 기회가 많아지기 때문이다. 가정방문교육과 여타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적절하게 결합하여 배치되는 경우 양 프로그램의 효과가 배가된다는 점에 유의해야한다.

특히, “찾아가는 민들레교실”과 같은 가정방문교육은 국제결혼가족의 대외적 개방성을 높여서 문화적, 사회적 소외감을 해소해주는 기능을 수행하며 이는 가족 전체의 자긍심으로 이어진다. 해당가족이 가정방문교육을 수용한다는 것은 특유의 가족문화에서 벗어나 보편적 문화와 가치를 수용하게 될 가능성이 높아짐을 의미한다. 가정방문교육의 교사진이 지닌 교육역량과 설득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국제결혼가정의 개방성과 자긍심은 높아진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 통합을 고려하여 만들어진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방문교육의 효과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사회적 활동반경을 확장하는데 이르는 경우 최대치를 달성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이 진행되는 장수지역의 경우 비교적 체계적인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와 직간접적으로 연관을 가지면서 프로그램이 집행되었기 때문에 상호보완적인 성과를 냈다고 본다. 가정방문교육은 민들레아카데미의 참여자들과의 관계를 긴밀하게 만들고, 가족들과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줬다. 민들레아카데미에 별로 참여하지 못하거나 아예 참석하지 않았던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들도 찾아가는 교육프로그램 속에서 만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장수지역 전체를 포괄하면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에게 닥친 문제점들을 일반화하는데 더 큰 도움이 되었다.

### 4.“찾아가는 민들레 교실”의 사업내용

#### 1)추진과정

삼대원칙(다문화주의, 한국어 교육, 자녀에 대한 이중-삼중언어교육)를 공유한 전문가집단이 총괄적인 책임자그룹을 만들고 역할을 나누었고, 직접상담자집단을 섭외하여 조직한 뒤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소통을 해나가기로 하였다. 10월 29일 예비회의에서부터 10여 차례의 회의를 거쳐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진행팀을 운영하였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주요대상을 “장



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에 신청은 하였지만 이 교육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가정들과 아예 이 교육의 신청조차 하지 못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정으로 정하고, 장수지역의 지리적 환경과 도로조건을 숙지하고 동선을 확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였다. 이는 장수지역이 전형적인 산촌지역이고 도로사정이 좋지 않은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한국어교재는 영어를 매개어로 사용하고 있는 “배우기 쉬운 한국어”(성균관대학교출판부) 1, 2권으로 선택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능력에 따라 1권을 사용할지, 2권을 사용할지를 정하는 것으로 하였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총괄책임자집단이 담당하고, 가족들과의 대화나 상담교육은 직접상담자집단이 담당한다. 자녀교육이 필요한 경우 연령에 맞추어 준비하고 특별히 동화읽기가 필요한 경우 이를 미리 준비하기로 했다. 이때 직접상담자집단의 경우 교육현장에서 의견이 있을 경우 반드시 총괄책임자집단에게 상의하도록 하는 준칙을 정했다. 이는 가족교육과정에서 예기치 못한 상황이 발생했을 경우의 의사결정방식에 대해 미리 예비한 것이다.

사업과정에서 특별히 실행팀의 팀웍과 이를 유지하기 위한 회의를 중시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들이 매우 다양한 불안정요소 앞에 놓여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선 국제결혼 가족 자체가 매우 취약한 사회경제적 기반위에 놓여있고, 당사자, 가족내부, 동네 이웃, 행정기관, 종교기관, 결혼정보회사등 모두가 국제결혼 가족의 안정성을 흔들 수 있는 가능성을 갖고 있다고 보았던 것이다. 이러한 불안정요소들을 재빨리 감지하고 이에 대한 대처방안을 집단적으로 강구할 때라야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안정적 집행이 보다 쉬워지리라고 판단했던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준비는 몇 차례의 위기상황을 벗어나는데 도움을 주었다.

가정방문교육의 경우 방문시 자녀들의 학용품, 과일, 음료수, 우유등을 비롯한 선물을 어느정도씩 사가도록 하였다. 이는 대부분의 국제결혼가족이 비교적 가난하다는 점과 자녀들에 대한 관심을 표명하는데 이름을 외고 불러주면서 함께 놀아주고 공부해주는 것이 교사진에 대해서 호감을 갖게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된다는 점을 고려했기 때문이다. 선물의 일부는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접촉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외부인의 접촉을 경계나 시기대상으로 여길 가능성을 우려하여 경로당이나 마을어른들에게 전달할 것을 고려하였으나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교육이 이루어지는 낮시간에는 농촌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주민들이 동네에 없고, 저녁시간에는 골목길이 어두워서 국제결혼가족만 만나는 일이 많아서 그럴 필요는 많이 발생하지 않았다.

그러나, 애초에 고려했던 대로 가족들, 특히 남편과의 대화를 쉽게 하기 위해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이 함께하는 식사를 하는 것은 적어도 초기에는 매우 절실했다. 국제결혼가족과 함께 식사하는 경우 식사는 ‘공동체성’을 상당히 강화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때 식사는 국제결혼가족과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상당한 부담을 줄 수 있고 이것이 차기 교육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식사장소는 집이 아닌 장수, 장계나 인근의 식당에서 하도록 하였다.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에 정기적으로 참여중인 30여명과 더불어 부정기적으로 참여중인 10여명, 그리고 사실상 참여하지 않고 있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홍보를 시작하고, 소식지를 만들어 배포하였다.

총 8주에 걸친 접촉결과 총 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만났고 이중 31가구가 정기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정기모임이라 할지라도 실제로는 만들어지자마자 곧 마무리해야하는 상황이었지만 매우 짧은 시간동안 이러한 성과를 내기는 매우 힘들었다. 이중 주목할 만한 것으로는 천천과 계남에 만들어진 각 3가구, 산서에 2가구로 만들어진 3개의 지역공부모임이다.

천천과 계남, 산서에 만들어진 지역공부모임의 경우 몇가지의 강점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첫째, 여성결혼이민자 본인들의 소통과 교류와 한국어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진다는 점이다. 둘째, 여러 가정의 자녀들이 모여서 노는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자녀교육의 효율성이 높아지고 동시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자녀교육의 관점이 쉽게 전달된다. 셋째, 이 모임은 남편들의 지원 없이는 구성 자체가 불가능한데, 이 모임을 지원하는 남편들을 매개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지역사회에서의 통합력이 강화된다. 지역공부모임이 만들어지기 시작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주체적인 사회활동을 적극적으로 고려하기 시작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교육이 이루고자하는 목표를 달성해나가는 지표로 해석될 수 있었다.

12월 16일 열린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가족한마당에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여성결혼이민자 가족만도 80여명이 참여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교육과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교육이 동시에 행해지는 교육체계, 즉 가족동반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장수지역의 경우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관심과 태도가 매우 적극적이고 우호적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족들의 인식이 형성되었고,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게 된 것 같다. 특히, 국제결혼가족들의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눈에 뜨게 높아진 것이 주목된다.

<사업추진일정>

시기	사업계획	추진실적
준비기	- 대상자 선정 - 지리 숙지 - 역할분담 및 교재 준비	- 대상자 명단 확보 - 지리 답사 - 팀 구성과 역할분담, 일정 정리
1주	- 계남, 장계지역 방문 - 천천지역 방문 - 계북지역방문	- 계남, 장계, 계북지역에서 17가구 정기 모임 확보
2주	- 정기방문가정외에 장수, 산서지역 방문	- 장수, 산서에서 14가구 정기모임 확보
3주	- 정기방문가정외에 지속적으로 접촉면 적 넓힘	- 계남지역모임 만들어짐(침곡)
4주	- 정기방문 안정화	- 산서지역모임 만들어짐(식천)
5주	- 정기방문 안정화	- 천천지역모임 만들어짐(송천)
6주	- 가족한마당 준비 - 한국어로 글쓰기와 영어등으로 글쓰기 주문 - 발표회에서 소감말하기 주문	- 가족한마당 준비 - 8명이 글을 써움(3명 한글, 5명 영어)
7주	- 찾아가는민들레교실 가족한마당	- 가족한마당 행사(가족80여명 참석)
8주	- 사업결산및 마무리	- 사업 결산

2)사업내용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이 주장하고 있는 △ 한글교육이 아닌 한국어교육 △ 동화정책이 아닌 다문화주의정책 △ 자녀를 잠재적 문제적 집단이 아니라 미래의 국력으로 만들기 위한 삼중언어교육(아버지 나라 언어 한국어와 어머니의 자궁심의 상징언어 모국어, 그리고 사회적 왕따를 극복하는 영어 교육) 정책의 관점을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한글 교육 정도가 아니라 한국어 교육을 받아야 한다. 결혼 이민자 여성들이 가장 힘들고 어려워하는 것은 한국어가 통하지 않는 것이다. 한글은 매우 과학적이고 쉬운 문자여서 여성결혼이민자들도 한글은 비교적 쉽게 읽는다. 그러나 그렇다고 하여 실제 그 한글의 의미를 아는 것은 아니다. 한국어에 대한 이해는 한국사회와 역사에 대한 문화적 이해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이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족들에게 다문화주의를 요구해야 한다. 여성결혼이민

자들은 일반적으로 한국 사회에 적응하려고 노력한다. 소수 문화를 가진 사람들은 다수 집단 문화가 이주해 와서 자신들의 문화를 소수 문화로 취급하면 저항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다수 문화 집단에 소수 문화 집단 사람들이 이주해 온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동화되려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우리는 이런 의미에서 한국 사회가 결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 동화했다면 그것은 한국 사회의 최하층 농촌 문화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최하층 중의 최하층으로 동화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빈약한 결과에 불과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한국 사회에 단순히 동화시킨다면 한국 사회의 최빈곤층인 농촌가족들을 다시 한 번 최빈곤층의 지위에 고정시키는 족쇄가 될 수도 있다. 우리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 교육을 해 보면, 그녀들은 매우 적극적이고 활달하며 상당한 문화역량과 인격을 지니고 있는 존재들이어서 그러한 강점을 잘 살려서 좌절하고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희망을 가지고 한국 사회를 긍정적인 다문화 사회로 변화시키도록 하는 것이 훨씬 올바른 선택이라고 믿는다.

미래의 한국 사회가 다언어 역량을 가진 다문화주의 사회로 나아가는 것이 여러모로 긍정적이다. 게다가 미국과 캐나다 등도 표준영어정책에서 다언어 정책으로 바뀌었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어 능력이 뒤떨어지는 지는 현상을 막을 방법이 없고, 또한 자녀들이 제도교육에서 일정하게 뒤처지고 소외되는 것도 막을 수 있는 묘안이 별로 없는 현실이 다가오고 있다고 본다. 이런 2세교육이라는 심각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으로 결혼 이민 여성들의 모국어를 익히게 해서 다언어, 다문화를 사용하는 역량으로 변화시켜서 2세교육 문제도 해결하고, 잠재적 사회문제도 해결하고, 게다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긍심과 주체적 발전노력을 지지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한다.

삼중언어교육에서 비중은 먼저 한국어 교육, 이어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어 (소위 선진국 언어) 교육 순이다. 먼저 우리는 한국어 교육을 해야 하는 이유는 한국어가 한국 사회에서 가장 일반적인 소통언어이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한국어가 지체되어 있다는 것이 사실이다. 어머니의 한국어실력 탓도 없지는 않겠지만 가장 중요한 요인은 국제결혼을 하고 이중언어교육이 실행되는 가정의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언어지체 현상이 여기에서도 드러난다는 것이다.

삼중언어교육에서는 다음으로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을 해야 한다. 어머니의 모국어를 교육해야 하는 이유는 어머니 나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지는데 필요하고, 이후에 한국과 어머니 나라 사이에 평화로운 국제 무역에도 공헌할 수 있기 때문이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한국어 습득에서 불리한 처지에 있었지만 어머니의 모국어 습득에서 유리한 처지에 있게 된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어머니의 모국어를 습득하는 문제에서는 출발부터 유리한 처지에 있게 된다. 국제결혼 자녀들은 어머니가 가진 한국어를 잘 못한다는 약점을 어머니가 모국어를 잘한다는

강점으로 배우어야 한다. 국제결혼 자녀들이 어머니의 모국어를 익히지 못하면 한국사회에서 ‘빈곤-국제결혼-자녀교육의 어려움-이등 국민의 등장’의 악순환에 빠지게 된다. 국제결혼 자녀가 어머니의 모국어를 익히지 못하면 이들은 학교에서 조만간에 왕따를 당하면서 어머니를 원망하는 사회적 불만세력으로 자라게 될 수도 있다. 이들은 어머니의 언어를 익히지 못하면 어머니의 나라, 문화 등 어머니의 모든 것을 무시하고 경멸하는 분위기로 넘어가게 될 것이다. 이들 자녀들은 어머니를 한국어도 모르는 바보라고 생각하게 된다.

삼중언어교육에서 마지막으로 영어 혹은 소위 선진국 언어인 영어, 불어, 독어, 일본어, 차이나어, 스페인어-남미어, 포르투갈-브라질어 등을 공부해야 한다. 영어등 선진국언어를 공부시켜야 하는 이유는 국제결혼 자녀들에게 만일 아버지의 한국어와 어머니의 모국어만 교육시키면 이들이 우리 사회에서 소수자집단으로 취급당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교육과정에 영어등을 포함시켜서 이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이 사회적인 소수자고립집단이 아니라 문화적으로 강력한 다문화주의, 다언어 집단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경우 상황은 반전된다. 그런데, 항상 고려해야하는 것은 똑같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이라도 모두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삼중언어 교육이 비교적 손쉬운 집단은 필리핀처럼 타갈로그어와 영어를 동시에 사용하는 집단들의 경우에는 비교적 쉬운 문제이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 결혼 이민 온 집단들에게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되기 때문이다. 일단은 영어를 제3언어로 육성하려는 관점이 요구된다는 점만 확인하자.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교육은 주로 교재인 “배우기 쉬운 한국어”를 매개로 실시되었다. 교재는 총 6권으로 구성되어있는데 이중 초급수준인 1, 2권을 교재로 선택했다. 초급교재 가운데서도 초보자를 대상으로 하는 1권은 20명, 상대적으로 한국어에 익숙한 사람들에게 쓰인 2권은 48명에게 전달되었다. 정기학습모임이 만들어진 경우나 초보자이면서도 학습가능성이 많은 경우는 1, 2권 모두가 전달되었다. 기간이 짧아서 모두 쓰이기는 어려웠지만 한국어교육이 비교적 단기간에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져야한다는 점을 공유하는 계기를 만들고 자습하면서 2006년에도 다시 학습을 진행한다는 문제의식을 만들었다고 본다.

교 재	수 량	대상자	비 고
배우기 쉬운 한국어 1권	20권	초보자	13명은 1, 2권 동시 받음
배우기 쉬운 한국어 2권	48권	5년차이상, 또는 민들레아카데미에서 한국어를 어느 정도 학습한 대상자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에 대한 교육은 동화읽기가 가능한 5세전후의 아이들과는 동화를 함께 읽었으며, 3~4세 자녀들과는 놀이겸용 자녀용 교육교재인 “자동차북 시리즈”(피터팬출판사)를 68권 구입하여 놀이교육에 활용했다. 이는 교육참여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이 모두 84명

으로 젓먹이를 제외하고는 모두 놀이교육의 대상자가 됨을 고려한 것이고 나아가 미래의 학습 도구를 제공한 것이다. 5세전후의 아이들에 대한 동화구연교육은 매우 효과가 높았는데 안정적으로 수행이 가능하다면 그 효과는 배가될 것이 확실하다.

남편들 또는 시부모들과의 대화나 교육은 상대적으로 매우 난관이 많았다. 남편, 시부모와 더불어 자녀, 손자에 대한 교육과 여성결혼이민자의 한국생활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는 경우 가족관계가 본래 원만한 경우 거의 어려움이 없었다. 그리고 이런 경우 농촌지역사회의 빈곤과 교육문제를 중심으로 대화를 나누면서 다문화주의와 이중-삼중언어교육의 관점을 제시하면 거의 그대로 수긍되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가족관계가 원만하지 않은 경우 교사들이 방문교육을 오는 순간에도 노골적으로 배타적인 분위기로 맞이하거나 여성결혼이민자에게 감정을 숨기지 않고 드러내는 경우가 종종 목격되었다. 이런 경우 매우 원만하게 상황을 풀어가야 한다. 특히, 나이든 시부모들에 대해서는 시부모들의 발언과 행동을 일단 수용한 뒤 차분하게 손자손녀에 대한 교육의 성패가 여성결혼이민자교육이 성공해야 가능하다는 점을 설득해야 가능했다. 어떤 경우에는 아예 얘기조차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에도 포기하지 않고 끈기있게 방문하여 재설득하는 과정이 필요했다.

아예 이야기를 진행시키기 어려운 점이 있는 시부모들과는 달리 남편들의 경우는 상대적으로 젊기 때문에 대화가 용이한 편이었다. 특히, 농촌지역의 보수성 탓인지 의외로 자녀들에 대한 애정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경우 남편들이 의외로 쉽게 다문화주의나 삼중언어교육의 관점이 수용되는 측면도 있었던 것 같다. 남편들에게는 주로 아시아 다른 나라들의 문화가 한국의 그것과는 다르다는 점, 상당히 많은 나라들에서 한국 남성들이 일반적으로 가사노동에 대한 부담이 이루어지지 않는 점을 문제 삼는다는 점을 지적하고, 한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의 노동에 대한 의식과 돈(저축)에 대한 가치관, 술 문화, 이웃에 대한 관계, 가족문화 등등이 사뭇 다르다는 점을 이야기하는 경우 자신의 가정생활체험에 근거한 판단과 수용이 비교적 쉽게 이루어졌다.

여성결혼이민자 본인에게는 한국어교육을 시행하고 한국문화를 소개하면서 다문화주의적 관점을 소개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동시에 다문화주의와 삼중언어교육에 입각한 자녀교육 방법을 소개했다. 여성결혼이민자의 가족인 남편, 시어머니, (시아주버니)에게는 다문화주의를 소개하고 다문화주의와 삼중언어교육을 비롯한 자녀교육방법, 그리고 자녀의 제도교육과정 적응방법 등을 교육하였으며, 자녀들에게는 동화 읽어주기, 놀이책을 함께 갖고 놀면서 어머니를 존중하는 것이 왜 필요하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교육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가족(남편과 시어머니 등)에게 문화차이와 한국어 습득의 어려움을 이해시켜서 한국어를 이해하지 못하는 여성결혼이민자가 무능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는 점을 이해시키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했다. 또한 자녀가 한국어 습득에서 다소 뒤쳐질 수 있다는 점을 다문화가족의 일반 현상으로 이해시켰고, 자녀가 왕따 당할 시기가 초등학교에서 시작해서 중등학교에서 심화되는데, 이 시기에 자

너가 삼중언어(한국어, 어머니 나라언어, 그리고 영어)를 구사할 수 있다면 한국사회에서 아이의 사회적 위상이 높아져서 해결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은 어머니 나라의 언어를 자녀에게 전수하게 하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한국어교육은 여성결혼이민자와의 신뢰만 얻어지면 바로 순서대로 진행할 수 있는 반면 남편이나 시부모등 국제결혼 가족과의 대화와 교육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전체구도가 분명해진 3, 4주 뒤 진행 팀을 둘로 나누어 프로그램을 진행할 때도 반드시 적어도 한 팀에 2명이상 함께 방문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었다. 이때 가능하면 남성과 여성이 한 팀을 이루어 방문하는 것이 좋은데 남편이 집에 있는 경우 여성교사가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을 진행하고 남성교사는 남편과 이야기와 교육을 진행하는 것이 좋고, 반대로 시어머니가 아이들을 보고 있는 경우 여성교사가 시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누고 남성교사는 한국어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좋기 때문이다. 팀을 구성하여 방문한 것은 실제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신뢰도와 안정성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대부분 한 팀에 2~3명 정도가 방문하게 되는데 너무 많은 경우(4명이 넘는 경우) 여성결혼이민자 가정에 부담을 주는 경우가 있어 주의해야했다. 진행팀을 둘로 나누어 진행하는 경우 한 가족에게 교사진 2명만이 방문하게 되면 간혹 여성결혼이민자교육-자녀교육-가족대화교육이 동시에 진행되어야 하는데 교사진 숫자가 부족하여 프로그램 중 하나는 생략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프로그램 일정이 다되어 가족한마당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한국어로 “나의 생활”, “가족에게 보내는 편지”등을 쓰거나 한글로 글을 쓰기 어려운 경우 영어나 모국어로 글을 쓰도록 주문하여 이중 일부를 인터넷신문 참소리(cham-sori.net)와 월간지 “열린전북”, 그리고 군지에 신도록 할 것이고, 이 글들을 모아 민들레아카데미 연극체험과정에서 공동창작한 “허황옥과 김수로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와 함께 가족한마당을 기념하는 문집을 발간하겠다고 하여 의욕을 고취하였다. 동시에 가족한마당행사에서 한국어로 소감말하기를 준비하도록 주문하였다. 2주간 주문한 결과 모두 8명이 각각 영어(5명)와 한국어(3명)로 글을 써왔으며 그 내용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고민과 희망에 찬 결의를 미루어 짐작할 수 있는 것이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작성한 글들은 표구하여 행사 당일엔 가족한마당 장소인 군민회관에서 4시간여 전시회를 진행했고 문집 “장수민들레이야기(Story of Asia Mindlle in Jangsu)”를 100권 발간하여 배포했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들이 참여하는 가족한마당 행사를 12월 16일에 개최하였다. 가족한마당행사에는 폭설에도 불구하고 국제결혼가족 80여명을 포함 100여명이 참여하였다. 가족한마당 행사 여는 마당에 “장수민들레아카데미”의 연극체험과정에서 교사진과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공동창작한 “허황옥과 김수로의 아름다운 사랑이야기”를 공연하였다. 연극공연에는 모두 19명이 참여했는데 연극을 마치고 난 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매우 스스로에게 감동받은 것 같았으며, 가족을 포함한 관객들은 여성결혼이민자의 새로운 면

을 확인한 것 같았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가진 문화가 한국문화로 동화되는 것이 아니라 공존할 수 있을만한 가치가 있다는 느낌이 전달된 것으로 본다. 가족한마당 행사를 보완하는 장치로 구성된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음식,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들을 담은 사진을 전시하였는데 이러한 배치가 연극공연의 효과를 높였을 것으로 본다. 식사를 나누면서 진행된 한국어로 소감말하기 행사에서는 한마당행사에 온 여성결혼이민자 모두가 참여했고 감동이 전달되는 시간이 되었다.

우리는 지역에서 전체 모임을 여성결혼이민자와 그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를 높여주기 위한 노력을 보이지 않게 기울였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문집을 만들었고, 글들을 판넬로 만들어 전시하고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족들의 사진들을 전시했는데 이 모두가 가족들의 사회적 지위에 대한 배려와 연관이 있었다. 또 국제결혼가족들을 입구에서부터 반갑게 맞이해서 그들이 주빈이라는 것을 확실하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노력했고,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한 일방적인 ‘동화’ 방침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노력했다. 우리는 동시에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자국의 국적을 지나치게 드러내려는 태도도 적절하게 자제시켰다. (우리는 필리핀 출신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연극공연에서 허황옥 일행이 김해 앞바다에 도착하여 타갈로그어로 노래를 부르면서 필리핀 국기를 흔들자는 것을 막았고, 1부 행사에서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자제하였다.) 음식도 채식뷔페에서 마음 담긴 후원을 받아 웰빙식단을 준비하였으며, 옆에는 교육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가 요리해온 인도네시아 음식과 필리핀 음식을 배치하여 균형을 맞추고 소개하는 것도 잊지 않았다. 식사시간에는 불가피하게 소수의 지역 유지들에게 제일 먼저 식사를 하도록 했지만 그 대신에 두 번째로는 다수의 여성결혼이민자가족들에게 식사를 하도록 했고, 마지막으로 우리 교사진이 식사를 했다.

우리는 지역 행사에서 군청, 그리고 여성단체 등 여러 참여 단체들에게 골고루 기회를 주어서 전체적인 협력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무척 노력했다. 우리는 대회에서 이주 결혼 여성과 그 가족들에서 주빈으로서 중앙에 탁자와 의자를 배치했고, 그 이외에 지역의 유력자들이 모임 중에 자리를 뜨는 것을 막기 위해서 좌측으로 작은 탁자를 두고 자리를 배치했고, 우리 교육팀들은 우측으로 탁자없이 자리를 배치해서 앉았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가족한마당”이 마무리된 12월 17일, 그동안 가정방문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공유해오던 <여성다시읽기>, <아시아이주노동자인권센터>, <전북평화와 인권연대>, <가톨릭노동사목 노동자의 집>, <부안이주여성한글교실>등에서 활동하고 있는 활동가들과 약식토론회를 전개했다. 여기에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사업보고가 이루어졌으며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에 대한 가정방문교육의 의미가 공유되었다.



### 3)사업과정에서 고려되어야할 요소들

우리가 만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 능력은 보통 한국 체류기간이 길 수록 나아지는데 분기점은 현재로서는 대략 5년 정도인 것 같다. 그리고, 가족간에 화목한 분위기가 있으면 한국어 능력도 어느 정도 발전되어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개인의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한국어 능력이 특별히 덜 발전되거나 외향적이어서 특별히 더 발전된 경우는 드문 것 같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내성적인 경우조차도 한국인에 비해서는 일반적으로는 대단히 적극적인 편이다.

다만, 여성결혼이민자가 체류기간이 짧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런저런 이유로 가정 내에 고립되어 자녀하고만 있는 경우는 한국어 능력이 뒤떨어진다. 이런 경우 십중팔구 이웃간에 대화의 기회 자체가 차단되어 있는 여건에 있는 경우가 많다. 장수의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정들의 경우 적지 않은 수가 마을과도 일정한 거리를 두고 있는데 이런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와 자녀들의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 상당한 어려움을 예고하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이유가 문화차이에서 기인하는 경우 누가 먼저 문제제기를 하느냐에 따라 갈등의 쟁점이 달라지는 것 같다. 여성결혼이민자가 문제제기는 경우라면 한국의 가사노동문화에 대한 여성 몫의 과중함이 문제가 된다. 이것은 필리핀처럼 여성결혼이민자가 살던 모국이 한국보다 가족문화에서 가사분담률이 높은 경우에 해당된다. 반대로, 남편이 문제제기를 하는 경우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저축의식과 소비습관, 그리고 여성결혼이민자가 모국의 가족에게 돈을 부쳐주는 것을 문제로 삼는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는 주로 노동에 대한 관점과 여가 문제로 인한 것이다. 시어머니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게을러서 노동을 적게 한다고 불만이다.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에서의 습관이나 문화를 알 리 없는 시어머니가 여성결혼이민자에게 노동을 요구하거나 너무 노는 것을 좋아한다고 비판하는 경우가 많다. 시어머니들은 이런 문화에 대해서는 대개 적대적이고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아시아지역 이주여성, 특히 필리핀여성들의 경우 우리문화보다 흥이 많고, 적극적이며 활달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다. 민들레교실 교사진이 느끼기에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대단히 낙관적이고 잘 웃는다. 문화적 차이로 인한 문제는 의외로 심각한 것 같다. 여성결혼이민자 일부는 종종 심각한 우울증에 빠지기도 한다. 또 시부모와의 갈등을 견디다 못해 경제적 어려움을 무릅쓰고라도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이 시부모와 분가하여 자녀를 키우고 있는 경우도 존재한다. 물론 이 분가하는 경우 고부간의 갈등을 축소시키기 위해서이겠지만 실제로 문제해결로 다가가는 것은 아니다.

부모가 다문화와 이중 언어 환경에 있는 자녀들은 일반적으로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히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한국인이면서 외국에서 살다 와서 두 개의 언어를 자유자재로 구사하는 아이들의 경우에도 수능 시험에서 언어 영역이 어려워지면 좋은 점수를 얻지 못한다.

두 개의 언어를 완벽하게 익힌다는 것은 그 뿌리까지 따져보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아마도 한국에서 다문화주의적인 분위기가 자리를 잡아도 ‘부’의 언어와 ‘모’의 언어가 서로 다른 국제결혼가족 자녀들의 경우 아무리 노력해도 한국어 실력이 조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 “찾아가는 민들레 교실” 교사진은 처음부터 이런 사실을 우리가 삼중언어교육의 관점을 제시할 때에 각 가정에서 지속적으로 설명했다. 만일 이런 점이 고려되지 못하면 국제결혼 자녀들이 일반적으로 지능이 떨어져서 한국어를 잘 못하는 것으로 오해될 수 있기 때문이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에서는 교육과정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에 대해 대단히 관심을 많이 기울였다.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은 지극히 정상적으로 태어났으나 한국 사회에서 방치되는 여건에 처해있는 것이 냉정한 현실이다.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은 금물이지만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아이들 상태는 그리 좋은 편이 아니다. 대부분 한국어 능력이 약간씩은 뒤떨어지는 경우가 많다.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이 제도교육에서 학력이 뒤떨어지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있고 그 초기 현장을 직접 보고 있는 것이다. 부모들의 이해부족, 정부의 방치와 교육당국의 무관심이 자녀들의 장래 문제까지 고민할 여력이 없는 국제결혼가족의 미래의 문제로 성장하고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은 세 가지 유형이 일반적이다. 하나는 2~3세의 경우에 한국어를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4~5세의 경우에 일부는 극도로 조용하거나 일부는 극도로 활달하다 못해서 폭력적이다. 다른 하나는 겉으로 한국 부부 자녀와 전혀 차이가 나지 않는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녀들이 한국어 사용능력이 약간 뒤떨어진다는 사실은 과장되어서 안 된다. 한국인 부부 자녀들도 개인차이가 있어서 한국어를 잘 구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이것은 아이들 일반의 특성일 수도 있다. 소위 천재들도 어릴 때 언어 발달이 매우 지체되었던 적이 있었다는 사례들이 많이 보고 되었다. 이것은 단순히 도시와 농촌 사이의 차이일수도 있다. 그래도 도농간의 차이가 여성결혼이민자의 자녀들에게는 극단적으로 지체되어 나타나기 쉬울 수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 자녀들의 사회성 발달은 동료 또래 집단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차이는 없는 것 같다. 이들 자녀들을 공동의 공간에 함께 두면 이들도 다른 아이들처럼 금방 친구가 되어 전체 공간을 휩쓸고 다니고 떠들썩한 것은 다른 아이들과 같다. 다만, 상대적으로 대화가 적은 편이고, 장난감을 공유하면서 함께 노는 면이 약간 덜 할 뿐이다. 확실한 것은 여성결혼이민자 자녀가 눈에 띄게 소극적이라는 점이다. 아이들 스스로가 여성결혼이민자와 마찬가지로 자신들의 사회적 지위를 감지한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소극적이면서 조심스러운 경우가 많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경우 기본철학이 여성결혼이민자들을 ‘허황옥’처럼 존중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입장을 가졌는데도 교사진에게조차 자녀들이 눈치를 본다. 마음의 문이 열리는 경우에도 조용하고 다소곳한 모습을 보여주며 여전히 소극적인 태도가 남아 있다.

#### 4)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유형화 : 존재양태와 의식변화과정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교사진이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과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만나면서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과의 만남을 분석하여 7가지 유형을 추출했는데 대략 다음과 같다.

##### ○ 유형1(열악 여건) : 여성결혼이민자가 자녀만 데리고 있고 가족을 만날 수 없었던 경우

우선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했다. 또,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한국어와 모국어를 동시에 가르쳐야 한다고 설득했다. 이 경우에 남편이 자녀에게 한국어 이외에 다른 언어도 가르친다는 점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면 우리 민들레교실 교사진에게 연락해서 도움을 요청하라고 이야기 했다. 우리 찾아가는 민들레팀은 한국 사회에서 거의 방치상태에 있는 고립무원의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 친정구실을 해서 그들에게 위로가 된다. 우연히 만난 시어머니는 며느리에게 ‘남편 말 좀 잘 들어라’ 고 교육해주기를 바랐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이 한국 사회에서 완전히 고립되어 있는 경우로서 좋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렵다. 가정방문교육과 같은 도움이 아마 거의 유일하고 가장 효과적인 접근인 경우인 것 같다. 주변의 가족들을 설득해야 하는데 만나는 것부터 어려워서 설득하기가 쉽지 않다. 좀 더 관계가 좋아지면 본인과 가족들을 설득해서 주변 여건을 개선해야 한다.

##### ○ 유형2 (문화차이) : 국제결혼 이민 여성이 불화의 주체일지도 모르는 경우

다른 지역 사업에서는 여성결혼이민자가 가정생활에 충실하지 않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상당히 있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지만 우리의 경우는 오직 1건에서 그런 경우일지도 모르는 사례를 만났다. 이 여성결혼이민자의 경우는 우리 교사들과의 교육시간을 활용하여 가족들의 비판을 피해가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이 여성결혼이민자들과 끈끈한 결속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비정상적인 사회적 일탈행위를 견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다. 이 경우 가족간의 갈등상태는 우리가 해결책을 찾기가 어려우며 꾸준히 관계를 향상시키는 방법 밖에 없다.

##### ○ 유형3 (문화차이) : 여성결혼이민자와 남편 사이에 갈등이 있는 가족의 경우

우선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을 실시했다. 또 자녀 문제를 매개로 해서 부부 사이 또는 가족 사이에 협력이 필요하다는 점을 납득시켜서 국제결혼가족 내부의 갈등을 축소시켰다. 불만의 주체가 여성결혼이민자인 경우에는 문화 차이를 설명했고, 불만의 주체가 그 남편이나 시부모인 경우에도 문화 차이를 설명해서 설득했다. 이 경우 부부 모두가 우리에게 상담

하는 사례가 등장했다.

○ 유형4 (문화차이) : 여성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 사이에 갈등이 있는 경우

우리는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 교육과 한국의 문화 교육을 하고 이것이 자녀 교육 문제와 직결된다고 설득한다. 여성결혼이민자가 어머니에게 구박을 당하고 있던 상황에서 우리팀의 방문은 시어머니의 구박을 견제하는 효과가 발생하는 것 같았다. 시부모가 매우 완고한 경우라면 우리와의 대화 자체를 피하지만 그런 경우조차 우리의 존재 때문에 며느리를 홀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성결혼이민자와 시어머니 사이의 갈등은 대부분 문화차이 때문에 발생한다. 며느리가 많은 일을 하지 않는다고 구박하는 경우가 있었고, 또한 며느리가 활발한 성격인 것을 싫어해서 갈등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었다.

○ 유형5 (문화차이 이해) : 원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화목한 경우

기존의 장수민들레아카데미 교육에는 참여하지 않았지만 우리의 가정방문교육을 적극적으로 환영하는 경우이다. 이런 이유(정부의 관심에 대한 부담, 왕따 집단이라는 자의식?) 저런 이유(정부사업에 대한 불신, 출산) 때문에 기존 민들레 교육에 불참했지만 이들 가족들은 일반적으로 이런저런 방식으로 교양 수준이 높은 경우인 것 같다. 만일 정부의 사업(음식품평회, 자치단체장과의 간담회등)과 우리의 사업 사이에 차이가 있다면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경우 이들 가족들을 깊이 존중한다는 느낌이 결정적인 것 같다. 이들은 주변에서 지원해주는 것보다 존중받기를 원한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교사진이 다문화주의, 한국어 교육, 그리고 자녀 교육 문제를 제기하자 다문화주의의 경우에는 이미 감지하고 있었고 나름대로 남편이 한국어 교육을 이미 시행하고 있었다. 우리의 방문을 고마워했고, 우리가 자녀 교육 문제를 제기하자 막연하게 고민하던 문제를 체계적으로 제기해주어서 고마워하는 분위기였다. 여성결혼이민자가 한국어교육 프로그램에 참가하지 않았다고 해도, 일반적으로 가족간에 화목하면 대화의 기회가 많아서 한국어 실력도 그에 비례하게 되는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였다.

○ 유형6 (문화차이 이해) : 원래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화목하고 기존의 민들레아카데미 등의 교육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던 경우

여성결혼이민자 가족이 전반적으로 화목하면 일반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의 한국어가 능숙하고 자신감이 있는 편이다. 민들레아카데미의 한국어 교육에 참가한 경우에는 대개 우리의 프로그램에 대해 이미 깊이 신뢰하고 있는 상태였다. 우리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한국어 교육, 다문화주의, 자녀의 삼중언어교육 문제를 제기하자 대개 적극적으로 우리의 견해를 수용하거나 조용히 들었다. 우리가 삼중언어 교육을 제기하기 전에는 집에서 한국어 이외의 언

어를 사용하는 것에 대해 암암리의 터부가 있었는데, 우리가 어머니의 모국어 교육에 대한 중요성을 강조하자 우리의 방침을 즉각 수용해서 집에서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를 사용하는 것이 자유스러워졌다. 우리의 방침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지지하는 경우이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자존감 향상에 큰 도움이 된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거의 모국어를 사용할 경우가 없지만 드물게 여성결혼이민자들간의 전화대화에서 모국어를 사용하면서 눈치를 보는 경우가 많았고 이것이 우울증의 요인이 될 수 있었는데 모국어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 매우 편안해했다.

**○ 유형 7 (자녀의 삼중언어교육의 실행) : 다문화주의 가정으로의 전진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

이미 어느 정도 다문화주의가 이해되고 자녀들에게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교육을 실시하고 있었던 가족들에게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삼중언어교육 방향을 제시했다. 이미 한국어와 영어의 이중 언어 교육을 시행한 가족들은 두 유형이 있었다. 하나는 한국에서 영어 강사를 하면서 체험적으로 한국 사회에서 영어가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차려서 한국어와 영어 교육을 병행한 경우이다. 이들은 대개 어머니가 한국어에 익숙하지 못해서 자녀의 한국어가 뒤쳐질 수 있다는 점에 대한 이해는 없었지만 자녀들에 대한 영어교육이 매우 필요하다고 느끼는 남편과 시부모들의 지지 속에서 이중언어교육이 실행되고 있었다. 다른 하나의 유형은 “민들레 아카데미”의 교육을 통해서 한국어와 영어의 병행 교육이 필요하다는 점을 의식한 경우이다. 이들은 가족들의 신뢰가 없었기 때문에 한국어와 영어 교육의 필요성까지는 감지하고 부분적으로는 실행했다. 그렇지만 두 경우 모두 어머니의 모국어(타갈로그어 등)에 대한 교육은 가족들의 눈총이나 물이해로 인하여 불가능했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교사진이 가족들과 본인에게 어머니 나라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는 것이 자녀 교육에 좋다는 점을 설명하자 가족 모두가 납득해서 타갈로그어 교육도 추가되게 되었다. 이것은 여성결혼이민자 본인들에게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확실한 인식을 가지게 했고, 그 가족들에게는 본의 아니게 여성결혼이민자에게 언어적 압박과 문화적 압박을 가했다는 것을 암암리에 자각하게 만들었다. 간단히 말해서 자녀에게 삼중언어교육이 진행되는 가족들은 모두 온전한 건강 상태에 있는 가족들로 보면 될 것 같다.

위의 7가지 유형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교사진이 경험을 토대로 분류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듯이 수많은 난관에 둘러 쌓여있으면서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꾀꾀하게 자신과 가족을 지키고 있다는 점이다. 남편과 시부모와의 불화가 발생하는 경우에도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자녀들과 함께 살아가기 위해 노력한다. 이민과정에서부터 여성결혼이민자들은 사실 놀라운 힘을 보여주는데 생활 속에서도 역시 그녀들의 힘은 자주 목격된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략 여성결혼이민자들이나 국제결혼 가족이 온갖 사회문제가 응집된 대상으로만 파악하고 치유대상으로만 보는 것에는 문제의식을 갖는다.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 가족은 일반적으로 가난하고, 한국사회에서도 사회의 주변부에 머물러 있으며, 현재 자신과 가족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찾고 있지는 못한 상태다. 그러나, 몇 가지만 제도적으로 보완되면 여성결혼이민자들은 국제결혼 가족 전체의 동반성장으로 나아갈 의지와 힘이 있다.

특히, 그녀들의 능력은 ‘한국’이라는 국경선을 넘어서서 ‘아시아’에 도달할 수도 있는 것이다. 장수라는 농산촌에서 뚝뚝뚝 걸어 나가 아시아로 접어드는 길의 안내자 역할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인적 네트워크가 잠재적인 가능성으로 놓여있는 것이다.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유형화는 문제의 유형화가 아니라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자립적 성장기반을 어떻게 만들어줄 수 있을까하는 고민 속에서 나온 잠재적인 수준의 문제해결방안의 유형화일 뿐이다.

## 5)교육참여자의 현황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에서 만난 56명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 가족중 총 5회를 방문한 경우는 8개 가정, 4회방문은 9개 가정, 3회방문은 14개 가정이다. 3회 이상의 31개 가정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수준에 이르렀다고 본다. 2회방문은 10가정, 1회방문은 15가정이었는데 이들 대부분은 미래를 확실히 짐작할 수 없는 상태로 사업이 종료되었다. 총 153회의 가정방문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5회를 방문한 경우도 한국어교재의 4개 장만 진행한 것이므로 매우 아쉽다. 1일평균 4가정 정도를 방문하였으며 1가정당 평균 2.7회 방문하였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참여자들은 총 56명이다. 이중 이미 시행되고 있던 “민들레아카데미”프로그램에 적극 참여하고 있던 경우는 28명, 간혹 참여하던 경우는 17명, 사실상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처음 접촉한 경우는 11명에 이른다. 이들의 자녀들은 총 84명이다. 총 인구 25,000명의 장수군내에서 자녀를 기르고 있는 56가정은 결코 적은 수가 아니다. 직업의 경우 특별한 일거리가 없는 경우와 일자리가 정확치 않은 경우는 주부라고 표기했으나 주부가 농사일을 전혀 하지 않는다는 뜻은 아니다. 다만, 실제 여성결혼이민자가 농사일의 주체가 되어있고 상당히 바쁜 경우만 농업이라고 기재했다. 여타의 뚜렷한 일자리가 있는 경우는 그것을 기재했다. 주부가 많긴 하지만 농업인의 숫자도 상당히 되며, 방과후교실 교사나 관광가이드, 통역, 학원 강사처럼 일정한 능력(특히, 어학능력)을 가져야 가능한 경우도 상당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인적역량이 한국사회에서도 다양하게 쓰일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 6)사업의 평가

장수지역에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이 실시되기 전에는 정기적인 사회문화교육프로그램인 “장수민들레문화교육아카데미”가 비교적 성공적으로 운영되고 있기는 하였으나 농번기와 육아, 시댁과의 마찰 등으로 인해 교육프로그램에 안정적으로 참여하는 여성결혼이민자의 숫자가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가정방문교육이 실시되자 한국어교육프로그램의 필요성은 절감했지만 농사일과 육아문제 등으로 소집형 교육에는 참여가 불가능했던 여성결혼이민자들의 열기어린 참여가 남편 등 가족들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다.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소집교육체계인 “장수민들레아카데미”도 오히려 활기를 띄게 만드는 요인이 되었다. 이는 소집교육과 가정방문교육의 상호보완적인 성격을 잘 보여준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은 장수지역에서 종교적, 문화적 상황에 비추어 접촉 가능한 여성결혼이민자 가족 중 70%이상을 접촉한 것으로 보이는 바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이 처한 어려움과 구조에 대한 지역사회의 폭넓은 이해가 형성될 수 있는 기반이 확보되었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관심과 이해가 사회단체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와 지역 언론으로 확산되는 추세여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과 같은 유형의 방문교육이 여성결혼이민자 사업의 한 흐름으로 정착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교재의 경우 영어를 매개어로 생각했기 때문에 “배우기 쉬운 한국어”시리즈를 선택하였지만 교재내용은 그리 마음에 들지 않았다. 우리가 사용한 한국어교재는 이중언어교육을 염두에 두고 쓰여진 것이 아니었으며, 아시아지역 나라들의 문화에 대한 접근이 전혀 없었고, 한국사회의 농촌지역에 대해서는 하나도 언급되지 않는 등 약점이 많았다. 다만, 가정방문교육에서 응용가능한 각 장이 끝난 뒤에는 숙제를 낼 수 있게 되어있었으며, 한국어와 영어문장을 병렬하여 표기했고, 한국문법과 영어문법을 비교하며 설명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여성결혼이민자들과의 학습에서는 유용한 측면이 있었다. 향후 다문화주의의 관점에 입각한 새로운 여성결혼이민자, 특히 농촌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대상으로 한 한국어교재가 나와야한다는 교훈을 얻었다.

우리는 또한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교육의 진행과 자녀들에 대한교육, 그리고 남편이나 시부모들과의 접촉과 대화를 확대하였으며 가족동반교육을 통한 동반성장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을 매우 가까운 거리에서 접촉한 결과 가정 내의 내밀한 관계와 문제점들을 알게 되었고, 이러한 문제들을 유형화하여 여성결혼이민자가정에 대한 서비스의 기본방향을 찾아낼 수 있게 되었는데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에 참여한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유형화는 향후 가정방문교육이 어떠한 방향으로 진행되어야할 것인가를 시사해준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경험한 장수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 가족들은 한국정부와 한국사회가 여성결혼이민자들에 대해 매우 적극적인 정책을 내놓고 노력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아서 추후 적합한 교육프로그램이 만들어지는 경우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지가 충만하게 되었다. 특히, 이들 국제결혼가족들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아졌다. 이는 여성결혼이민자만을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가족전체를 대상으로 교육과 대화를 진행하는 가족동반교육의 관점의 올바름이 확인되는 것이다. 나아가 자녀교육에 대한 관심을 주제로 대화를 진행하여 한국어,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어, 그리고 이 두 언어를 매개하는 언어로서의 영어교육이 필요하다는 3중언어교육의 관점과 다문화주의적 시각이 여성결혼이민자 본인과 남편들에게 잘 설득된다는 점도 확인되는 것이다. “장수민들레이야기”라는 문집에 실린 글들도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도 어려운 점이 있었다. 참여자를 모집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정책과 웬만한 NGO의 활동으로는 종교(일본계-통일교)와 문화(중국계-조선족)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어려웠다. 이들은 여전히 한국어교육과 한국문화교육에 소극적이다. 이미 한국체류기간이 상당히 흘러 한국사회에 적응하였거나 종교 등의 이유로 내부응집력이 더 강하기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다. 이는 일본인과 조선족출신의 중국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일반적인 다른 여성결혼이민자들이 지닌 어려움을 완전히 극복했다는 의미가 아니므로 문제가 된다. 향후 이들에 대한 설득방안과 대처방안이 필요하다. 게다가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은 프로그램 자체가 매우 단기간이어서 지속적인 프로그램 진행을 요구하는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가족들과 책임있는 약속을 하기가 어려웠던 점이 걸렸다. 요컨대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의 구체적인 존재양식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들에 대한 정책대안도 보다 적극적으로 모색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장기적인 지역차원의 계획과 전망이 서야한다는 것이다.



## 5. 맺음말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을 통해 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에서 다문화주의와 삼중언어교육의 관점에 근거하여 집행되는 가정방문교육의 가능성과 구체적인 실행과정을 살펴볼 수 있었다. 장수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의 경우 이러한 관점에 입각하여 집행되는 가정방문교육의 효과는 매우 높았다. 이미 소집형 사회문화교육이 행해지고 있던 터여서 모든 성과가 가정방문교육에 달린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확실한 것은 이 양자의 프로그램이 상호보완적인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다. 특히, “찾아가는 민들레교실”과 같은 가정방문교육은 이러저러한 어려움으로 소집형 교육에 참여하기 어려운 여성결혼이민자에게 한국어교육서비스를 제공한다는 점과 국제결혼 가족전체를 프로그램의 대상에 포괄함으로써 가족 전체가 동반성장할 수 있도록 기획되었고 이러한 요소가 실제로 프로그램의 성공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다.

짧은 일정 때문에 다문화주의에 입각한 여성결혼이민자에 대한 한국어와 한국문화교육, 삼중언어교육의 관점에 입각한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의 성과를 직접 계량하여 진단하는 것은 어려웠다. 그러나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참여자들이 지니게 된 자긍심과 공동체 의식은 2005년과 전후로 많이 달라진 것이 사실이며, “찾아가는 민들레교실”의 교사진과 참여자들 사이의 상호신뢰와 교감은 대단한 수준이라고 확신한다.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참가자들 중심으로 소규모의 크리스마스축제가 기획되고 실행되었고, 자조모임(self-help association)을 만들어서 서로 도와야한다는 의견이 올라와서 이미 실행되고 있다. 이러한 모임에 “찾아가는 민들레교실” 교사진에 대한 초대는 빠지지 않는다.

모든 사회사업은 진정성의 기초위에 계획과 헌신으로부터 시작되고, 여기에 신뢰와 참여가 더해지면 목표를 충분히 달성한다. 여성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사업은 그녀들이 한국 사회에 정착하는 것을 전제로 온 것이기 때문에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여성결혼이민자의 숫자가 늘어나고 국제결혼가족의 자녀들이 이미 상당히 성장해버린 상황에서야 준비되고 있는 정부정책이 아쉽기는 하지만 이제라도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프로그램이 그들 모두를 감쌀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동안 장수지역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집행해온 “민들레팀”은 이제 ‘장수민들레결혼이민자가족지원센터’를 확대, 운영하며 장수지역, 나아가 전북지역의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헌신할 것이다. 그것은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이 심각한 사회문제에 휩싸여있기 때문에 이를 해결해야한다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 인구가 180만명 이하로 다시 감소한 ‘농도전북’에서 여성결혼이민자들과

국제결혼가족의 활기찬 성장을 생각하지 않는 지역의 발전을 고민할 수는 없다고 확신하기 때문이다.

2006년에도 여성결혼이민자와 국제결혼가족을 위한 정기교육프로그램과 가족동반교육프로그램, 자녀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지방자치단체, 중앙정부와 협력하여 안정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어느 누구를 위해서도 아니고 우리가 몸 부비고 살아가는 지역에 대한 당연한 임무이다. 이를 위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다문화주의적 여성결혼이민자와 가족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는 연구자 및 활동가들을 결집하여 여성결혼이민자사업을 지속적으로 연구할 단위를 독립적으로 구성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전북지역 전체의 여성결혼이민자 사업단위의 네트워크를 안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가능하면 전국적으로 여성결혼이민자들을 위한 정책으로 입안, 실행되었으면 하는 정책방향으로 다음의 두가지를 제안한다.

### (1)여성결혼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교실과 다문화주의의 결합 시행

여성결혼이민자 대책은 그 중심이 한국어 교육이어야 하고, 그 과정에 한국 문화 적응이라는 문제가 한국어 교육 과정의 일부로서 포함되어야 한다. 한국어 교육 프로그램은 대단히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고 어려운 프로그램이지만 그 효과가 가장 직접적이고 지속적이다. 문화만을 중심에 놓는 각종 프로그램은 비용에 비해서 효과가 적고 단발적인 프로그램이 될 것이다. 한편 한국어만의 교육은 지루해서 참여자들의 의욕을 축소시킬 수 있다.

한국어 교재는 △다문화주의, 또는 문화다원주의 관점 △ 현지문화적응의 관점 △ 전국적인 문화의 관점 △세계사적/아시아사적 관점 △ 다문화주의적 한국사 해석의 관점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문화주의적 관점’이란 한국의 문화와 여성결혼이민자 본국문화 사이의 차이에 대한 내용이다. ‘현지문화 적응의 관점’이란 군 단위 현지의 실정 맞는 교재가 되어야 한다. (이것은 군 단위 현장 교육 전문가가 중심이 되고, 그것을 지원하는 중앙 단위의 전문가팀의 연결로 해결되어야 한다. 현재의 중앙 부처가 중심이 되고, 그곳에서 만들어진 교재를 전국 단위로 배포하려고만 하지 말고 적어도 일부는 현지에서 채울 수 있도록 여백을 남겨두라는 것이다.) ‘전국적인 문화의 관점’이란 한국 사회 전반의 정치 제도, 경제 제도, 법률 제도 등에 대한 내용이 실용적 관점에서 포함되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세계사적/아시아사적 관점’이란 인류사에서 ‘이민’ 또는 ‘이주’가 자연스러운 문화 교차현상이라는 점이 납득되어서 여성결혼이민자들이 문화사절로서의 자긍심을 가질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필요한 관점이다. ‘한국사에 대한 다문화주의 해석의 관점’은 이주 여성들이 한국에서의 자신들의 위치가 유구한 한국사에서 특별한 예외적 현상이 아니라 일상적 현상이었다는 사실을 복원해서 한국 사회에

적응을 돕기 위해서 필요한 관점이다. 한국사회를 다민족복합사회로 해석하는 역동적 시각이 필요하다.(ex, 가야의 김수로왕와 허황옥의 사례)

## (2)국제결혼가족들을 위한 여성결혼이민자의 모국을 이해하기 위한 교육과 다문화주의

한국 사회는 편협한 일국 문화적 사고방식 아니라 다문화주의 사회가 되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에서 국제결혼 가정은 여성결혼이민자들에게만 한국 문화로의 적응을 주장할 것이 아니라 한국인 남편들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와 문화에 대해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서울 지역에서 얻어낸 베트남어 교실 모임의 성과(여성부 보고서 편집 완성, 2005년 자료)는 대단히 고무적이고 중요한 업적이라고 생각한다. 한국 정부는 이것이 한국의 미래를 위한 투자라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은 현재 한국 문화가 한류 열풍으로 퍼져 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사회에서 좋은 인상을 주는 것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되는 것이 필요하다. 이것은 적절한 투자와 적절한 홍보가 거시경제적으로 보아도 이익이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이다.

현재 여성가족부와 문화관광부, 교육인적자원부, 보건복지부등의 국제결혼 이민의 이주 여성들에 대한 정책은 주 수혜계층이 중국어, 일본어, 필리핀어(영어) 계이고, 소외계층이 베트남어, 인도네시아어, 우즈베키스탄어, 몽골어계이다. 우리는 이들 자녀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유치부 국제언어교실’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물론 상당한 예산을 요구하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많이 필요치 않을 수도 있다. 여성결혼이민자들인 어머니들을 교사로 활용하면 예산은 생각이상으로 절약할 수 있다. 이것은 주 수혜계층뿐만 아니라 소외계층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소외계층 집단에서도 여성결혼이민자의 언어와 한국어에 동시에 능통한 집단이 소수이지만 존재하기 때문에 집단으로 모으기만 하면 ‘국제언어교실’은 생각보다 저비용으로도 충분히 가능하다. 한국사회는 현재 조기 유학으로 엄청난 비용을 쓰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소위 도 단위와 시 단위의 ‘영어 마을’ (대구, 전주, 성남 등)정도의 대규모 투자가 아니라 그보다 훨씬 저비용의 투자로도 엄청난 다언어와 다문화 집단을 양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우선 전국에 시범 단지 하나만 만들고 전국단위에서 모집해도 충분히 가능할 것이다. 시작한 유치부 단위 하나에서 시작하는 것이 비용상 효율적일 것이다. 그 후에 성과를 보아 가면서 아이들의 성장과 동반해서 차근차근 시·군단위의 초등, 중등, 고등 교실로 확대해 만들어 가면 된다고 생각한다. 물론 제도교육을 보완하는 형태로 시작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그 역시 장기적인 전망 하에서만 가능하다고 보는 것이다.

우리는 장수에서 새로운 아시아를 상상한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다름이 모여 하나를 이루는 것이라는 믿음으로 또 하나의 새로운 문화를 만나는 첫걸음을 시작한다.